

I. 서 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내용 및 범위
3. 연구방법

I. 서론

1. 연구의 목적

좋은 의미에서건 나쁜 의미에서건 모름지기 근대사회의 사회정책은 통계를 기반으로 발전해 왔다. 잘못된 통계자료는 크나큰 정책적 오류를 낳지만 통계자료에 근거하지 않고 수립되는 사회정책 역시 정책의 오류와 혼선을 낳는다. 그렇기 때문에 선진 각국은 오래전부터 다양하고 정확한 각종 사회지표를 만들려고 노력해 왔으며, 또한 많은 사회정책들이 통계지표를 근거로 만들어지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 분야에서는 아직 정책의 기초자료가 될 만한 통계지표가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청소년정책은 특히 다양한 부처, 단체, 시설 등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종합적인 접근과 이해당사자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의 바탕 위에서 만들어져야 하므로 청소년 관련 통계지표의 생산은 다양한 이해 당사자 간의 의사소통을 위해 절실히 요구된다. 또한 최근 청소년을 문제적이거나 결핍의 시각에서 보기보다는 긍정적이고 자율적이며 참여 또는 인권적인 관점에서 보는 주의주장이 많아졌으나 정작 청소년들의 긍정적인 발달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그들이 보다 긍정적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삼을 통계자료는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통계지표가 만들어진다면, 청소년 정책과 노력은 보다 구체화될 수 있으며 이해당사자간의 의사소통도 더욱 활발해 질 수 있다. 또한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이슈를 구체화할 수 있어 청소년에 대한 사회전반적인 관심을 고조시킬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들에 대한 기대가 학력(學力)에 기초한 가치, 더 정확히 말하면 지적인 발달 중에서도 지극히 지엽적인 발달에만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들에 대한 사회적 기대는 매우 편협하고 낮은 형편이다. 불행스럽게도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을 판단하고 이해하기 위한

확실한 지표는 학력(學力)지표 말고는 없는 상황이다.

이른바 자기충족적 예언(selfful-feeling prophecy)은 개인이나 어느 작은 집단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사회적 기대감이 사회적 존재를 만들어간다. 청소년들에 대한 사회적 기대감이 청소년을 만들어 간다. 청소년들의 긍정적이고 활기 넘치는 모습을 발견해 내고 그것을 부추겨 성장과 발달의 내적 에너지로부터 청소년들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그들에 대한 기성세대들의 새로운 기대감을 만들어낸다면 그것만으로도 그들이 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

이것은 ‘푸른 성장’이라는 청소년위원회의 정책이념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예방중심이 아닌 성장에 대한 지원중심의 정책을 입안하고 수행하는 기초자료로서의 청소년지표의 생산은 궁극적으로는 최선의 예방적 결과를 낳을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 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도 청소년에 대한 긍정적 발달상황에 대한 통계지표의 생산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한국의 청소년들이 얼마나 문제인가에 대한 지표가 아닌 그들이 얼마나 밝고 맑으며 가능성을 안고 있는가에 대한 지표, 그들의 내적 에너지를 드러내는 지표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이 연구가 지속적으로 지향해 온 바이다. 이에 2003년에는 청소년개발지표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하였으며, 2004년에는 2003년의 기초연구를 토대로 한국청소년개발지표의 구성체계 및 개별지표 항목(총 244개)을 산출하였다.

2005년도 청소년개발지표 연구는 2004년도에 수행된 『청소년개발지표 개발 연구』의 후속연구로서 2004년도 연구에서 산출된 지표항목의 결과부문 중 청소년의 ‘정서적 역량(emotional competencies)’, ‘인지적 역량(cognitive competencies)’, ‘사회적 역량(social competencies)’, ‘시민적 역량(civic competencies)’, ‘직업적 역량(vocational competencies)’의 다섯 개 영역의 역량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 개발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에 각 영역별 전문가에 의한 내용타당도 검증을 거쳐 마련된 각 영역별 도구를 하나의 세트로 하는 측정도구를 개발하였으며, 각 영역별로 신뢰도와 타당도를 분석하였다.

이는 차기년도 청소년개발지표 연구의 참고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정책적 함의를 지니는 영역 및 항목에 대한 주요결과를 부록으로 제시하였다. 주요결과를 부록으로 제시한 것은 이 연구의 1차적인 목적이 향후 지속적으로 개발될 각 영역별 측정도구를 생산해 내는 데 있기 때문이다. 최종적으로 도구가 완성되면 조사결과는 모두 지표로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내용 및 범위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측정도구의 측정영역은 2004년도 한국청소년개발지표에서 제시된 244개의 지표영역 중 결과부문 지표 영역에 해당하는 다섯 개 영역이다. <표 I-1>은 본 연구에서 제외된 ‘신체적 건강’ 부문을 포함한 여섯 개 결과부문의 지표분류표이다.

<표 I-1> 2004년 청소년개발지표 결과부문 지표영역 및 항목

핵심영역	세부영역	고유번호	개별지표항목
신체적 건강	4-1-1. 체격	4-1-1-1	청소년신장
		4-1-1-2	청소년체중
	4-1-2. 체력	4-1-2-1	50m 달리기
		4-1-2-2	근지구력(팔굽혀펴기/팔굽혀매달리기)
		4-1-2-3	근지구력(윗몸일으키기)
		4-1-2-4	순발력(제자리 멀리뛰기)
		4-1-2-5	심폐지구력(오래달리기)
		4-1-2-6	유연성(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4-1-3. 신체건강	4-1-3-1	질병율
		4-1-3-2	영양상태
		4-1-3-3	비만율

<표 I -1> 2004년 청소년개발지표 결과부문 지표영역 및 항목(계속)

핵심영역	세부영역	고유번호	개별지표항목
정서적 역량	4-2-1. 자아발달	4-2-1-1	자아정체감지수
		4-2-1-2	자기효능감지수
		4-2-1-3	자아존중감지수
		4-2-1-4	자기통제감지수
	4-2-2. 정서적 건강	4-2-2-1	스트레스지수
		4-2-2-2	우울증 지수
		4-2-2-3	자살충동지수
		4-2-2-4	심리적 안녕감 지수
	4-2-3. 열정	4-2-3-1	학업에 대한 열정지수
		4-2-3-2	취미생활에 대한 열정지수
		4-2-3-3	성취동기 지수
인지적 역량	4-3-1. 사고력	4-3-1-1	창의적 사고력지수
		4-3-1-2	비판적 사고력지수
	4-3-2. 기획력	4-3-2-1	목표설정능력지수
		4-3-2-2	논리력지수
		4-3-2-3	추진력지수
	4-3-3. 문제해결능력	4-3-3-1	의사결정능력지수
		4-3-3-2	자기주도학습능력지수
사회적 역량	4-4-1. 대인관계	4-4-1-1	타인이해능력지수
		4-4-1-2	자기(의사)표현능력지수
		4-4-1-3	갈등해결능력지수
		4-4-1-4	친화력지수
	4-4-2. 집단적응	4-4-2-1	집단의식지수
		4-4-2-2	집단헌신도
		4-4-2-3	집단소속감
		4-4-2-4	집단지도력지수

<표 I -1> 2004년 청소년개발지표 결과부문 지표영역 및 항목(계속)

핵심영역	세부영역	고유번호	개별지표항목
시민적 역량	4-5-1. 사회적 책임	4-5-1-1	사회참여에 대한 태도
		4-5-1-2	지역문제에 대한 관심도
		4-5-1-3	국가·사회문제에 대한 관심도
	4-5-2. 인권 및 사회적 권리	4-5-2-1	인권에 대한 태도(타인)
		4-5-2-2	청소년의 권리의식지수
		4-5-2-3	양성평등의식지수
	4-5-3. 민족 및 국가의식	4-5-3-1	국가에 대한 자긍심
		4-5-3-2	통일에 대한 태도
		4-5-3-3	우리역사에 대한 관심도
	4-5-4. 국제적 안목	4-5-4-1	타문화수용능력지수
		4-5-4-2	지구촌문제에 대한 관심도
직업적 역량	4-6-1. 진로의식	4-6-1-1	진로선택의 주도성
		4-6-1-2	직업적 소질·적성의 이해도
	4-6-2. 진로탐색	4-6-2-1	직업정보탐색 능력지수
		4-6-2-2	직업선택도
		4-6-2-3	진로목표 설정 여부
	4-6-3. 진로준비	4-6-3-1	진로계획 수립경험 여부
		4-6-3-2	구체적 진로준비 실행여부

자료 : 한국청소년개발원(2004). 『청소년개발지표 개발 연구』

<표 I-1>의 여섯 개 영역 중 ‘신체적 건강’의 지표항목들은 기존의 통계자료를 재가공하여 제시하여야 할 영역이므로 도구개발 영역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측정도구 개발이 필요한 ‘정서적 역량’, ‘인지적 역량’, ‘사회적 역량’, ‘시민적 역량’, ‘직업적 역량’의 다섯 개 영역을 연구내용으로 설정하였다.

그런데 이 다섯 가지 영역의 도구를 개발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성격과 연구방법 및 내용 그리고 한계를 규정짓는 매우 중요한 사항들이다.

첫째, 각 영역별로 기존의 도구들이 다수 개발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 중에서는 이미 표준화된 도구들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개발된 각 영역의 도구들과 차별적인 도구를 개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각 영역의 특성 및 역량을 측정하는 도구를 만드는 일은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며 하나의 영역이라고 하더라도 그 하부영역의 범위가 포괄적이다. 따라서 5개 영역의 지표를 하나의 도구로 생산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어렵다. 설사 각 영역별로 기존에 개발된 도구들에 준하는 도구를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도구의 타당성에 대한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이며, 2004년도에 확정된 244개 지표영역은 물론 결과부문의 지표에 한정된 도구를 개발하더라도 방대한 도구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시행상의 난점으로 정책적 활용가치는 오히려 떨어질 것이다. 따라서 정책적 함의와 실용성이라는 기준 하에 각 영역별로 핵심적인 요인과 문항을 선정하여 전체 영역을 한 개의 세트로 조사지를 구성하는 것이 본 연구가 지향하는 도구개발의 중요한 목표가 되었다.

둘째, ‘역량’의 개념과 측정에 관한 것이다. 먼저 정서적 영역과 인지적 영역은 ‘역량’이라기보다는 ‘특성’의 의미가 강하므로 2005년도 연구에서는 ‘정의적 역량’과 ‘인지적 역량’을 각각 ‘정의적 특성’과 ‘인지적 특성’으로 재정의하였다. 또한 ‘직업적 역량’은 ‘진로 · 직업 역량’으로 수정하였다. 또 하나의 문제는 ‘특성’과 ‘역량’에 대한 측정 수준 또는 방법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이다. 일단 각 영역별 특성 및 역량을 진위형 문항으로 측정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되어 모든 문항을 자기 보고식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렇게 개발된 도구는 진정한 의미의 ‘역량’을 측정하는 도구라고는 보기 힘들다. 그러나 진정한 ‘역량’의 측정 가능성은 끊임없는 논란의 대상거리이다. 따라서 정책적이고 실용적인 측면에서의 또 다른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역량에 대한 자기보고결과가 진정한 역량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다는 전제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과학적 판단보다는 정책적 판단의 근거로서의 지표생산이 보다 현실적이라는 것이 본 연구의 또 다른 목표가 된다.

셋째, 각 영역별 하위영역을 선정함에 있어서 2004년도에 확정된 지표영

역의 하위영역은 측정가능성 및 현실적인 도구개발 가능성을 고려하여 일부 수정되었다(<표 I-2>참조). 2004년도에 확정된 지표들(<표 I-1>)은 각 영역별 하부영역들이 너무 포괄적이거나 도구개발 자체가 학문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거나 또는 내용상 중복되는 사항이 많아 수정이 불가피 하였다.

최종 선정된 각 지표영역별 하위영역은 <표 I-2>와 같다.

<표 I -2> 각 지표영역별 하위영역

대 분 류	중 분 류	항목번호 (항목수)
1. 정의적 특성	1-1. 자기개념	1 ~ 4 (4)
	1-2. 행복감	5 ~ 9 (5)
	1-3. 성취동기	10 ~ 14 (5)
2. 인지적 특성	2-1. 창의성	15 ~ 21 (7)
	2-2. 자기주도학습 준비도	22 ~ 26 (5)
	2-3. 문제해결능력	27 ~ 32 (6)
3. 사회적 역량	3-1. 친사회성	33 ~ 37 (5)
	3-2. 사회적신뢰감	38 ~ 42 (5)
	3-3. 사회적기술요인	43 ~ 47 (5)
4. 시민적 역량	4-1. 청소년인권의식	48 ~ 52 (5)
	4-2. 공동체의식	53 ~ 57 (5)
	4-3. 국제화의식	58 ~ 61 (4)
	4-4. 소비 및 경제의식	62 ~ 66 (5)
	4-5. 국가의 책무	67 ~ 70 (4)
5. 진로·직업 역량	5-1. 직업선택의 주도성	71 ~ 73 (3)
	5-2. 직업적 특성이해	74 ~ 76 (3)
	5-3. 직업정보탐색	77 ~ 79 (3)
	5-4. 진로준비행동	80 ~ 82 (3)
	5-5. 진로목표설정	83 (1)
	5-6. 직업 선호도	84 ~ 87 (4)

2003년에서 2005년까지의 연구내용 및 경과를 연도별로 제시하면 <표 I -3>과 같다. 2003년도에는 지표체계 및 항목개발을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하였으며, 2004년도에는 2003년도의 기초연구를 바탕으로 청소년개발지표를 244개의 개별지표로 확정하였다. 2005년에는 2004년도에 확정된 지표 중 결과부문에 해당하는 다섯 개 영역의 측정도구를 개발하였다.

<표 I -3> 연도별 『청소년개발지표 개발연구』의 주요연구내용(2003년~2005년)

연도	연구 내용
2003 (1차)	○ 청소년개발지표 체계 및 지표항목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수행 · 청소년개발 및 청소년개발지표의 개념정립 · 청소년개발지표와 관련된 국내외 사례조사 실시 · 청소년개발지표의 체계구축 및 부문별·영역별 지표(안) 개발 · 청소년개발지표의 정책적 활용방안 제시 ○ 1차년도 연구결과 3개부문·18개 핵심영역에 총 318개의 지표(안) 개발
2004 (2차)	○ 2003년에 수행된 「청소년개발지표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의 후속연구로서, 청소년개발지표(안) 확정 및 지표산출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수행 · 청소년개발의 목표영역 설정 및 관련지표(안) 확정 · 청소년개발지표(1차안) 수정·보완 · 청소년개발지표 관련 원천통계정보 조사 및 선별 · 청소년개발지표의 단계적 발간계획 수립 · 청소년개발지표의 산출체제 구축방안 제시 ○ 총244개의 개별지표로 구성된 청소년지표(최종안)을 확정하였다. ※ 문화관광부의 예산부족으로 용역사업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한국청소년개발원 자체과제로 편성하여 과제를 수행하였다.
2005 (3차)	○ 2004년에 확정된 「한국의 청소년개발지표체계」의 후속연구로서, 청소년개발의 결과부문의 특성 또는 역량을 계량화할 수 있는 측정도구를 개발하고, 정책적으로 의미 있는 항목에 대한 결과표를 제시하였다. · 청소년의 정의적 특성 측정도구 개발 · 청소년의 인지적 특성 측정도구 개발 · 청소년의 사회적 역량 측정도구 개발 · 청소년의 시민적 역량 측정도구 개발 · 청소년의 진로·직업 역량 측정도구 개발

3. 연구방법

1) 문헌연구

각 영역별 개념의 재정의 및 그 하위구성요인의 설정 그리고 조사문항 제작을 위해서 국내외에서 발간된 문헌자료와 도구개발에 관련된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2) 전문가포커스그룹 운영 및 워크숍 개최

청소년의 정의적 특성, 인지적 특성, 사회적 역량, 시민적 역량, 직업적 역량 측정도구의 측정내용 구성과 예비조사지 제작 및 1차 본조사지 제작을 위해서 각 영역별 전문가포커스 그룹을 선정하였다. 먼저 측정도구개발 전문가를 통하여 2004년도 지표 중 결과부문 지표(<표 I-1>)에 대한 내용타당도검증을 실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각 영역별 전문가를 중심으로 영역별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하여 영역별로 하위영역(중분류)을 설정하고, 하위영역별로 1차 문항을 선정하고 다시 영역별 전문가의 내용타당도 검증을 거쳐 2차 문항을 선정하여 조사지 초안을 완성하였다.

3) 조사연구

(1) 예비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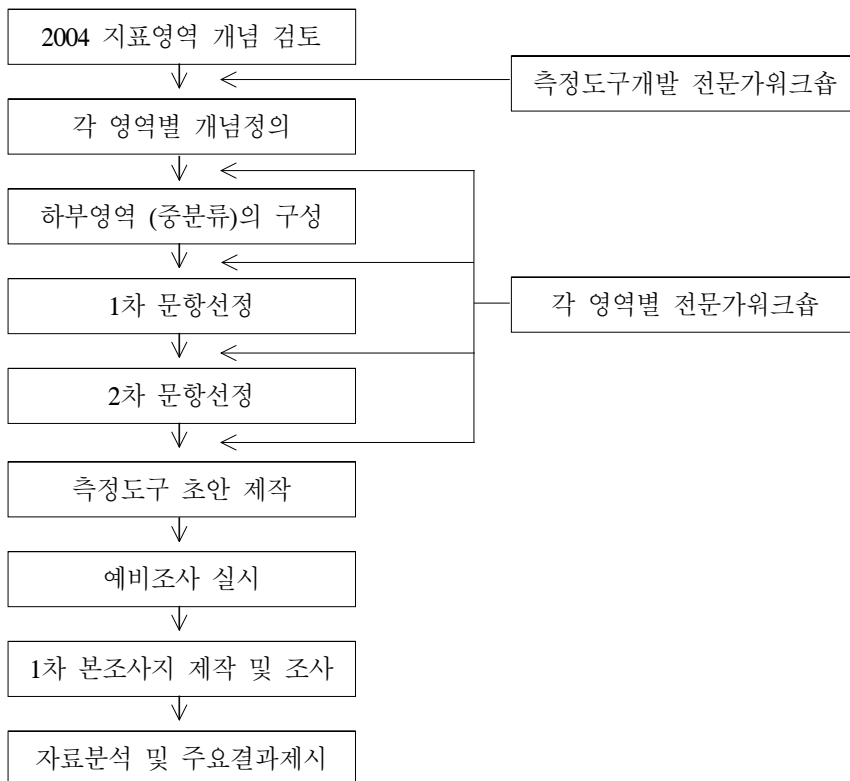
1차 본조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학생들의 문항이해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서울 및 경기도 지역내 인문계 고등학교 2개교, 실업계 고등학교 1개교의 남녀 고등학생 198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 결과 학생들의 문항이해도에 문제가 있는 문항을 수정하여 1차 본조사를 위한 조사지를 완성하였다(부록 1, 2 참조).

(2) 1차 본조사

본 연구에서 실시한 1차 본조사는 개발된 도구에 대한 신뢰도와 타당도 분석을 위해 실시하였으며, 따라서 2006년도의 계속 연구를 위한 예비조사의 성격을 띤다. 그러나 개별항목으로서 정책적 함의를 지니는 항목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서 본조사의 성격을 띠기도 한다. 1차 본조사는 전국의(인문계, 실업계)고등학교 2학년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Ⅲ장 1절 ‘1차 본조사의 개요’참조). 1차 본조사의 결과는 2006년도 도구개발의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1차 본조사의 주요결과는 부록으로 제시하였다.

<그림 1-1> 연구의 흐름도



II. 측정도구의 개발

1. 지표 영역별 개념의 이론적 검토 및 하위영역
2. 지표 영역별 측정도구의 개발

II. 측정도구의 개발

1. 지표 영역별 개념의 이론적 검토 및 하위영역

1) 정의적 특성의 개념 및 하위영역

(1) 정의적 특성의 개념

현실적으로는 명확한 구분이 어렵지만, 인간의 정의적 특성(affective characteristics)은 인지적 특성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인간행동의 사회적, 정서적인 측면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비록 정의적 특성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적 정의와 하위 영역에 대한 견해는 학자들에 따라 조금씩 상이하지만, 일반적으로 자아개념, 동기, 정서, 흥미, 태도, 성격, 가치관 등이 포함된다(이용남 등, 2004). 긍정적인 정의적 특성을 발달시킨 개인은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와 개념을 가지며, 어떤 일을 수행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바탕으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며, 안정적인 정서 상태를 유지하며 자신의 삶과 미래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비교적 높은 만족감 등을 느낀다. 또한 정의적 특성은 학습자로 하여금 학습활동을 하도록 만드는 요인으로 긍정적인 정의적 특성의 발달은 학습의 필수적인 요인이다. 따라서 정의적 특성의 발달은 교육 현장과 일상적인 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많은 국가들이 긍정적인 청소년 개발을 위해 정의적 특성의 발달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Carnegie Council on Adolescent Development(1989)는 청소년 개발의 목표로 인지적 발달, 사회적 발달, 신체적 발달, 정서적 발달, 도덕적 발달을 제시하면서, 정의적 특성의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으며, Pittman & Irby(1996) 역시 청소년 개발의 중요한 목표로 정의적 특성인 개인 유능감, 자기 확신감, 자아정체감 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1988)에서도 사회적 능력, 정서적 능력, 자기 결정감, 자기 효능감, 긍정적 자아정체감, 미래에 대한 확신 등 정의적 특성의 여러 부분을 청소년 개발의 중요한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그리고 Search Institute는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서 발달적 자산(development asset)을 제시하였는데, 성취동기, 자아 존중감, 목적의식, 자신의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관점 등 정의적 특성이 발달적 자산에 포함되어 있다.

(2) 정의적 특성개념의 하위 영역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의적 특성의 영역은 매우 다양하며, 견해에 따라 세부적인 영역에서 차이가 날 수 있다.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정의적 특성과 청소년 개발을 연구하는 많은 연구자들은 자기개념, 정서(행복감), 성취동기 등의 개념을 주요 개념으로 설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의적 특성의 하위 영역으로 ‘자기개념’, ‘정서(행복감)’, ‘성취동기’로 설정하였다.

① 자기개념

자기(self)는 타인과 구별되는 개인의 동일성을 의미하는 개인 자신의 속성이라 할 수 있으며, 개인의 고유한 내적 세계를 이루는 것으로서 개인이 지닌 자기개념에 따라 개인은 독특한 행동양상을 나타낸다. 인간의 행동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기개념을 Rosenberg(1979)는 자기 자신에 대한 조직화된 지각 또는 객체로서의 자신에 대한 개인의 사고와 느낌의 총체성으로 정의하였다.

Hurdock(1972)은 자기개념을 신체적 특성과 조건, 지능, 사회적 지위 등의 환경적 요인과 생물학적 요인의 통합적 구성체로서 산물을 의미하였으며, 자신에 대해 갖는 태도가 긍정적인 사람은 자신감과 자긍심을 갖고 사회적응을 잘 하는 반면, 자기개념이 부정적인 사람은 열등감, 불확실감을 갖게

되며 부적응적인 경향이 높다고 하였다. 또한 Felker(1974)는 자기 개념을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보고 느끼는가에 대한 것으로, 개인이 자신에 대해서 가지는 지각, 태도의 독특한 체계로 개인에 따라 크게 다르다고 하였다. 한편 정원식(1968)은 자기개념의 하위 영역을 신체적 자아, 성격적 자아, 가정적 자아, 사회적 자아 등으로 분류하여, 자기개념이 다면적이며 그 구조가 위계적인 특성을 지녔다고 밝혔다. James(1980)는 자아를 자신의 신체적 특질, 능력, 개인의 기호, 재능 등 그 외 모든 것을 포함하는 인간의 총화라고 정의하였다.

윤희준(1984)은 자기개념의 구조에 입각하여 우리나라 아동을 대상으로 자기개념 측정 요인을 조사한 결과, 자기개념이 다음과 같은 4개의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였다. 첫째, 몸집, 생김새, 외모 등에 관한 신체적 자기개념, 둘째, 부모·친구와의 관계 및 중요 인물과의 관계 자아로서 사회적 자기개념이 있다. 셋째, 정서적 반응과 성격에 관한 지각과 관련된 인성적 자기개념, 넷째, 특정 교과목에 대한 공부와 관련된 학업적 자기개념으로 구분하였다. 이처럼 자기개념이란 용어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 갖는 생각과 감정 그리고 태도의 복합물’이라고 할 수 있다.

자기개념과 밀접한 개념으로 우선 자아존중감을 들 수 있다. Rogers(1961)는 자아존중감으로 감지될 수 있는 자기의 특징, 능력에 대한 지각, 타인 또는 환경과 관계된 자아지각이나 의미로 긍정적·부정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지각된 목표와 이상 등의 요소로 형성된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Rosenberg(1979)에 의하면, 자아존중감이란 자신에 대해 부정적 혹은 긍정적 평가와 관련된 것으로서 자기존경의 정도와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느끼는 정도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그는 자아존중감의 의미를 더욱 분명히 하기 위해 자신감(self-confidence)과 자아존중감을 비교하였다. 즉, 자신감은 장애를 성공적으로 극복할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자신의 의지대로 일을 성공시킬 수 있다고 믿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 자아존중감은 자기수용, 자기존경 그리고 자신이 가치 있다고 느끼는 감정 등을 의미한다고 결론 내렸다.

Coopersmith(1967)는 자아존중감에 대하여 “개인이 자신에 대해 형성하고 유지하는 평가를 뜻하는 것으로, 자신을 수용하거나 거부하는 것을 나타내며 개인이 자기 자신을 능력 있고, 가치 있는 존재로 믿는 정도를 나타낸다”고 정의하였다.

Brown과 Dutton(1991)은 자아존중감을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애착 경향성이라고 정의 내렸으며, 이러한 견해는 자아존중감을 외모, 대인관계 기술 등 자신의 구체적 특성을 종합 평가하여 얻어지는 산출물로 간주하는 인지적 과정과 반대되는 견해로 자존감이 어린 시절 부모 및 형제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며 이것이 자기평가 및 자기존재에 대한 가치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견해와 같은 맥락에서 많은 연구자들이 자존감에 대한 인지적 관점이 아닌 정서적 관점을 지지하고 있다. 따라서 똑똑하고 멋진 외모를 가진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자존감이 더 높지 않으며(Feingold, 1992), 여성, 장애인, 소수인종집단과 같이 사회적으로 불리한 여건에 놓인 사람들의 자존감이 특별히 낮지도 않다(Gray-Little & Hafdahl, 2000). 즉 객관적인 조건은 자존감과 별다른 관련성이 없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개인이 자신을 평가하는 태도로서의 자기개념은 한 개인의 사회적 행동의 역할을 결정하는 중심특성이다. 따라서 긍정적인 자아개념의 형성은 청소년들의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 그리고 자아실현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특성이다. 높은 자아개념을 가진 학생은 학교에서 더 성공적인 것으로 보이며, 학교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 학급에서의 긍정적인 행동, 그리고 학생들 사이에서의 인기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히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일상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대처(Young, Rathge, Mullis & Mullis, 1990)하는 반면, 자아존중감이 낮은 청소년들은 자기 노력의 결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기대하거나 자신의 미래 모습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김진숙 등, 1997). 자아존중감을 갖지 못하거나 왜곡된 자기개념을 갖게 되면

자살행동에 이르게 된다는 연구결과들도 있다(O'Malley & Bachman, 1983).

이러한 자아존중감(self-esteem)은 자신의 자기개념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이다. 만일 사람들이 긍정적 자아개념을 가졌다면, 즉 그들이 ‘자신의 모습을 좋아한다면’ 그들은 높은 자아존중감을 가졌다고 말한다. 따라서 두 용어는 구별되는 의미를 갖고 있기는 하지만, 종종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김아영 외, 2000).

자기개념과 관련되는 또 다른 개념으로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이 있다. 자기효능감이란 “특별한 과제를 위해서 요구되는 행위를 조직하고 실행해나가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판단”으로 정의될 수 있다(Bandura, 1977). Bandura는 자기 효능감에는 세 가지 차원이 있으며, 각 차원에는 강도(strength), 수준(level), 일반성(generality)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강도는 자기효능감의 각 수준을 어느 정도 자신 있게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확신의 정도를 의미하며, 수준은 난이도의 정도에 따라 과제가 나뉘고 개인이 자신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에 대한 판단에 따라 자기효능감 정도가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 일반성은 자신이 경험한 성공경험 혹은 실패경험은 그 상황 이외의 다른 상황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마지막 차원은 자신이 경험한 대상과 상황, 행동이 어느 정도까지 일반화되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다. 따라서 일반적 자기 효능감은 특수한 상황에 대한 예측력보다 다양한 과제에 직면했을 때 그에 대한 수행이나 결과적으로 오는 정서적 반응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는 매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Sherer, 1983).

일반적인 자기효능감과 달리 구체적인 자기효능감은 매우 다양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청소년의 발달과 관련하여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온 분야이다. 학업적 자기효능감(academic self-efficacy)은 Bandura의 사회학습이론의 자기효능감 개념으로부터 발전하였다. 이러한 개념적 근거로부터 발전한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학업적 상황에서 학습자가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조직하고 실행해 나가는 자신의 능력

에 대한 판단이라고 정의된다(Bandura, 1977; 1986). Schuk(1983)는 자기효능감을 애매하고 예상할 수 없는, 때로는 긴장되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구체적인 상황을 다루는 데 요구되는 행동들을 얼마나 잘 조직하고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판단이라고 정의하였고, 자기 효능감은 행위의 선택, 노력의 정도, 노력의 지속성 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따라서 학업적 자기 효능감이 높은 학습자는 도전적인 과제를 선택하고, 주어진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어려운 일이 닥쳐도 끈기 있게 과제를 지속한다(Bandura & Schunk, 1981).

이 외에도 Wood와 Cocke(1987)는 자기효능감이란 자신의 전체적인 수행 능력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초래되는 것으로서 과제상황을 다루기 위해서 요구되는 특별한 행동을 수행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개인적 평가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Silver, Mitchell과 Gist(1995)는 자기효능감이 주어진 상황에서 어떤 과제를 수행해나갈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이상의 견해를 종합해 보면, 자기개념은 인간의 성장과 발달에 매우 중요한 특성으로 자아존중감과 자기통제감, 자기효능감 등의 개념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자기 개념은 자신에 대한 의견, 태도, 가치관, 감정 등 복합적인 지각의 총체라고 정의될 수 있다.

② 행복감

행복에 관한 연구들은 주관적인 삶의 질(subjective quality of life),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 삶에 대한 만족도(life satisfaction) 또는 행복감(happiness) 등의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각 개념들 간에 차이가 존재하는데, 주관적 안녕감은 삶에 대한 전반적 평가로 감정적 측면과 인지적 측면 두 가지의 세부 요인으로 이루어졌으며(Myers & Diener, 1995), 삶에 대한 만족도는 삶에 대한 판단으로서 인지적 측면을 반영한다(Veenhoven, 199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관적인 경험에 기초하는

정서 상태로서 행복감이라는 개념을 살펴보고자 한다.

행복감에 관한 정의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로 제시되어 왔다. 예를 들어, ‘부정적 정서에 대한 긍정적 정서의 우세(Bradburn, 1969)’, ‘자신의 인생을 전체적으로 얼마나 좋게 평가하는지의 정도(Veenhoven, 1984)’ 등이 있다. 먼저 긍정적 감정으로는 ‘행복한’, ‘즐거운’, ‘재미있는’, ‘만족한’ 등이 있으며, 부정적 감정은 ‘분노’, ‘우울’, ‘불안’, ‘욕구좌절’ 등이 있다. 따라서 행복감은 삶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측면을 반영하는 것으로 단순히 부정적인 정서가 없다고 해서 행복의 지표로 여겨지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 긍정적인 정서와 부정적인 정서가 독립적으로 행복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Andrews & Withey, 1976). 먼저 긍정적 정서는 즐거움, 행복 등과 같이 유쾌한 정서나 감정을 말하는 것으로 긍정적인 정서가 높다는 것은 원기가 넘치고 환경과의 유쾌한 상호작용 상태를 의미하며, 긍정적 정서가 낮다는 것은 슬픔과 무기력의 상태를 말한다. 다음으로 부정적 정서란 두려움, 분노와 같은 불쾌한 정서나 감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부정적 정서가 높을수록 불안정하거나 혐오적인 기분 상태를 많이 느끼게 되고, 부정적 정서가 낮을수록 침착하고 평온한 상태를 많이 느끼게 된다.

한편 Larson(1978)은 주관적 행복감이란 문자 그대로 개인이 느끼는 심리적 행복감을 나타내는 것으로, 현 상태에 대한 유쾌함의 일시적인 감정 혹은 의욕, 용기와 같은 개인의 사기(morale)를 모두 포괄하는 상위의 개념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Laing(1985) 역시 행복감은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껴 흐뭇해하는 상태이며, 부정적인 정서를 긍정적인 정서와 비교함으로써 얻은 총체적인 판단(global judgement)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행복감에 관한 연구에서는 필수적으로 행복감을 저해하는 요인이라 할 수 있는 스트레스, 불안, 우울을 극복하고 예방하는 방안도 같이 연구되어야 한다. 특히 정서장애 중 우울과 불안장애는 청소년기에 유병율을 급격히 증가시키며(서국희, 조맹제, 1997), 청소년의 인지, 대인관계, 학업 영역 등 다양한 영역에서 문제를 일으킬 뿐 아니라 청소년 자신에게도 심한 심리

적 고통을 준다. 청소년기 우울 증상은 대인관계 의존성을 증가시키는 동시에 또래관계를 심각하게 제한하여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결과를 가져온다(Hecht, Inderbitzen & Bukowski, 1998). 여기에 사회기술의 경험과 자기효능감 부족이 대인관계 문제와 상호작용하여 우울증상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Lewisohn, Rohde & Seeley, 1998). 특히 Beck(1979)은 우울한 사람들이 상실, 실패, 무능과 관련된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생각과 심상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우울한 정서는 행복감을 저하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우울은 그 정도에 있어서 단순한 슬픔이나 우울한 기분에서부터 지속적인 상실감이나 무력감, 나아가서는 자살기도를 포함하는 정신병적 상태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며, 인간의 정신건강이나 적응에 매우 중요한 지표로 간주되고 있다.

개인의 정서적 상태와 행복감을 저해하는 또 다른 요인으로 스트레스를 들 수 있는데, 스트레스는 일반적으로 개인의 신체적·심리적 상태가 적절한 긴장수준을 이탈하여 불균형 상태에 처한 것을 의미한다(김애순, 윤진, 1997). 특히 최근의 생활사건 스트레스 정도가 우울의 위험도를 예측하는데 매우 중요한 측정치가 된다(Hammen et al., 1985). 청소년기는 여러 가지 변화가 다양한 영역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불안정하며 성취해야 할 과업도 많은 시기이다. 이러한 발달상의 변화와 사회에서 기대하는 많은 요구와 과업은 청소년들에게 스트레스로 작용한다.

또한 Elkind(1984)에 따르면, 청소년기에는 자기 지각이 매우 증가하는데, 증가된 자기지각이 청소년으로 하여금 부정적 측면을 부각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때, 청소년들은 열등감과 수치심을 경험하게 된다. 더욱이 청소년들은 성인들에 비해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할 뿐 아니라 충동적이고 부적응적인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표출할 위험이 높다. 특히 자살을 시도하는 청소년의 대부분이 죽음에 대한 불확실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단지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으로 자살을 선택할 수도 있다. 이러한 스트레스는 개인의 정서적 안정과 행복감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개인의 행복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으로 불안감을 들 수 있다. 불안은 짜증을 동반한 우울 또는 흥분의 상태(Lazarus & Averill, 1972), 스트레스가 주어졌을 때 위협의 지각에 따라 나타나는 상태적·특질적 반응(Spielberger, 1966), 생리적 각성을 동반한 주관적 우려감(Levitt, 1980), 자율신경계의 과각성 상태에서부터 비롯되는 불쾌감 또는 과도한 근심 상태(Landers, 1980) 등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다.

이장호(1982)는 특정한 원인이 없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근심, 걱정이 있는 상태라고 정의하였다. 불안의 정서적 특징으로는 과민성, 고도감, 자신감의 결여 등이라고 할 수 있으며, 불안은 개인을 자연스럽게 못하게 하고, 경계심, 무력감을 표출하도록 유도한다(이은숙, 1996). 즉 불안이란 명확한 원인이 없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근심, 갈등, 초조, 걱정 등으로 특징 지워지는 불쾌한 정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견해를 종합해 볼 때, 행복감이란 즐겁고, 희망적이며, 스트레스와 고민이 적은 상태로서 스스로 느끼는 행복한 정서적 상태라고 할 수 있다.

③ 성취동기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보이는 다양한 행동들은 그들이 지니고 있는 내적 동기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는다. 동기란 행동을 촉발시키고, 행동의 강도를 증감시키며, 그 방향성에 영향을 주는 심리적 기제라 할 수 있다. 다양한 동기가 존재하지만 사회생활과 관련되어서는 흔히 성취동기, 유친동기, 권력동기를 중요한 동기로 제시한다(McCelland, 1961). 그 중 성취동기는 McCelland(1961)에 의해 이론화되면서 많은 연구를 통해 이론의 타당성이 입증되었다. 그는 성취동기는 과제를 보다 잘 수행해내려는 욕구가 주어진 상황에서 자신을 적절히 조절하고 능력을 배양시키는 행위로 나타난다고 보았다. 따라서 성취동기는 우수한 수행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고자 하는 동기를 의미

한다.

McClelland에 의하면 모든 동기와 마찬가지로 성취동기도 과거 성취활동에서 경험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감정과 연결되어 있는 일정한 단서들에 의해서 발생하는 강한 정서적 연합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성취동기 수준이 높은 사람에게는 성취상황이 자연적 유인이나 긍정적인 감정을 일으키는 학습된 단서로 기능한다. 또한 비교적 안정된 개인 성향인 성취동기를 학습에 따른 결과로 보기 때문에 학습, 기억, 정서, 사회적 지원 등의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성취동기 수준이 변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McClelland와 Pilon(1983)에 의하면, 높은 성취동기는 아동의 가족과 문화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일 가정에서 성취감과 경쟁심이 격려되고 부모가 아동의 실패에 화를 내지 않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한다면 아동은 좀 더 성취에 대해 높은 욕구를 발달시킨다.

또한 Morris(1988)에 따르면, 훌륭한 성취에 대해 인정받는 방법을 배우고, 또 그들의 행동이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배운 아동들은 남보다 탁월해지려는 욕구를 가지고 성장하기 쉽다. McClelland(1985)는 성취동기가 높은 사람들은 과업 지향적이고 적절한 모험성과 성취가능성에 대한 자신감, 자기 책임감, 행동 결과에 대한 지식을 중요시하며 미래 지향적 행동특성을 보인다고 하였다. 이뿐 아니라 성취동기는 개인으로 하여금 그의 능력에 비추어 도전할 가치가 있는 일을 탐색하게 하며, 그러한 일들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여 자신감을 갖게 한다고 하였다.

Murray(1983)는 성취욕구의 개념을 “어려운 일을 달성하려고 한다. 특정 대상을 가능한 한 신속하고 독립적으로 숙달하고 조작하려 한다. 자신을 개선하고 탁월하게 한다”로 정의하였다. 또한 박용현(1974)은 성취동기는 “어떤 훌륭하고 어려운 일을 열심히 그리고 될 수 있는 대로 신속히 또는 지속적으로 수행하려는 의욕”이라고 정의하였다.

이 밖에도 정원식(1976)에 의하면, 성취동기는 직접적으로 관찰할 수 없는 복잡한 심리적 특성으로 인간 행동을 좀 더 효율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해 볼 때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을 갖춘 동기라고 주장하였다. 첫째, 성취동기는 미리 예견했던 초월기준과 실제적인 수행간의 차이에 의해서 유발되는 감정과 관련된다. 둘째, 그 감정이 다양한 단서와 연합하게 된다. 셋째, 이 두 가지 조건을 많이 경험한 개인은 높은 성취동기를 갖게 된다.

동기를 설명함에 있어서 욕구, 흥미, 호기심, 즐거움과 같은 개인적 요인들에 의존하는 경우도 있고, 보상, 사회적 압력, 벌과 같은 환경적 요인들에 의존하는 경우도 있다. 전자를 내재적 동기라 하며, 일반적으로 내재적으로 동기화되었을 때는 특정 행동을 하게 만드는 외적 보상이나 처벌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활동 그 자체가 보상적이기 때문에 과제 그 자체 혹은 과제가 가져다주는 성취감을 즐긴다. 이와 반대로 보상을 받고, 벌을 피하고, 혹은 과제 그 자체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어떤 다른 이유 때문에 무엇인가를 하기도 하는데, 이 때 우리는 외재적으로 동기가 유발된 것이라고 한다. 이 경우 활동 그 자체엔 아무런 관심이 없고, 오로지 그것이 가져다 줄 결과에만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Deci(1971)는 내재적 동기는 어떤 행동을 수행함으로써 갖게 되는 만족감이나 기쁨과 같은 개인적 요인들에서 유래하는 동기, 즉 자기결정성(self-determination)이나 자율성(autonomy)이 있는 상태에서 수행되는 행동들과 관련이 있으며, 외재적 동기는 보상, 벌 등과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발생하며 자기결정성과 자율성의 부재상태에서 수행되는 행동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구체적으로 특정행동의 의도를 생성하고, 성취유형 활동에 접근, 참여하고 반응하는 방식들로 표현되는 신념, 감정의 총체적 통합양식으로 정의되는 성취목표(Weiner, 1992)가 있다. 따라서 학습장면에서 목표지향성의 개념은 학습자들이 학습활동에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참여해야 할지를 결정하는 행동의 의지체계라고 할 수 있다(Meece, Bleumenfeld & Hoyle, 1988). Atkinson(1964)은 학습동기의 가장 중요한 속성을 목표지향

적인 행동이라고 하여 학습자들이 특정 장면에서 어떤 목표를 갖고 있는가를 감안하는 것이 학습과정을 이해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지적하였다. 학습 목표지향성(learning goal orientation)이란 학습활동에 있어서 배우는 것 자체에 가치를 두고 이를 목표로 삼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학습 목표지향성의 핵심은 노력과 결과가 함께 한다는 신념과 정서로서, 시간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성취 지향적 행동을 지속시키는 것이 바로 그 이유이다. 즉,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학습목표 지향적인 개인은 난관의 원인을 능력보다는 노력에 귀인하며 노력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한다(Ames, 1992).

따라서 학습목표 지향적인 개인은 실패나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자신의 능력이나 지식,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에 긍정적인 목적을 둔다. 그러므로 타인의 시선이나 평가보다는 실제로 자신의 능력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전략을 구사하게 되고 실제로 좋은 수행을 이루게 된다. 동일한 맥락으로 성취목표지향성이란 성취활동에 있어서 성취하는 것 자체에 가치를 두고 이를 목표로 삼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이러한 견해를 종합해 볼 때, 성취동기는 성취목표 지향성, 학업목표, 사회적 동기 등의 개념을 포괄하는 것으로, 개인의 내부적 혹은 상황적 조건에 따라 발생하는 성취욕구의 충족과 목표 추구활동에 원동력이 되며, 도전적이고 어려운 과제를 성취함으로써 만족을 얻으려는 개인의 성향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2) 인지적 특성의 개념 및 하위영역

청소년기에는 급격한 신체발달과 더불어 지적·인지적 영역에서도 현저한 변화가 일어난다. 청소년기에 일어나는 변화 중 가장 두드러지게 보이는 것은 신체의 변화이다. 따라서 이시기에 나타나는 신체·생리적인 변화는 가족이나 주위사람들에게 아동이 성인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주는 지표이다. 이러한 신체변화와 더불어, 청소년기에는 사고하고 추리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등의 지적인 능력도 현저히 변화하고 발달하는데 지적능력

의 변화는 신체적인 변화만큼 외형적으로 눈에 잘 띄지는 않지만 매우 중요한 청소년기의 특성 중 하나이다.

청소년기에 현저한 성장을 보이는 인지발달의 특징은 양적인 면에서 뿐만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도 증가를 보인다. 양적인 증가란 아동기에 비해 훨씬 쉽게, 빨리, 효율적으로 지적과업을 성취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질적인 증가란 인지과정에서의 변화, 즉 추상적인 사고, 가설·연역적 사고, 은유의 이해 등을 말한다. 다시 말해 청소년들은 아동과는 질적으로 상이한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

인지발달(cognitive development)이란 사고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신 과정이 점진적·순차적으로 보다 복잡해지고 세련되어지는 변화를 가리킨다. 지적 발달(intelligent development)의 개념은 지능의 발달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지발달에 포함되는 한정적 의미로 볼 수 있다. 따라서 Carnegie Council on Adolescent Development(1989)에서는 지능발달보다는 인지발달을 청소년기의 핵심적인 발달과업으로 설정하고 있다. 즉, 성공적인 성인으로서의 삶을 위해서는 청소년기에 지능발달 보다는 지식을 확장시키고, 비판적 사고능력을 향상시키는 인지과정의 발달이 보다 강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개발지표에서는 지적능력 보다는 인지과정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지표를 개발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 할 것이다.

인지적 측면에서의 발달은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발달적 특성일 뿐만 아니라, 청소년기에 성취해야 발달과업 중 하나로 지적되어 왔다. 따라서 인지적 특성은 청소년개발지표의 결과부문에서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청소년개발이 성공적인 성인으로서의 삶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능력들을 발달시키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정의할 때, 인지발달과 관련된 지표는 소홀히 다루어서는 안 될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다.

(1) 인지적 특성의 개념

인지적 특성은 일반적으로 “인지적 능력, 재능, 정신적 기술의 복합체”로

정의되지만(허혜경, 2001), 인지적 특성이 어떤 요소들로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다. 예컨대, 지능이란 추상적으로 사고하는 능력과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으로 알려져 왔지만, 지능에 관한 합의된 단일정의는 존재하지 않으며, 이론가마다 지능의 핵심측면이 무엇인지에 관해서로 다른 주장이 제시되고 있다. 청소년기의 인지적 특성에 관한 대표적인 관점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전통적으로 청소년기의 인지발달은 크게 두 가지 입장에서 논의되어 왔다. 하나는 인지발달의 질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입장이고, 다른 하나는 인지능력의 양적인 발달에 중점을 두는 심리측정적인 접근(psychometric approach)이다. 우선, 질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청소년기에 사고(생각)의 폭이 넓어지고 깊어져 논리적이고 추상적인 사고가 가능해 진다는 점을 강조한다. Piaget에 의하면 청소년기 이후 성인기까지(12세 이후)를 형식적 조작기(formal operational period)라고 했는데 청소년들은 이전의 아동기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세계에 대한 개념을 형성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질적 접근은 아동기 사고와 청소년기 사고의 질적인 차이점에 초점을 맞추어서 청소년기 사고가 아동기의 사고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설명할 수 있게 해주지만, 청소년들 간의 인지적 특성의 개인차는 알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둘째, 양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심리측정적 접근에서는 인간의 인지능력을 “지능”이라고 표현함으로써 보다 잘 묘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인간의 지능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단일차원의 일반적 학습능력으로 안정적인 개인의 특성이라고 보고 있다. 지능은 하나의 단일차원에서 양화하여 측정할 수 있으며, 지능검사를 통하여 지능에서의 개인차를 확인할 수 있고, 이러한 지능에서의 개인차는 학업성취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준거가 된다고 보고 있다. 또한 Spearman, Thurstone, Guilford 등은 지능구조이론을 통해 지능의 구성요인이 하나의 단일차원에서 규정되는 일반지능과 일반지능을 구성하는 여러 종류의 인자들로 세분화될 수 있음을 전제하고, 위계적 구조로 연결된 세분화된 지능의 인자들을 밝히고 있다(하대현, 1996). 최근 들어 전

통적 지능이론의 대안으로서 Sternberg의 3원이론, Gardner의 다중지능이론 등 신지능이론이 등장하면서 질적으로 다른 다차원적 속성의 지능영역이 존재한다고 주장되고 있다.

최근에는 인지발달 연구 전반에 정보처리적 접근(information processing approach)이 큰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서 청소년기의 인지적인 기능과 능력을 새로운 관점에서 설명하고 연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접근은 Piaget 이론에 입각한 질적인 접근이나 심리측정적인 접근과는 달리, 지적활동의 결과 자체보다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기까지의 정보처리과정에 관심을 갖고 이 과정을 기술하고 분석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즉, 지적능력이란 정보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처리하는지에 대한 능력이라고 본다(한상철외, 2004). 인간이 정보를 받아들이고 이에 대한 반응을 보이는 과정은 마치 컴퓨터와 같아서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수많은 정보들을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조직·저장하고, 행동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친다는 것이다. 또한 청소년기에는 아동기에 비해 주의(attention)능력, 기억능력, 정보의 체계화전략, 정보처리속도 등에 있어서 능력이 크게 향상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질적 접근방식은 아동기 사고와 청소년기 사고의 질적인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설명해준다. 그러나 청소년들 간의 개인차를 알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어 청소년개발의 인지적 특성 지표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심리측정적 접근방식은 지적능력의 발달을 지능지수의 개념으로 수량화하고 이를 비교함으로써 개인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지만, 지능지수가 교육적 개입(educational intervention)을 통한 변화의 여지가 적기 때문에 지능지수를 청소년개발에 있어서 인지적 특성의 지표로 삼기에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청소년개발의 결과부문에 해당하는 인지적 특성은 현상기술적 개념정의 방식보다 목표지향적 관점에 기초하여 조작적으로 개념을 정의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청소년개발의 개념에는 성공적인 성인으로서의 삶을 위해 필요한 역량개발이라는 분명한 목적이 전제되어 있으며, 청소년개발의 하위영역인 인지적 특성에서의 관심영역은 사회적·환경적 특성에 따라 다르

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청소년개발과 관련하여 청소년기에 개발되어야 할 인지적 특성에 대한 논의들을 살펴보면, Carnegie Council on Adolescent Development(1989)는 생산적이고 책임감 있는 성인으로서의 역할수행을 위해 청소년기에 발달되어야 할 인지적 측면에서의 핵심적인 발달과업으로서 지식의 확장, 비판적 사고와 추리능력 발달, 학업성취를 통한 능력향상 등을 제시하고 있다. Center for Youth Development and Policy Research(1991)은 지식, 추리능력, 창의성을 강조하면서 광범위한 지식습득, 문제해결능력, 창의력, 평생학습에 대한 관심을 제시하고 있다. Huebner(2003)는 인지적 역량을 “형식 및 비형식교육기관에서 학습하고, 학교졸업에 필요한 기초지식을 습득하며, 비판적 사고기술, 창의력, 문제해결기술, 자기표현기술 등을 활용하고,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의 1차년도 보고서(2004)에서는 청소년개발과 관련된 기존의 선행연구와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인지적 능력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를 토대로 인지적 역량을 사고력, 기획력, 문제해결능력 등 3가지로 유형화한 바 있다. 2차년도 연구인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인지적 특성을 인지적 측면에서 청소년들이 갖추어야 할 능력, 재능, 태도의 복합체로 정의하고, 이 개념이 포괄하고 있는 다차원적인 영역 중에서 창의성, 문제해결능력, 자기주도학습 준비도를 연구대상으로 선택하였다. 여기에서 창의성은 창의적 사고력을 대표하는 것으로서 능력검사의 한계를 고려하여 성향검사로 대체하였다. 또한 문제해결능력은 정보처리적 접근에서 강조되는 인지발달의 특성 즉, 청소년들이 과제가 주어졌을 경우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해결하는지를 나타낼 수 있는 핵심능력이기 때문에 선정되었다. 또한, 자기주도학습준비도는 평생학습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평생에 걸쳐 자신에게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학습하고, 새로운 지식을 창출할 수 있는 평생학습자로서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다.

(2) 인지적 특성 개념의 하위영역

전술한 바와 같이, 청소년들의 인지적 특성은 청소년들이 인지적 측면에서 갖추어야 할 능력, 재능, 태도로서 다차원적이고 복합적인 개념이라는 점을 밝혔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는 인지적 특성의 다양한 범주 중에서 창의성, 문제해결능력, 자기주도학습준비도를 핵심능력으로 선택하였다. 각 핵심능력의 개념과 하위구성요인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① 창의성

창의성이란 창의적 사고기능이 최종적으로 인간의 성취를 위해 작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에게 요구되는 정의적 또는 태도적 특성을 말한다(윤명희외, 2003). Guilford(1959)는 창의성에 대한 정의를 “새롭고 신기한 것을 낳는 힘”이라고 보고, 지능구조 모형에서의 발산적 사고(*divergent thinking*)와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한상철 외, 2004:재인용). 이러한 창의적 성향의 연구는 연구자가 가진 이론적 배경에 따라 상이한 관점을 취하고 있다.

창의적 성향 구성요인을 제시한 학자들의 견해를 살펴보면, Barron과 Harrinton(1981)은 창의적인 사람들의 특성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한 후에 창의적인 성취를 한 사람들은 에너지가 많고, 관심분야가 폭넓으며, 복잡한 것에 매력을 느끼고, 반대되거나 모순되는 특성을 조절하는 능력, 창의적인 자아에 대한 확고한 신념 등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Woodman과 Schoefeldt(1989)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놀기를 좋아함’, ‘술선수범’, ‘독립심’, ‘자유로운 사상’, ‘물두의 즐거움’, ‘불일치’, ‘기꺼이 어려운 일을 시도함’, ‘세부적인 것에 대한 관심’ 등이 창의적인 아동들의 특성이라고 보았다. Perkins(1981)은 창의적인 사람들의 전기를 분석한 결과 복잡성이나 ‘애매모호한 것을 견뎌내는 성격’, ‘문제를 발견하는 능력’, ‘문제를 새로운 각도로 재조명할 수 있는 정신적인 활동능력’, ‘모험을 기꺼이 함’, ‘객관적인 성격’, ‘창의적인 노력을 밀어주는 내재적 동기유발’ 등 6가지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견해를 내세웠다.

창의성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창의적인 사람들에게는 몇 가

지 공통적인 성향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Barron, 1988; MacKinnon, 1962; Perkins, 1988; Sternberg, 1988; Torrance, 1988, 윤명희외, 2003; 최인숙, 1998; 하주현, 2001).

첫째, 창의적인 사람들은 의식적이고 자신의 창의성을 알고 있으며 어떤 일을 창의적으로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 또한 창의적인 사람들이 되고 싶어 한다. 둘째, 자신감이 높고, 독립적이며, 창의적인 모험을 즐긴다. 셋째, 대단히 정력적이며, 자발적이고, 열정적이다. 이들은 자신의 아이디어에 완전히 몰입해서 그 일을 끝마칠 때까지 중단하지 않는다. 넷째, 어린아이와 같은 호기심과 궁금증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세상을 이해하고 싶은 강한 호기심과 궁금증을 가지고 있다. 다섯째,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고 환상적이며 쾌활하다. 여섯째, 자신의 역할과 인생의 목적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한다. 이상주의와 개인주의적 성향을 강하게 가지고 있어서 보수집단을 심하게 비판한다. 일곱째, 개인적인 시간을 갖고자 하거나 고독에 대한 욕구가 있다. 여덟째, 예술적 감각이나 예술에 대한 관심이 높다. 아홉째, 복잡한 것을 선호하고, 신비로운 것에 매력을 느낀다. 열 번째, 문제해결 과정에서 생기는 아이디어는 계속적으로 변형, 추측, 개선 등을 통한 통찰로부터 나온다. 열한 번째, 아동기에는 반성적인 사고경향으로 인해 과제수행이나 의사결정에 매우 조심스러운 반면 청소년기가 되면, 자신감과 모험심을 갖게 되어 충동적으로 변한다. 열두 번째, 창의적인 사람들은 더 지각적이고, 사물의 관계를 직시하며, 정신적인 비약을 즐기는 경향이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기초로 할 때, 창의적 성향의 구인요인에는 민감성, 개방성, 인내심, 독립심, 자기확신, 진취성, 탐구심, 독특함, 상상력, 집착성, 수용성, 직관, 유머감각, 융통성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② 문제해결능력

문제해결이란 문제해결자의 현재상태와 도달해야 하는 목표상태의 차이를 인식하고, 그 차이를 유발시키는 장애물을 해소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그리고 문제해결능력이란 이러한 차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소시킬 수 있는

지적이며, 창의적인 능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한국교육개발원, 2003).

문제는 개인 혹은 집단이 원하는 것과 실제로 일어나는 것 사이에 차이가 있을 때 발생된다(함병수 외, 2004). 즉, 현재상태와 목표간의 차이가 인식될 때 문제가 지각된다. 그리고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해결하고자 하는 목표에 적합하도록 현재의 상태를 바꾸어 가는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현재의 상태를 바꾸는 과정에서 장애물이 있을 수 있고, 장애물을 해결하기 어려운 것일수록 목표에 도달하기 어려워진다. 따라서 즉각적으로 목표에 도달할 수 없을 때에는 주어진 모든 기회를 활용하고, 도전을 극복하는 문제해결의 노력이 요구된다.

합리적 의사결정과정을 통한 문제해결은 가정, 학교, 사회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필수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생활기술(life skill)이다. 특히, 미래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어려워지고 다변화되어지고 있는 사회에서 올바른 판단 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은 개인의 성공과 운명을 좌우하는 핵심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기에 문제해결에 필요한 지식, 정보, 기술, 태도 등과 같은 기능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문제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단기적인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기본적인 마인드 형성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문제해결에 대한 시각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한국교육개발원, 2003). 하나는 문제해결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는 문제를 여러 구성요소별로 세분화하고, 각 요소별로 문제점을 규명하고, 특정기준과 이들 요소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문제발생의 원인을 찾는다. 따라서 문제해결의 과정이 논리적인 일련의 단계로 구성된다. 또 다른 시각은 문제해결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문제해결과정에 개입되는 창의성과 직관, 상상력의 작용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많은 교육학자나 사회과학자, 경영관리분야의 연구자들은 문제해결과 창의성간의 연관성을 강조하고 있다(Higgins, 1994). 이들은 문제해결과정에서 창의성의 역할을 강조하고, 창의적 문제해결의 과정과 이 과정을 구성하는 영향요인들을 묘사하는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문제

해결의 일반적 과정이 창의적 과정과 유사하게 이루어진다는 이들의 주장은 학자들간에 공유되고 있는 추세이다.

〈표 II-1〉 문제해결의 일반적 과정

문제해결과정	내 용
문제상황 수용	특별한 문제의 상황이나 목표를 해결하기 위한 충분한 열정과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활용을 유지
문제상황 분석	문제상황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구체적이고 보편적인 정보수집, 문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료화
문제의 원인발견	중요한 문제와 이슈를 확인하고, 문제의 주요 원인이나 본질을 결정
해결방안 탐색	문제의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해결방안과 방법을 생각
최적의 해결방안 선택	선택가능한 아이디어들 중에서 가장 효율적이면서 효과적인 방법을 비교하여 결정하고 선택
선택방안의 실천	선택한 방안을 실행할 수 있는 행동목록을 작성하고, 일정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실천
행동평가	수행한 행동의 결과를 목표와 비교하여 수정 보완

자료: 한국교육개발원(2003). 국가수준의 생애능력표준 설정 및 학습체질 관리방안 연구(II). p.45.

③ 자기주도학습 준비도

자기주도학습준비도란 청소년들이 자기주도학습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준비상태나 정도를 의미한다. 자기주도학습은 타인주도학습과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교사 혹은 타인의 도움이 있건 없건 간에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에 대해 주도권을 갖고서 자신의 학습요구를 진단하고, 학습목표를 설정하고, 학습에 필요한 물적·인적자원을 탐색하고, 적절한 학습전략을 선택·적용하고, 학습결과를 평가하는 학습형태를 말한다(Guglielmino & Klatt, 1994). 즉, 자기주도학습은 학습자 스스로 자신의 학습에 주인이 되어 학습의 책임을 스스로 지며 수행해 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자기주도학습과 관련된 용어로는 자기수업(self-instruction), 자기교육(self-education), 자기교수(self-teaching), 독학(independent learning), 자기공부(self-study), 개별연구(individual study), 자율학습(autonomous learning), 자기계획학습(self-planned learning) 등이 있다. 그러나, 이들 용어들은 주로 타인의

지원없이 혼자 고립화된 상태에서 학습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반면, 자기주도학습은 학습을 고립화하지 않고 교사·지도자·자원인사·교육기관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자원을 이용하여 학습자 자신이 자기의 학습전체의 계획(planning), 통제(controlling) 그리고 감독(supervising)에 있어서 일차적인 책임을 지는 학습형태를 말한다.

자기주도학습의 핵심은 학습의 자기주도성(self-directedness)과 학습자의 자기관리(self-management)에 있다. 이것은 다음의 세 가지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자기의 학습목적 및 수단에 대한 타자의 통제로부터의 “독립성”, 둘째, 타자의 원조 여부에 상관없이 자신이 주도권을 가지고 자기의 학습요구를 진단하고, 학습목표를 공식화하고, 학습자원을 동일시하고, 학습전략을 선택·실시하고, 학습성과를 평가하는 학습과정 전체에 있어서의 “주도성”, 셋째, 학습의 의미 이해와 학습을 통해서 실현되는 가치와 관련되는 학습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율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학습계획과 방법에 있어서의 자기주도성과 자기결정성의 특징으로 인해 우리나라에서는 자기관리적 학습, 자기결정적 학습 등과 같은 용어로 번역되어 사용되고 있다.

자율적인 학습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제약하는 외적 구속과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며, 합리적인 사고능력과 자신이 결정할 생각을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 의지력을 갖추어야만 한다. Candy(1991)는 이러한 세 가지 전제조건을 확대하여, 자율적인 학습자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으로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 전제조건을 제시하였다. 첫째, 자신의 학습목적과 학습계획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자신의 생각과 행동에 대한 선택의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다양한 대안들에 대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이성적 사고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넷째, 자신이 선택한 행위를 두려움없이 의연하게 실행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다섯째, 학습과정에서 나타나는 도전과 좌절, 참여와 중도포기 등의 일련의 행위들을 통제할 수 있는 자기억제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여섯째, 자기자신을 자율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자아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여섯 가지 특징들은 학습상황에서 이상적인 자율성의 특징들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모두 아니면 전무(all or nothing)”가 아닌 정도의 문제이며, 학습자 개인의 특성과 학습상황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 Guglielmino(1977)에 따르면, 자기주도학습도는 ①학습기회에 대한 개방성, ②효율적인 학습자라는 자아개념, ③학습에 대한 주도성, ④자신의 학습에 대한 책임감, ⑤학습에 대한 애정과 열정, ⑥미래지향성, ⑦창의성, ⑧기본학습기술과 문제해결개술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 등 8개의 하위요인들로 구성된다.

3) 사회적 역량의 개념 및 하위영역

사회적 역량은 청소년기에 성취해야 할 다양한 발달과업들 중에서 청소년기의 발달적 특징이 가장 잘 반영된 과업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기는 아동기를 떠나 성인기로 이행하는 시기로써 청소년들은 가정이라는 제한된 사회적 범주에서 벗어나 사회라는 훨씬 더 넓고 복잡한 세계로 적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사회는 가정과 본질적으로 그 성격을 달리하는 사회적 조직체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사회적 역량은 학교교육과정이나 청소년관련 정책과 같은 공공의 개입과 노력을 통하여 특별히 육성되어야 할 중요한 성취과제인 것이다. 특히 한국의 경우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학생 청소년들로 이들은 일반사회의 구성원이 되기에 앞서 학교교육과정이라는 사회화 과정을 통하여 사회구성원으로써 갖추어야 할 사회적 신뢰감을 형성하고, 사회규범의식을 내면화하고, 대인관계역량을 갖추는 것이 요구된다.

(1) 사회적 역량개념

‘사회적 역량’은 청소년 개발의 결과부문에 해당되는 중요한 청소년 정책의 목표 영역으로 이에 대한 개념정의는 현상 기술적 개념정의 방식보다는 목표 지향적(goal-oriented) 관점을 취할 필요가 있다. 현상을 기술하고 설명하려는 과학적 연구들은 어떤 현상을 구성하는 속성들을 있는 그대로 의미

있는 방식으로 분류하는 데 목적을 둔 현상 기술적 개념 정의 방식을 취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현상을 기술하고 설명하여 이론을 구축할 경우에는 적합하겠지만, 본 연구에서 의도하는 바와 같이 청소년 개발의 목표영역을 정의할 때에는 반드시 적합하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본 연구에서와 같이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청소년을 개발하려는 경우에는 각 정책적 목표영역이 추구하고 의도하는 방식으로 개념이 규정되는 목표 지향적 개념화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목표 지향적 개념화의 방식은 기술적(descriptive)이기보다는 규정적(prescriptive)일 필요가 있다.

청소년 개발 지표의 결과 부문 영역에 해당되는 사회적 역량은 청소년개발 지표를 개발하기 위한 지난 일련의 예비 연구들(문화관광부, 2003; 한국청소년개발원, 2004)에서 ‘청소년의 사회 적응력’을 측정할 목적으로 설정된 결과지표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응력이라는 목표 지향적 관점에서 청소년들의 사회적 역량의 요인들을 구안하고, 그 요인들을 대표할 수 있는 지표들을 개발 선정하는 방식을 채택하고자 한다. 청소년의 사회적 역량은 성인기에 진입하기에 앞서 청소년들의 사회적응과 관련하여 청소년들이 갖추어야할 능력, 태도 및 규범 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다차원적 개념으로 규정될 필요가 있다.

우선 청소년의 ‘사회적 역량’은 능력적 차원에서 고려될 수 있다. 사회에 적응하는 속도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다. 흔히 사교성(sociability)이나 사회적 기술(social skills)은 사회적 적응력을 가늠하는 능력요소로 볼 수 있다. 흔히 친구들을 잘 사귀며, 그 관계를 잘 유지하는 능력을 갖춘 청소년들을 흔히 사교성이 좋다고 말하는 것처럼 대인관계 능력은 사회적 적응력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인식되어 왔다.

특히 심리학자들은 이와 같은 사회적 능력에서의 개인차에 많은 관심을 가져 왔는데, Buss와 Plomin(1984)에 의하면, 사교성(sociability)은 “혼자 있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려는 성향”으로 이는 유전적으로 결정되는 일종의 기질적 특성요인으로 보았다. 실제로 그들은 사교성이 유전적 성향이

강한 성격적 특징 요인임을 확인한 바 있다.

한편 사교성이 선천적 기질 특성요인이라면, 사회적 기술(social skills)은 훈련 가능한 그리고 사회화 과정을 통하여 개발되어야 할 행동적 특징에 해당된다. 따라서 청소년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청소년 개발 지표는 개인의 심리적 특성요인에 해당하는 사교성보다는 훈련가능하고 개발 가능한 행동적 특성인 사회적 기술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사회적 기술이 사회적 적응의 필수적인 개인적 능력요소이지만, 이러한 능력 요소만으로 청소년의 사회적 역량이 갖추어 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회적 기술은 가치중립적인 집단 적응 능력일 뿐이다. 따라서 그 능력이 어떠한 태도에서 그리고 어떠한 방향으로 발휘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매우 달라질 수 있다. 예컨대, 그 사회적 기술이 부정적인 사회적 태도에서 강화되고, 반사회적인 목표로 발휘될 때에는 오히려 사회적응에 많은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청소년들의 사회적 기술이 반사회적 신념과 함께 반사회적 집단에서 발휘될 때 그것은 사회적 역량으로 발휘되지 않고 비행집단에 대한 동조 나 참여가능성을 높이고, 그 결과 반사회적 행동이나 비행이라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청소년의 사회적 역량을 확인함에 있어서 심리학자들이 강조하는 개인의 사교성과 사회적 기능과 같은 가치중립적인 개인적 역량만을 고려하기보다는 다음과 같은 청소년의 사회적응과 관련된 태도 및 규범적 요소를 함께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청소년들은 사회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사회적 신뢰는 청소년들이 사회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확인할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로 볼 수 있다. 청소년의 현실 사회 참여의식이 강조되고, 또한 그것이 중요한 청소년 정책의 목표이기는 하지만, 아직도 청소년들을 사회에 적응하여야 할 예비구성원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청소년들이 사회에 진입하기에 앞서서 사회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 즉, 사회를 어느 정도 신뢰하고 있느냐를 확인하는 것은 그들이 앞으로 사회에 적응하려는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예견하게 해주는 필수적인 지표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회

적 신뢰는 사회에 적응하기에 앞서 청소년들이 성취해야 할 중요한 과업중의 하나이다.

청소년들의 사회적 신뢰도는 청소년들의 개인적 신뢰성향에 영향을 받기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신뢰의 대상인 사회가 어떻게 청소년들에게 지각되었느냐가 결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여 사회에 대한 청소년의 신뢰도는 결국 청소년에게 투영된 사회상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지각하는 사회는 곧 기성세대가 주도하는 사회라고 할 수 있으므로 사회적 신뢰감은 기성세대가 주도하여 꾸려가는 사회에 대한 신뢰감이라고도 좁혀서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지표는 청소년의 사회적 신뢰도라는 성취 결과 지표이자 역으로 청소년을 적응해야할 사회적 조건을 진단하는 지표로서도 의의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역량에 포함되어야 할 규범적 요소란 사회화된 결과로써 모든 사회구성원이 지향해야 할 도덕, 가치, 규범 등을 내면화한 청소년의 친 사회적(pro-social)성향과 행동을 의미한다. 청소년 개발 지표의 사회적 역량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사회적 적응력은 소극적인 의미의 집단 적응력이라는 개인의 능력적 요소와 더불어 친사회성이라는 규범성을 동시에 지향하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것이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여 가치중립적인 대인관계 능력이나 개인의 사회 적응능력을 포함하는 사회적 기술은 친사회적인 방향에서 발휘되고 추구되도록 조치되어야 한다. 따라서 사회적 역량에 친사회적 성향을 부여하게 되면, 청소년의 사회적 역량은 곧 친사회적 규범의식에 결맞는 방향으로 사회적 기술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게 된다.

요컨대, 본 연구에서 의도하는 청소년의 「사회적 역량」은 “청소년들이 사회적 신뢰감을 형성하고, 친사회적 성향으로 사회적 적응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고 이를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지향하는 개념이다.

(2) 사회성 역량 개념의 하위영역

앞에서 청소년의 사회적 역량을 능력, 태도 및 규범의 3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할 다차원적인 복합적 개념이라는 점을 밝혔다. 따라서 청소년의 사회적 역량을 확인하기 위한 지표 역시 사회적 역량의 3차원적 개념을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3차원의 사회적 역량을 하위 요인으로 설정하였다. ‘사회적 기술(social skills)’은 사회적 역량의 능력적 차원을, ‘사회적 신뢰감(social trust)’은 태도적 차원을, 그리고 ‘친사회적 행동(pro-social behaviors)’은 규범적 차원을 반영하도록 구안되었다. 각 요인의 개념과 각 요인이 청소년의 사회적 역량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가지는 의의를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① 사회적 기술

청소년이 사회에 적응하여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개인적 능력뿐만 아니라 자기 주변의 타인들과의 원활한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사회적 상호작용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사회적 네트워크가 강화되고, 또한 그것에 가치를 두는 현대사회에서는 독불장군이나 팔방 미인식의 개인적 능력만으로는 사회적 성공을 보장할 수 없다. 사회적 상황에서의 원만한 대인관계는 타인을 잘 이해하고, 그들의 요구를 잘 파악하며, 그것들에 기초하여 협조하고 협력할 수 있는 능력을 필요로 할 것이다. 또한 보다 적극적 차원에서 자신을 포함하여 타인들간의 사회적 관계를 활성화하고 원만하게 하는 리더십도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의 사회적 기술(social skills)이란 바로 이러한 모든 능력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는 지금까지의 사회적 기술과 관련된 다양한 학술적 개념들에 기초한 것이다.

Combs와 Slaby(1977)는 사회적 기술(social skills)을 “주어진 상황에서 사회적으로 수용되고, 가치를 부여받고 있는 특수한 방식으로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능력으로 정의하였으며, Walker 등(1988)은 “타인과의 관계를 주도하고, 일차적으로는 타인에게 유익하지만 개인적으로도 이익이 되며, 상호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사회적 상황에서 타인과 상호작용 하는 능력”으로 규정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Hazel 등(1983)은 사회적 기술을 갖춘 사람의 특징으로 첫째, 사회적으로 적절한 행동을 정확히 지각하고 어떤 기법을 활용할 것인지를 알고 있고, 둘째, 다른 사람으로부터 얻은 정보를 정확히 해석하고, 의미를 이해하며, 셋째, 사회적 기법에 걸맞는 정확한 언어와 비언어적 반응을 할 수 있고, 넷째, 사회적 피드백에 민감하며, 마지막으로 사회적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해 적절하게 피드백을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였다.

② 사회적 신뢰

사회심리학자들은 태도가 행동을 설명하는 중요한 예언 변인이라는 관점을 취한다. 태도(attitude)는 특정 대상에 대하여 일관되게 긍정 혹은 부정하는 방식으로 반응하도록 학습된 개인의 경향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회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개인의 행동을 설명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여겨왔다. 왜냐하면 특정 대상에 대해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감정이 없이 그것들에 대해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행동을 보인다고 가정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태도는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 구안된 개념이기 때문이다(Fishbein & Ajzen, 1975).

특히 청소년들이 사회에 적응하기에 앞서 자신이 속한 사회에 대해서 가지는 태도는 그들의 사회적 적응행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사회에 적응할 것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본 지표영역에서 사회에 대한 청소년의 태도는 사회에 대한 일반적인 감정에 해당하는 사회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평가보다는 사회의 신뢰성에 대한 청소년들의 태도를 확인하도록 설계될 것이다. 그 이유는 기성세대와는 달리 청소년들이 입장에서 보면 사회가 그들 세대가 주도하는 세계라기보다는 앞으로 그들이 적응해야할 대상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적응의 주체는 적응에 앞서서 적응대상에 대한 신뢰가능여부를 판단하기 마련이다.

기본적으로 사회를 신뢰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사회에 대한 태도와 행동양식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일 것이다. 사회적 신뢰란 “타인이

자신을 해치거나 이용하지 않는다는 믿음이며, 집단행동과 협조 및 협력이 기본이 되는 평화적이고 안정적인 사회적 관계”를 의미한다(Putnam, 1993). 사회적 신뢰는 주변 사람에 대한 신뢰에서 넓게는 국가 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준에서 확인될 수 있을 것이다.

③ 친사회성

앞서 언급하였듯이, 청소년의 사회적 역량은 능력 차원에서만 고려될 수 없다. 사회적 기술이라는 사회적 능력은 그것이 어떠한 방향으로 발휘되느냐에 따라 청소년 발달에 긍정적인 결과나 부정적인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 사회적 기술이 반사회적인 방향을 지향할 때, 그것은 반사회적 집단의 동조와 반사회적 행동을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사회적 역량은 능력과 더불어 규범적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여기서 규범적 차원을 고려한다는 말은 청소년의 사회적 역량이 친사회적 목적으로 지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소위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혹은 사회적 규범에 적절한 그리고 타인에게 우호적인 행동을 친사회적 성향이라 할 수 있다. 친사회성이란 외적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자발성에 기초하여 사회적 상황에서 타인에게 이로운 행동을 하려는 성향을 의미한다(허인숙, 유준상, 2004). 구체적으로 Reykowsik(1982)은 친사회적 성향의 행동적 지표로 “타인 돕기, 공유하기, 자기희생, 사회규칙 준수” 등을 포함시킨 바 있다.

4) 시민적 역량 개념 및 하위영역

(1) 시민적 역량개념

일반적으로 사회과학 분야에서 학술적 가치를 지니는 사회조사자료를 지속적으로 생산해내고 광범위하게 확산시켜 자료이용을 극대화하는 작업은 학문발전과 더불어 사회발전에도 크게 기여한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리고 사회조사의 사전작업으로서 우수한 측정속성(measurement

properties)을 보유하는 경험적 지표개발의 중요성은 아무리 반복해서 강조되어도 지나치지 않다. 대부분의 연구개념이 추상적이며, 다차원적인 사회과학의 학문적 속성으로 인하여 연구자들간의 합의된 지표의 개발을 전제로 하지 않는 연구는 연구결과의 일반화과정 뿐만 아니라 연구결과의 내적일관성(internal validity) 확인과정에서도 필연적으로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여기서는 먼저 청소년의 시민적 역량과 시민의식을 다루기에 앞서 시민의식, 시민성등의 유사한 개념들에 대하여 간략하게 정의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간 진행되어온 「청소년개발지표연구」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 본 후,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시민적 역량의 개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청소년의 시민적 역량과 시민의식에 대한 국내외 관련 연구에 대한 문헌검토와 함께 일반시민의 시민의식에 대한 문헌까지 포괄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그리고 최근 수년간 국내에서 진행되었던 시민의식 관련 조사문항들도 또한 검토할 것이다. 이는 매우 실제적인(practical)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지표의 개발이란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의 이론적 구성(theoretical construct)에 대한 관련 연구자들의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진 후 구체적인 문항개발과 이에 대한 검증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지만, 과거의 연구결과가 빈약하거나 새로운 개념에 대한 지표를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는 다소 임의적(ad-hoc)이더라도 과거 조사 문항들을 기초 자료로 삼아 그것들의 수렴성(convergence)을 확인하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다. 이러한 과정들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잠정적인 조사문항집단(preliminary survey item pool)을 제시하고 동시에 이후 논의를 위한 주요 의제들을 제시할 것이다.

어원을 살펴보면, 시민성(citizenship 혹은 civility)이란 시민이라는 ‘citizen’과 자질, 조건이라는 ‘ship’이 합성되어 만들어진 것으로, 이 단어 속에는 ‘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다. 이는 개인적으로 요구되어지는 자질이라기보다는 특정한 공동체의 구성원, ‘시민’이라는 지위에서 요구되는 자질을 의미한다. 실즈(Shils, 1997)는 시민성을 시민사회의 덕성으로 인식하였다. 그에 의하면 시민성은 근대적 인간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 협애하고 이기적인 특수이익에 대한 경도를 자제하고, “공동의 이익에 우선

권을 부여하고자 하는”(Shils, 1997:345) 자발적 의지와 특유의 심리적 준비상태를 의미한다. 달은 ‘시민성을 “공공선에 대한 헌신” 또는 “관련집단의 총체적 이익을 추구하는 자각적 의도”로 정의하였다(Dahl, 1989:27, 142). 위 두 가지 정의의 공통점은 시민성이란 경쟁보다는 협동 그리고 개인적 합리성보다는 집단적 연대에 우선적 가치를 부여하는 공동체적 의식이라는 것이다.

많은 경우 시민성은 시민의식(civil consciousness)과 유사한 개념으로 쓰여 왔으나 엄밀히 따지자면, 시민의식은 시민성의 의식적(cognitive) 차원으로 이해 될 수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시민(citizen)은 근대민주주의의 역사적 산물이기 때문에 시민성은 ‘민주시민성’으로도 불리기도 한다. 민주시민성이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 사회내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 할 수 있는 개인이나 집단의 권리, 자유, 평등 그리고 정의를 통한 공동선의 구현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이념과 가치를 갖춘 정신을 의미한다. Walzer(1989)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의 덕목은 첫째,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의식, 둘째, 자신의 권리와 주장이 인정되고 있다는 인식, 셋째, 공동선에 대한 책임의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민주주의 정치체제와의 관련성에서 볼 때, 위의 정의들은 시민의식의 법적 측면이 강조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법적으로 시민이라는 것은 국가의 통치체제하에서 한 개인의 법적인 지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정치적 제도 및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반드시 수행되어야 할 개인의 책임과 의무 그리고 보장받아야 할 권리를 포함하게 된다.

물론 민주주의 정치체제와의 관련 속에서 시민의식의 법적 측면도 중요하지만 마찬가지로 중요한 다른 하나의 측면은 시민의식의 의식적 혹은 심리적 차원이다(한국교육개발원, 2003). 시민의식의 의식적 차원이란 민주시민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한 개인의 의식을 구성하는 요소를 말한다. 여기에는 지식적 요소, 의견, 태도, 행위의지 등이 광범위하게 포함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변화하는 국제환경 속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타문화나 타인종에 대한 관용성(tolerance)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민주사회 구성원들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하나 중요하게 발견되는 것은 시민의식이란 시대와 세대에 따라 계속해서 재구성되어야 하는 개념이라는 것

이다. 국가권력의 거대화를 경험하면서 정치권력에 대한 시민의 끊임없는 감시와 견제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되고 있다. 또 지구화(globalization)과 지방화(localization)가 동시에 진행되어 가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국민의식(national consciousness)이나 애국심(patriotism)은 자칫하면 국수주의(ultra-natioanlism)로 경도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2) 시민적 역량개념의 하위영역

청소년의 시민의식에 대한 선행 연구의 검토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먼저, 청소년개발원에서 진행되어온 청소년의 시민적 역량 연구와 ‘시민의식’ 혹은 ‘시민성’의 주제로 진행되어온 과거의 학술적 문헌들을 검토 및 정리하여 ‘시민의식’의 이론적 하위구성요소를 재정립하였다. 두 번째, ‘시민의식’을 주제로 진행되었던 과거 조사연구들을 검토하여 이들 조사 문항들의 수렴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과거 조사를 통하여 얻어진 ‘시민의식’ 조사문항들을 재정립된 ‘시민의식’ 하위구성요소를 기준으로 하여 구분하였다.

한국청소년개발원은 2005년 발간된 “청소년 정책비전과 주요추진과제” 연구보고서에서 ‘시민성 함양’을 임파워먼트(empowerment) 영역의 세 가지 구성요소 중 하나로 제시하고 ‘청소년의 권익신장과 정책참여기회 확대’, ‘민주주의적 가치의식과 행동양식 함양’ 그리고 ‘청소년교류확대 및 글로벌리더쉽개발’ 등 세 가지를 중점추진과제로 선정하였다. 이 가운데 본 연구의 주제인 ‘청소년시민의식 개발지표’와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과제는 두 번째 과제인 ‘민주주의적 가치의식과 행동양식 함양’이라고 할 수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급속한 경제성장과 정치적 민주화는 개개인의 개성과 창의성 및 자율성을 증가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였으나 후 기산업사회의 부작용들, 예를 들면 황금만능주의, 한탕주의, 편법주의, 비도덕적 가족주의, 인명경시풍조 등이 만연해 가고 있는 실정이며(청소년 개발원 2005), 이럴 때일수록 청소년들에게 자신과 관련된 복잡한 상황들에 대하여 올바른 판단과 결정 그리고 권리와 책임을 다하는 민주사회의 시민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는 사회적 지원체제의 확립의 필요성이 높아진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보고서에 제시된 핵심추진과제는 (1)청소년의 시민의식 함양 기회 확대, ‘시민단체와의 연계 및 시민의식 함양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등이 제시되고 있다.

「청소년개발지표연구」에서 청소년의 시민적 역량에 관한 논의는 청소년 개발(Youth Development)의 결과부분에 정리되어 있다. 2003년 보고서(청소년개발원 2003)에 따르면 청소년 개발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 되어 있다.

“결과부분은 이미 청소년개발의 개념을 정의하면서 언급한 바 있듯이, 청소년의 성장과 변화의 미시적 차원에서 총량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영역에 초점을 맞춘다. 구체적으로 청소년개발체제를 통해 산출되는 결과로는, (1)신체·건강 개발(physical competencies development), (2)감성인성 개발(emotional competencies development), (3)지적능력 개발(cognitive competencies development), (4)사회성 개발(social competencies development), (5)시민의식 개발(civic competencies development), (6)직업진로개발(vocational career development) 등이 포함되어 있다. 청소년개발의 여섯 가지 측면 가운데 시민의식 개발(여기서는 일단 시민의식 혹은 시민적 역량을 대체 가능한 의미로 전제함)은 사회참여, 책임과 권리, 국제적 안목의 세부 영역으로 나누어 진다.

2004년 2차년도 연구보고서에서는 2003년과 비교할 때, 청소년의 시민적 역량의 내용구성에 약간의 변화가 있었다. 2003년도 연구에서는 청소년 시민적 역량의 하부구성요인으로 ‘사회참여’, ‘책임과 권리’, 그리고 ‘국제적 안목’이 선택되었으나 2004년도 연구에는 전문가 집단과의 보다 심도 깊은 회의를 통하여 청소년의 시민적 역량의 하부구성요인으로 ‘사회적 책임’, 인권 및 사회적 권리, 민족 및 국가의식’ 그리고 ‘국제적 안목’을 도출하였다.

학술논문의 영역에서는 전반적으로 청소년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시민의식’ 관련 연구는 활발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과거 수년간 국내에서 진행된 ‘시민의식’ 관련 연구들을 종합해 보고자 한다. 먼저 1997년에 발표된 정

성호(1997)의 연구에 따르면 시민의식은 개개인이 변화하는 사회에 적합한 의식수준과 행동양식을 말하며, 실제 자료획득 단계에서 연구자가 이용한 시민의식의 하위개념들을 살펴보면, 시민의식은 공동체의식, 준법의식, 대화/타협의식, 사회봉사의식, 권리의식,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의식, 의식의 지구화 혹은 세계화 (개방적인 태도)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2001년에 실시된 배한동의 “한국대학생의 민주시민의식 연구”에 따르면 민주시민의식이란 민주정치나 민주주의에 관한 각성된 수준 높은 의식성향을 말하며, 다수결의 원칙존중, 비판과 저항의식, 질서의식, 준법정신, 책임의식, 탈권위주의의식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서 민주시민의식이란 일반적인 ‘시민의식’ 차원과 ‘민주주의 체제의 이해정도’가 결합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시민의식’과 ‘민주주의’의 관계에 대하여 김광명(1997)은 ‘시민의식’의 개념 속에 ‘민주주의’의 개념을 포함시키고 있다. 그에 따르면, 시민적 자질이란 민주적 생활태도와 행동양식, 끊임없는 교육적 지도와 안내라는 공동체내의 상호작용과 전 생애에 걸친 학습을 통해 획득되는 것이다. 즉, 현대사회의 시민성은 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 필요로 하는 생활태도와 행동양식을 갖춘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말하며 구체적으로는 인간존엄에 대한 인식, 국민주권에 대한 인식, 민주사회에서 자유의 원리에 대한 인식, 평등의 원리에 대한 인식, 개인주의의 원리에 대한 인식 등의 규범적 요소와 토론의 중요성과 절차를 인식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관용의 태도를 가지며, 비판과 타협을 수용하고, 다수결의 원리와 소수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태도 등의 절차적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주장한다.

시민의식의 정치적 측면은 불안해폐기물 처리시설을 둘러싼 지역민들의 갈등사태를 연구한 김영인(2005)의 연구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그에 따르면, 시민의식이란 시민의 의사결정에 바탕이 되는 태도나 신념체계로서 개인에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시민에게 요구되어지는 자질을 의미한다. 이때의 시민의식은 여러 가지 요소로 구성되지만 대표적인 요소들을 꼽자면, 준법의식, 공동체 의식, 정치효능감, 정치신뢰감, 관용적 태도, 사회참여의식 등을 들 수 있다. 그가 제시한 시민의식 요소들의 정의를

살펴보면, 준법의식은 공동체 구성원의 합의규범인 법을 지키려는 정신적 자세와 태도를 의미한다. 공동체 의식은 공익지향을 토대로 하는 연대의식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정치효능감은 자신의 정치행위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말한다. 이는 민주주의 정치체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수적이며 시민들이 정치적 참여에 전제조건이 된다. 정치신뢰감이란 정치의 인적, 제도적, 절차적 요소의 합리성에 대한 믿음을 말한다. 정치신뢰감 또한 정치참여의 필수적 전제라고 할 수 있다. 관용적 태도는 나와 다른 이념, 가치, 사람 등을 용인하며 공존하려는 자세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참여 의식은 공공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정치과정이나 사회적 의사결정에 관여하려는 것을 의미한다.

‘민주주의’와 ‘시민의식’의 관계와 더불어 최근 ‘시민의식’ 연구에서 빈번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이슈 가운데 하나는 바로 ‘국제의식’과 ‘시민의식’과의 관계이다. 이승중에 따르면, 지방화와 세계화는 시민성의 다중적 발전을 가져오게 된다고 한다. 즉, 이전의 시민성은 국민성 (national citizenship)만이 강조되었으나 지방화와 세계화의 발전은 국민성뿐만 아니라, 주민성(local citizenship), 세계시민성(global citizenship)까지 포함하는 다중적 정체의식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세계시민성이란 세계화 추세에 따른 보다 개방적, 진취적 사고를 말한다. 2002년 한일월드컵 개최가 확정된 후 실시된 정성호(1997)의 국제비교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글로벌시대를 맞이하여 거시적이고 국제적인 시각이 절실하며, 열린사고를 갖고 열린사회를 지향하는 노력은 ‘시민의식’의 중요한 부분으로 강조되고 있다. 즉 시민 의식이란 준법의식이나 공동체의식 뿐만 아니라 외국문제와 외국인에 대한 인식등 다양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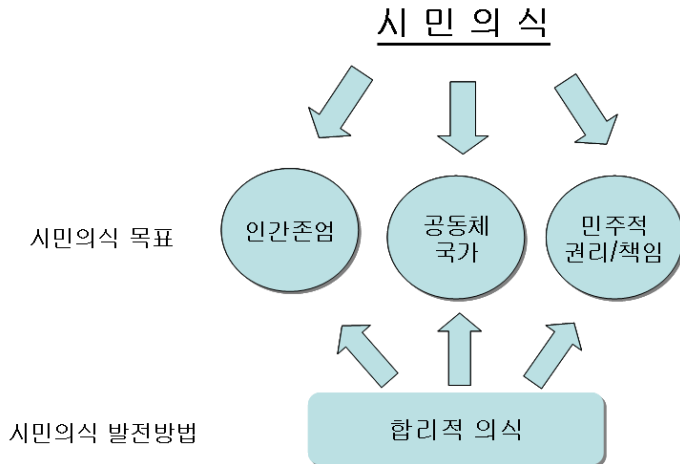
국제적 환경의 변화에 따른 시민의식의 국제화 필요성은 유종렬의 연구에서도 강조되고 있다. 그에 따르면, 민주시민의 자질은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과 같은 민주주의의 근본원리를 존중하며 급변하는 현대사회에 적응하면서 개인적으로 행복한 생활은 물론 사회와 국가의 발전에 공헌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국제사회에서 변화하고 있는 한국의 위상과 관

련하여 덧붙여져야 하는 것은 세계사회에 능동적으로 적응하면서 국제사회와 국가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그가 제시한 세계시민(global citizen)의 자질은 인류공공의 생존을 추구하고, 단일국가의 협소한 관점을 벗어나 전 지구적 관심과 시대요청에 따라 세계적 차원에서 생각하는 세계시민의식이다. 그리고 국가민족주의가 아닌 전 세계 인류가 한민족과 같이 번영과 발전을 추구하는 세계적 민족주의의 지향해야 하며, 인류가 공동으로 대처해야만 하는 전 지구적 관심사에 대한 관심을 통하여 생활의 동반자로서의 인류의 존재를 인식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세계시민의식이란 어느 계층이나 계급의 이익이 아닌 국민, 인류 모두가 자유롭게 평등하게 잘 살 수 있는 인류보편적 가치에 대한 추구를 의미한다.

그렇다면, 이토록 추상적이고 가변적인 시민의식 혹은 시민성을 구성하는 개념적 하위요소는 무엇인가? 모든 하위요소들을 망라적이고(exhaustive) 일정 상호배타적(mutually exclusive)으로 추출하고 구분해낸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할지 모른다. 그러나 과거의 시민의식에 대한 이론적 논의들을 종합해 보면 시민의식을 구성하는 요소들에 대한 일련의 공통점들은 충분히 발견가능하다. 첫째, 인간존엄성에 대한 인식이다. 이는 민주정치체제나 사회환경의 변화하는 일정 정도 독립적으로 시민의식이 가져야 할 가장 근본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둘째, 국가정체성에 대한 인식이다. 셋째, 민주적 권리 및 책임의식이다. 이는 민주적 절차와 과정에의 숙달, 그리고 참여의식까지 포함한다. 넷째, 합리적 의사결정능력 혹은 합리적 의식이다. ‘합리적’이란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합리성을 포괄하는 매우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는 개념이다. 특정한 상황에 올바른 가치기준을 적용하여 판단할 수 능력, 편견과 차별에 저항할 수 있는 능력,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경제활동의 합리성, 외부정보를 선별할 수 있는 능력, 국제적 안목과 다양성의 존중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위와 같이 구분된 네 가지 영역의 시민의식 하위차원 분류는 시민의식의 내용적 측면과 그것들을 추구하고자 하는 방법의 측면으로 또한 구분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시민의식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 가운데 하나가 시민들

의 민주적 권리와 책임의식의 제고라고 한다면 그것을 실현해나가는 데 필요한 방법은 시민들의 대화와 타협의식의 함양일 수 있다. 앞서 구분한 네 가지 하위영역을 목표와 방법의 측면으로 재구성하면 <그림 II-1>과 같다.



<그림 II-1> 시민의식의 하위영역

인간존엄성에 대한 의식, 국가정체성 및 공동체정신, 그리고 민주적 권리와 책임의식은 시민의식이 추구해야 할 목표에 대한 구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시민의식의 목표들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합리적 의사결정 능력 혹은 합리적 의식이 필수적이다. 앞서서도 언급되었지만 여기서 ‘합리적’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 수리적 합리성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합리성까지 포괄하는 매우 광의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5) 진로·직업 역량의 개념 및 하위영역

(1) 진로·직업 역량개념

국가의 청소년 정책을 위시한 청소년교육이나 각종 활동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같이 청소년의 긍정적이고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는 데 있다. 청소년

들의 긍정적이고 건강한 성장과 발달이란 신체적 건강을 비롯하여 정서적 건강, 지적 역량, 사회적 역량, 시민적 역량, 문화적 역량과 함께 진로·직업적 역량의 함양을 의미한다(김진호 외, 2004). 무엇보다도 진로·직업 역량의 개발은 청소년 누구나 성인이 되면 직업생활을 영위해야 하는데, 오늘날 직업의 세계는 갈수록 전문화, 복잡화 되어가고 있어 청소년기에 철저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올바른 직업선택이 어려울 뿐 아니라, 선택한 직업에서의 지속적인 적응과 발전이 어렵기 때문에 청소년개발의 중요 영역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청소년들의 진로·직업 역량 개발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측면에서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가장 쉽게는 청소년들의 고용가능성(employability)을 의미하는 것으로 ‘고용에 필요한 기능적, 구조적 기술의 획득’으로 직업능력 개발에 초점을 두고 진로·직업 역량을 개념화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가 하면 진로발달(career development)의 관점에서 ‘개인이 전 생애에 걸쳐 가장 보람된 삶을 추구하기 위해 자신의 진로를 정하고, 직업을 선택하며, 새로운 직업기회와 개인목표를 계속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의 함양으로 진로·직업 역량을 개념화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진로·직업 역량을 단지 직업세계에서 요청되는 기술과 태도를 습득하고, 창의적이고 책임감 있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님으로써 고용가능성을 갖추는 것으로 이해할 경우 실질적으로 측정상의 어려움이 발생하여 청소년개발 지표로서 기능하기 어렵게 된다. 따라서 진로발달의 관점에서 자신의 다양한 특성에 대한 정확한 인식 및 일과 직업에 대한 균형 잡힌 이해, 그리고 이를 토대로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의 탐색 및 입직하기 위한 준비도를 의미하는 직업적 자아개념(vocational self-concept)의 형성 정도로 진로·직업 역량을 개념화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청소년들의 진로·직업 역량이란 청소년들이 자신의 진로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태도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으며, 실질적으로 진로탐색이나 준비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

표로 개념화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청소년기에 수행하여야 할 중요한 발달 과업인 직업에 대한 바른 가치관과 태도 형성(진로의식), 일과 직업세계에 대한 균형 있는 이해,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에 대한 적극적 탐색과 구체적인 준비를 위한 노력 등을 얼마나 수행하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지표로 진로·직업 역량을 개념화 하여야 한다.

(2) 진로·직업 역량개념의 범주와 하위 영역

앞에서 정리된 진로·직업 역량의 개념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며 이를 측정하기 위해 어떤 하위 영역들이 포함되어야 하는지를 규명하기 위해 먼저 국외의 진로개발 지표 및 검사도구를 검토하였다.

① 국내·외 진로개발지표 검토

미국의 국가직업정보위원회(NOICC, 1989)에서는 국가수준의 진로개발지침(National Career Development Guidelines)을 개발하여 제시한 바 있는데, 여기에서는 진로개발영역을 크게 자아인식, 학업·직업탐색, 진로계획으로 구분하였다. 자아인식과 관련해서는 자아개념인식, 대인관계인식, 성장변화인식 등 3가지 발달과업을, 학업·직업탐색과 관련해서는 학업성취인식, 일과 학습과의 관계 인식, 일과 자신, 사회와의 관계 인식, 진로정보이해 활용, 일에 대한 긍정적 태도 등 5가지 발달과업, 그리고 진로계획과 관련해서는 의사결정과정 이해, 생애역할 관계 이해, 성역할 변화 및 직업인식, 진로계획과정 이해 등 4가지 발달과업을 제시하였다.

2000년 캐나다의 National Life/Work Centre, Human Resource Development Canada, Canada Career Information Partnership에서는 모든 교육수준에서의 포괄적인 진로지도 프로그램에 활용될 수 있는 국가수준에서의 진로개발지침을 설정하기 위하여 삶과 일에 관한 청사진 설계(Blueprint for Life/Work Design; BLWD)를 개발하였다. BLWD에서는 진로개발 영역을 크게 개인관리, 학습과 일 탐색, 삶과 일에 대한 설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개인관리와 관련하여 3가지 세부영역(자아개념 인식, 대인관계 인식, 성장변화 인식)

을 설정하였고, 학습과 일 탐색과 관련해서도 3가지 세부영역(평생학습인식, 일과 자신, 사회와의 관계 인식, 진로정보이해 활용)을 설정하였으며 삶과 일에 대한 설계와 관련해서는 4가지 세부영역(의사결정과정 이해, 일에 관한 효과적인 전략 탐색, 생애 역할 관계 이해, 진로계획과정 이해)을 설정하였다.

2003년 호주의 연방정부 교육과학훈련부에서는 모든 교육수준에서의 포괄적인 진로지도 프로그램에 활용될 수 있는 국가수준 진로개발지침을 설정하기 위하여 캐나다의 BLWD를 토대로 진로개발을 위한 청사진(Australian Blueprint for Career Development; ABCD)을 개발하였다. ABCD에 따르면 진로개발 영역을 크게 개인관리, 학습과 일 탐색, 진로설계로 구분하였는데, 개인관리와 관련하여 3가지 세부영역을 설정하였고 학습과 일 탐색과 관련하여 3가지 세부영역을 설정하였으며 진로설계와 관련하여 3가지 세부영역을 설정하였다.

1997년 일본의 교육부(The Ministry of Education)에서는 모든 교육수준에서의 포괄적인 진로지도 프로그램에 활용될 수 있는 국가수준 진로개발지침을 설정하기 위하여 미국의 NCDG를 토대로 진로개발능력모델(The Model Structure of the Career Development Competencies in Japan)을 개발하였다. 진로개발능력모델에 따르면 진로개발 영역을 크게 인간관계, 진로정보의 탐색과 활용, 의사결정, 진로설계로 구분하였는데, 인간관계와 관련하여 3가지 세부영역을 설정하였고 진로정보의 탐색·활용과 관련하여 3가지 세부영역을 설정하였으며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2가지 세부영역을 설정하였고 진로설계와 관련하여 4가지 세부영역을 설정하였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는 2001년 우리나라의 초등학교로부터 고등학교까지의 진로교육 관련 문헌 및 연구를 포괄적으로 고찰하고 설문지 분석 및 델파이 조사를 통해 각급 학교에서의 진로교육 목표 및 내용 체계를 제시하였다. 이때, 진로개발의 영역은 크게 ① 자아 이해, ② 일과 직업세계, ③ 일과 직업에 대한 태도와 습관 형성, ④ 일과 학습, ⑤ 진로계획 등 5개로 설정하였는데, 자아이해와 관련하여 3가지 세부영역을 설정하였고 일과 직업

세계와 관련하여 3가지 세부영역을 설정하였으며 일과 직업에 대한 태도와 습관형성과 관련하여 3가지 세부영역을 설정하였고 일과 학습과 관련하여 3가지 세부영역을 설정하였으며, 진로계획과 관련하여 3가지 세부영역을 설정하였다.

<표 II-2> 국내·외에서의 진로개발 영역 설정 종합

관련 연구	자아 인식					학업·직업 탐색								진로계획					
	자아 개념 인식	대인 관계 인식	성장 변화 인식	자기 표현	흥미 적성 성격 확인	학업 성취 인식	평생 학습 인식	일과 학습과의 관계 인식	일과 자신 사회와의 관계 인식	진로 정보 이해 활용	일에 대한 기초 경험 이해	일에 대한 긍정적 태도	직업에 대한 가치관 이해	의사 결정 과정 이해	일에 관한 효과 적인 전략 탐색	생애 역할 역할 관계 이해	성 역할 변화 및 직업 인식	진로 계획 과정 이해	진로 목표 설정 인식
미국	●	●	●	-	-	●	-	●	●	●	-	●	-	●	-	●	●	●	-
캐나다	●	●	●	-	-	-	●	-	●	●	-	-	-	●	●	●	-	●	-
호주	●	●	●	-	-	-	●	-	●	●	-	-	-	●	-	●	-	●	-
일본	●	●	●	●	-	-	-	●	●	●	-	●	-	●	-	●	●	●	-
한국	●	●	-	-	●	●	-	-	●	●	●	●	●	●	●	-	-	●	●

② 국내·외 진로발달 검사도구 검토

1990년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개발된 진로성숙도검사의 하위영역 설정을 살펴보면 <표 II-3>와 같은데, 진로성숙도검사를 태도검사와 능력검사로 크게 구분하고 태도검사에서 계획성, 독립성, 결정성 영역 등을 측정하였으며 능력검사에서 직업세계의 이해, 직업선택, 의사결정 영역 등을 측정하였다.

<표 II-3> 한국직성연구소(1992)의 진로성숙도검사 하위영역 설정 및 문항구성

구분	하위영역	설 명	문항수
태도검사	계획성	자신의 진로방향 선택 및 직업결정을 위한 사전 준비와 계획의 정도	13
	독립성	자신의 진로를 탐색, 준비, 선택하는데 있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정도	13
	결정성	자신의 진로방향 및 직업선택에 대한 확신의 정도	10
능력검사	직업세계의 이해	직업의 종류, 직업의 특성, 작업조건, 교육수준, 직무 및 직업세계의 변화경향과 직업정보획득 등 6개 분야에 대한 지식과 이해의 정도	30
	직업선택	자신의 적성, 흥미, 학력, 신체적 조건, 가정환경 등과 직업세계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토대로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	15
	의사결정	자기 자신 및 직업세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지식을 바탕으로 진로와 관련된 의사결정과정에서 부딪히는 갈등상황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능력	15

자료: 장석만·임두순·송병국(1991). 진로성숙도 검사 표준화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pp. 51-52.

이기학(1997)이 개발하고 타당성을 검증한 진로태도성숙도 검사의 하위영역을 살펴보면 <표 II-4>와 같은데, 예비조사 단계에서 결정성, 독립성, 확신성, 준비성, 목적성 등으로 구분하여 개발된 검사를 타당화 과정에서 현실성, 결정성, 준비성 등 3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검사도구를 타당화하였다.

<표 II-4> 이기핵(1997)의 진로태도성숙도검사 하위영역 설정 및 문항구성

구분	하위영역	측 정 내 용	문항 수
태도 검사	현실성	진로를 계획하고 선택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인 측면과 상황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쉽게 얻을 수 있는가의 여부를 얼마나 고려하는 정도	13
	결정성	진로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심사숙고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자신이 선택한 진로에 대한 결정 정도가 얼마나 확고한가 하는 확실성의 정도	13
	준비성	진로를 선택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그 자료에 기초하여 진로를 선택하고 준비하는 정도	13

한국심리검사연구소(2000)에서 개발된 Strong진로탐색검사의 하위척도로 개발된 진로성숙도검사의 하위영역을 살펴보면 <표 II-5>과 같은데, 진로성숙도검사를 태도검사와 능력검사로 크게 구분하고 태도검사에서 진로정체감, 진로준비도, 가족 내 일치도, 진로합리성 영역 등을 측정하였으며 능력검사에서 정보습득도 영역을 측정하였다.

<표 II-5> 한국심리검사연구소(2000)의 진로성숙도검사 하위영역 설정 및 문항구성

구분	하위영역	측정내용	문항 수
태도 검사	진로 정체감	자신의 진로선택에 관한 결정 확신 정도	10
	진로 준비도	자신의 진로를 스스로 선택하기 위하여 시간과 노력을 경주하는 정도	12
	가족 내 일치도	가족사이에 진로에 관한 의견의 일치도	14
	진로 합리성	타인의 합리적 조언이나 정보에 대한 수용성	15
능력 검사	정보 습득도	진로를 선택함에 있어 의사결정능력의 발달수준에서 필요한 주요 직업에 관한 지식습득 정도	14

2001년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개발된 진로성숙도검사의 하위영역을 살펴보면 <표 II-6>과 같은데, 진로성숙도검사를 태도검사, 능력검사, 행동검사로 크게 구분하고 태도검사에서 독립성, 일에 대한 태도, 계획성 영역 등을 측정하였으며 능력검사에서 자기 이해, 정보활용 및 진로결정능력, 직업에 대한 지식 등을 측정하였고 행동검사에서 진로탐색 및 준비행동 영역을 측정하였다.

<표 II-6>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01)의 진로성숙도검사 하위영역 설정 및 문항구성

구분	하위요소	정 의	문항수
태도검사	독립성	진로결정의 책임을 수용하고, 자기 스스로 진로를 탐색하고 선택하려는 태도	13
	일에 대한 태도	직업의 의미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직업에 중요성을 부여하는 정도	13
	계획성	자신의 진로의 방향을 설정해 보고 그것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 보는 태도	13
능력검사	자기이해	능력, 흥미, 가치, 신체적 조건, 환경적 제약 등 개인이 진로선택에서 고려해야할 개인적 특성들에 대한 이해 정도	15
	정보활용 및 진로결정 능력	진로와 관련된 정보를 활용하며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를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	16
	직업에 대한 지식	일반적 직업에 대하여 알고 있는 정도	60
		자신이 관심을 갖는 직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정도	11
행동검사	진로탐색 및 준비행동	자신의 진로를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준비하는 정도	15

자료: 임안정윤경상경아(2001). 진로성숙도 검사 개발 보고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p. 36.

한편, 국외에서 개발된 대표적인 진로발달검사는 CDI(Career Development Inventory)와 CMI(Career Maturity Inventory) 등을 들 수 있는데, 먼저 Super에

의해 개발된 CDI의 하위영역을 살펴보면 <표 II-7>과 같은데, CDI는 진로발달검사를 태도검사와 능력검사로 크게 구분하고 태도검사에서 진로계획, 진로탐색 영역을 측정하였으며 능력검사에서 의사결정, 일의 세계에 대한 정보 영역 등을 측정하였다.

<표 II-7> CDI의 하위영역 설정 및 문항구성

구분	하위영역	측 정 내 용	문항수
태도 검사	진로계획	학생들이 얼마나 진로계획에 관여하고 있고 어느 정도 진로계획을 세워 놓았는가와 그들이 하기를 원하는 일에 대한 지식 정도 측정	20
	진로탐색	자기주변의 친구, 부모, 형제, 친척 및 인쇄매체 등이 자신의 진로정보원으로서 어느 정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가와 각 진로정보원으로부터 얻은 정보의 유용성 평가	20
능력 검사	의사결정	학생의 진로계획 및 의사결정에 대한 지식과 통찰력의 응용능력 측정	20
	일의 세계에 대한 정보	진로발달단계에 따른 진로발달과업에 대한 지식의 측정과 직업구조에 대한 지식 및 각 직업을 선택하는 데 요구하는 기술에 대한 지식 측정	20

1978년 Crites에 의하여 개발된 CMI의 하위영역을 살펴보면 <표 II-8>와 같은데, 진로성숙도검사를 태도검사와 능력검사로 구분하고 태도검사에서 결정성, 참여도, 독립성, 정향성, 타협성 영역 등을 측정하였으며 능력검사에서 자기평가, 직업정보, 목표선정, 계획, 문제해결 영역 등을 측정하였다.

<표 II-8> CMI의 하위영역 설정 및 문항구성

구분	하위영역	측정내용	문항 수
태도 검사	결정성	선호하는 진로의 방향에 대한 확신의 정도	15
	참여도	진로선택 과정에의 능동적 참여의 정도	15
	독립성	진로선택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정도	15
	정향성	진로결정에 필요한 사전이해와 준비의 정도	15
	타협성	진로선택 시에 욕구와 현실을 타협하는 정도	15
능력 검사	자기평가	자신의 흥미, 태도, 성격 등을 명료히 지각하고 자신을 이해하는 능력	20
	직업정보	직업세계에 대한 지식, 과제, 고용기회 등에 관한 정보를 획득하고 평가하는 능력	20
	목표 선정	자아와 직업세계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직업을 선택하는 능력	20
	계획	직업목표를 선정한 후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 능력	20
	문제해결	진로선택이나 의사결정에서 부딪치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20

국내·외 진로발달 검사도구의 하위영역을 종합하여 제시하면 <표 II-9>와 같다. 이를 요약하면 태도영역과 관련하여 계획성, 독립성, 결정성, 준비성 등을 측정하여 진로발달 수준을 추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능력영역과 관련하여 직업세계 이해, 의사결정, 진로정보 등을 측정하여 진로발달능력 수준을 추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9> 내·외 진로발달 검사도구의 하위영역 종합

관련 검사 도구	태도 영역									능력 영역					행동 영역
	계획 성	독립 성	결정 성	현실 성	준비 성	정체 감	합리 성	가족 일치 도	일에 대한 태도	직업 세계 이해	직업 선택	의사 결정	진로 정보	자기 이해	
한국직성연구소 (1992)	●	●	●	-	-	-	-	-	-	●	●	●	-	-	-
이기학 (1997)	-	-	●	●	●	-	-	-	-	-	-	-	-	-	-
한국심리검사 연구소(2000)	-	-	-	-	●	●	●	●	-	-	-	-	●	-	-
한국직업능력 개발원(2001)	●	●	-	-	-	-	-	-	●	●	-	●	●	●	-
CDI (1985)	●	-	-	-	-	-	-	-	-	●	-	●	-	-	-
CMI (1978)	-	●	●	●	●	-	-	-	-	●	-	●	●	●	-

(2) 진로·직업 역량개념의 하위 영역

이상의 국내외 진로개발지표 및 핵심 검사도구 검토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진로·직업 역량을 청소년 스스로 자신의 진로탐색 및 준비와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으며,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진로의식, 진로탐색 및 진로계획 및 준비 등 3개영역으로 진로·직업 역량을 범주화 하였다.

① 진로의식

청소년들이 얼마나 주도적인 입장에서 자신의 진로문제를 계획 또는 고민하고 있으며, 동시에 자신의 소질과 적성 등 직업적 특성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를 의미한다. 청소년들의 진로의식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서 진로선택의 주도성과 직업적 소질이나 적성 등 직업특성이해 정도를 선정하였다.

〈표 II-10〉 진로의식의 하위영역 (1차 선정문항)

하 위 영 역	항 목 설 명
진로선택의 주도성	진로탐색이나 준비, 선택 등 전반적인 과정에서 청소년 스스로 주도적으로 진로를 계획하고 결정을 하는 정도
진업적 소질이나 적성 등 직업특성 이해 정도	청소년 스스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직업적 적성이나 소질, 흥미 등을 이해하고 있는 정도

② 진로탐색

청소년 스스로 본인의 인생관 및 다양한 직업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직업을 얼마나 적극적으로고도 구체적으로 탐색하고 있는가를 의미한다. 따라서 진로탐색에 대한 태도와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직업정보탐색 능력과 직업선호도를 측정 지표로 선정하였다.

〈표 II-11〉 진로탐색의 하위영역 (1차 선정문항)

하 위 영 역	항 목 설 명
직업정보탐색 능력	실제적으로 자신의 다양한 특성에 적합한 직업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탐색하는 행동을 수행하고 있는 정도
직업선호도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선호하는 직업의 특성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 정도

③ 진로계획 및 준비

청소년들이 자신만의 진로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성취하기 위한 구체적인 진로준비행동을 실천하고 있는지를 의미하는 지표이다. 따라서 진로 목표 설정 여부와 구체적인 진로준비행동 실행 정도를 가지고 측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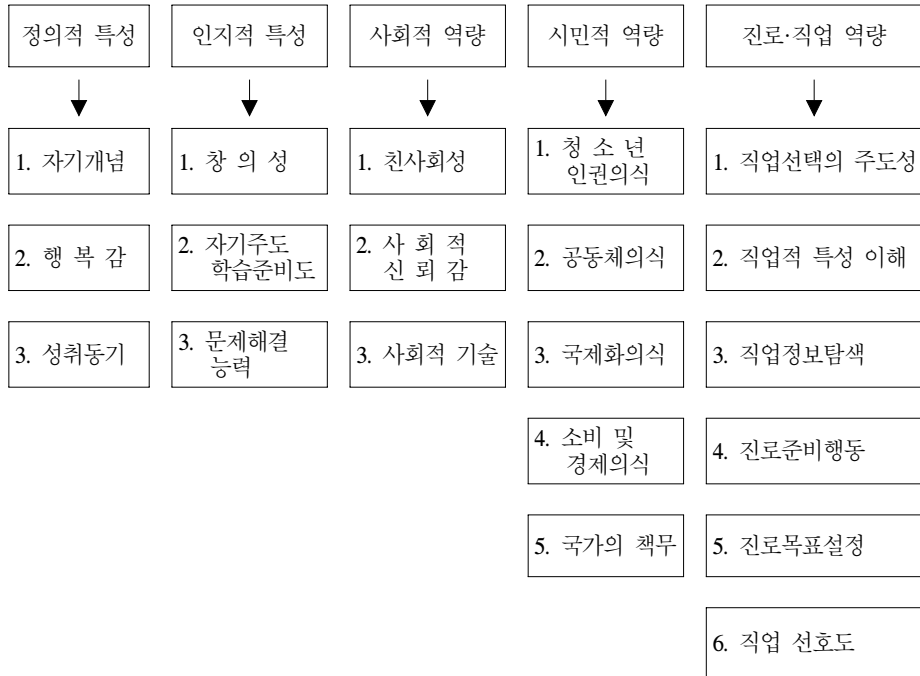
<표 II-12> 진로계획 및 준비의 하위영역 (1차 선정문항)

하 위 영 역	항 목 설 명
진로목표 설정 여부	자신만의 진로목표를 가지고 있는가
구체적인 진로준비(행동) 실행 여부	지난 1년 동안 원하는 진로목표를 성취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준비행동을 실행하였는가

6) 소괄 : 5개 영역별 하위영역체계

지금까지 살펴 본 5개 영역별 하위영역 체계는 <그림 II-2>와 같다. 정의적 특성은 ‘자기개념’, ‘행복감’, ‘성취동기’의 3개 영역으로 구성하였고, 인지적 특성은 ‘창의성’, ‘자기주도학습 준비도’, ‘문제해결능력’의 3개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사회적 역량은 ‘친사회성’, ‘사회적 신뢰감’, ‘사회적 기술’의 3개 영역으로 구성하였고, 시민적 역량은 ‘청소년 인권의식’, ‘청소년인권의식’, ‘공동체의식’, ‘국제화의식’, ‘소비 및 경제의식’, ‘국가의 책무’의 5개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끝으로 ‘진로·직업 역량’은 ‘직업선택의 주도성’, ‘직업적 특성이해’, ‘직업정보탐색’, ‘진로준비행동’, ‘진로목표설정’, ‘직업 선호도’의 6개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그림 II-2> 5개 영역별 하위영역 체계



2. 지표 영역별 측정도구의 개발

1) 정의적 특성영역

(1) 문항선정절차

견해에 따라 조금씩 상이하게 정의되는 정의적 특성의 하위 영역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개념을 중심으로 전문가 회의와 자문을 걸쳐 본 연구에서는 자아개념(자아개념, 정체감, 자기 통제감, 효능감 등), 행복감(스트레스, 우울, 불안, 자살, 행복감 등), 성취동기(성취동기, 성취목표 지향성, 학업목표, 사회적 동기, 내재적 동기)를 정의적 특성의 하위 영역으로 설정하였다.

다음으로 설정된 하위 영역을 측정하는 다양한 척도들의 문항을 근거로 하여 공통적인 문항과 핵심적인 문항을 중심으로 전문가 회의와 자문을 거쳐 1차적 문항으로 자아개념 24문항, 행복감 38문항, 성취동기 27 문항을 선정하였다.

<표 II-13> 자아개념 및 자기효능감의 하위영역 (1차 선정문항)

하위영역	측 정 문 항
자아개념 및 자기효능감	1.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Rosenberg,1965;자존감척도)
	2. 나는 대체적으로 실패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3. 나는 내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4.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
	5. 나는 매우 자신감을 갖고 있다 (Coopersmith, 1967; 자존감척도)
	6. 나는 내가 매우 능력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Hudson, 1982; 자존감척도)
	7. 내가 느끼기에 나는 다른 사람에게 좋은인상을 준다
	8. 나는 내 모습에 만족하는 편이다 (Perterson 등, 1984; 자아상척도)
	9. 나는 학교에서 인기가 있다
	10. 나는 나 자신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송인섭, 1989; 자아개념검사)
	11. 나는 친구들에게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12. 나는 나 자신이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13. 나는 나의 행동들에 만족한다 (Harter, 1985;자기지각척도)
	14. 나는 자신감이 아주 많다 (Tipton & Worthington,1984;일반적효능감척도)
	15. 나는 계획대로 수행할 수 있다(Sherer & Maddux, 1982; 자기효능감척도)
	16. 나는 뭔가 할 일이 있을 때 그 일을 바로 시작한다
	17. 나는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아영,차정은,1986:효능감)
	18. 주변 사람들이 나보다 모든 일에서 뛰어난 것 같다(R)
	19. 나는 무슨 일이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다
	20. 어렵거나 도전적인 일에 매달리는 것은 재미있는 일이다
	21. 일은 쉬운 것일수록 좋다
	22. 어떤 문제에 대한 나의 판단은 정확하다
	23. 나는 일이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되면 빨리 바로 잡을 수 있다
	24.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을 판단할 수 있다

<표 II-14> 행복감 및 스트레스의 하위영역 (1차 선정문항)

하위영역	측 정 문 항
행복감 및 스트레스	1. 부딪치는 어려움을 나는 잘 해결하고 있다. (Goldberg & Huxley, 1989; 스트레스)
	2. 나는 매사에 긴장을 느끼며 생활하는 편이다
	3. 나는 우울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다

4. 나 자신이 가치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
5. 나는 밤잠을 설칠 때가 있다 (Zung, 1965; 우울척도)
6. 나는 매사에 의욕이 없고, 침울하거나 슬플 때가 있다
7. 나는 요즈음 가슴이 두근거린다
8. 나는 별 이유 없이 잘 피로하다
9. 나는 안절부절 못해서 진정할 수가 없다
10. 나는 자주 무력감을 느낀다 (Blatt 등, 1976; 우울척도)
11. 지금의 내 모습과 이상적인 내 모습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12. 자주, 나는 다른 사람들을 실망시켜 왔다고 느낀다
13. 평소에 아무렇지도 않던 일들이 귀찮게 느껴졌다 (Beck, 1979; 우울)
14. 내가 하는 일에 집중하기 어려웠다
15. 나의 삶은 실패였다고 생각했다
16. 외롭다고 느꼈다
17. 의욕을 잃었다
18.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열등하다고 느꼈다
19. 장래에 대한 비관적인 생각을 가졌다
20.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별로 없는 것 같다 (Cull & Gill, 1988; 자살위험성)
21. 계속 살아갈 만큼 세상에 가치가 없다고 느껴진다
22. 이런 식으로 사는 것보다는 죽는 것이 덜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느껴진다
23. 일이 잘되어 가리라는 희망이 거의 없다
24. 다시 시작한다면 지금처럼 살지는 않을 것이다
25. 감당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
26. 자주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 (Beck 등, 1979; 자살생각)
27. 내가 살아있지 않는 편이 차라리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Reynolds, 1987; 자살생각)
28. 나는 걱정을 많이 한다(R) (Reynold 등, 1978; 불안척도)
29. 나는 걱정을 많이 한다
30. 나는 만족스럽다 (Spielberg, 1975; 불안)
31. 나는 행복하다
32. 세상이 온통 내 것 같다 (Kozma & Stones, 1980; 행복감척도)
33. 나의 삶에 만족한다
34. 희망찬 (Lubin 등, 1997; 심리적 안녕감척도)
35. 나는 일상생활에서 항상 즐거움을 느낀다 (양명환, 1998; 심리적 행복감)
36. 나는 항상 모든 일에 만족감을 느낀다
37. 나는 모든 일에서 편안함을 느낀다
38.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다

〈표 II-15〉 성취동기 및 목표지향성의 하위영역 (1차 선정문항)

하위영역	측 정 문 항
성취동기 및 목표지향성	1. 나는 내가 세운 학업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 (김의철, 박영신, 1999; 성취동기)
	2. 나는 내가 가치있다고 생각하는 일에 대해 최선을 다한다
	3. 내가 한 일을 부모님께서 자랑스럽게 생각하실 수 있도록 노력한다
	4. 주위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일에 더욱 최선을 다한다
	5. 내가 어떤 일을 맡아야 할 때는 아주 잘 하고 싶다 (유창열, 1986; 성취동기)
	6. 나는 필요하다면 어려운 일도 숙달될 때까지 계속 노력한다
	7. 기술이나 능력을 필요로 하는 일을 좋아한다
	8. 나에게 어려운 일을 준다면 정답을 찾는 노력을 즐기겠다
	9. 나는 하는 일에 최선을 다 해보고 싶다
	10. 남들보다 어려운 일을 좀 더 잘하고 싶다 (황정규, 1984; 성취동기)
	11. 어떤 직업이나 전문분야에서 인정받는 권위자가 되고 싶다
	12. 내가 학교공부를 하면서 비록 많은 실수를 한다고 해도, 나는 학교공부를 하는 것이 좋다 (Midgley 등, 1998; 목표지향성 검사)
	13. 내가 수업 내용을 공부하는 중요한 이유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14. 수업 내용 중에서 나를 깊이 생각하게 하는 내용들이 좋다
	15. 나는 수업에서 배우는 내용에 대해 더 잘 알기 위해서 공부한다
	16. 수업에서 내가 다른 학생들에 비해 더 잘한다는 것은 나에게 매우 중요하다
	17. 나는 스스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공부했다고 생각되면 기분이 좋다 (Ames & Archer, 1988; 목표지향척도)
	18. 나를 포함해서 누구나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면 지금보다 더 똑똑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19. 나는 성적이 어떻게 나왔는지 보다는 학교에서 공부한 내용을 내가 이해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
	20. 어렵거나 도전적인 문제를 풀려고 애쓰는것은 재미있는 일이다 (김아영, 1997; 학구적 실패내성 척도)
	21. 나쁜 점수를 받으면, 마음을 잡고 열심히 공부하려고 결심하곤 한다
	22. 학교에서 배운 내용 가운데 이해되지 않은 부분은 누구에게든지 물어서라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김용래, 1993; 학교학습동기척도)
	23. 나는 공부하는 것을 삶의 한 부분으로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한다
	24. 내가 공부하지 않으면 스스로 부끄럽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한다 (Hayamizu, 1997; 동기척도)
	25. 나는 운동(공부)하는 것을 좋아한다 (Ryan, 1982; 내적동기척도)
	26. 나는 운동(공부)에 많은 노력을 한다
	27. 운동(공부)를 할 때 몸과 마음이 매우 느긋해 진다

(2) 문항선정결과

1차적으로 선정된 문항은 다시 관련 전문가와 연구진의 회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자아개념 4문항, 행복감 5문항, 성취동기 5문항을 선정하였다. 문항 선정의 주요 준거는 각 하위 영역의 개념을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문항과 여러 척도들에서 공통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을 포함한 문항을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원래 척도에서 사용된 문항의 표현 방식과 용어에 대해 약간의 수정이 있었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문항은 <표 II-16>, <표 II-17>, <표 II-18>과 같다.

<표 II-16> 자기개념의 하위영역과 측정문항

하위영역	측 정 문 항
자기개념	1. 나는 나에게 맡겨진 일(학업)을 잘 수행한다
	2. 나는 나의 외모에 만족한다
	3.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중요한 사람이다
	4. 나는 나의 성격에 만족한다

<표 II-17> 행복감의 하위영역과 측정문항

하위영역	측 정 문 항
행복감	1. 나는 행복하다
	2. 나는 걱정(고민)이 많다
	3. 나는 즐겁다
	4. 나는 살고 싶지 않다
	5. 나의 미래는 희망적이다

〈표 II -18〉 성취동기의 하위영역과 측정문항

하위영역	측 정 문 항
성취동기	1. 나는 분명한 나의 인생 목표를 가지고 있다
	2. 나는 지금 무엇인가 달성해야 할 목표를 가지고 있다
	3. 어떤 직업이나 전문분야에서 인정받는 권위자가 되고 싶다
	4. 나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한다
	5. 어려운 일을 남들보다 좀 더 잘 하고 싶다

2) 인지적 특성 영역

(1) 문항선정절차

청소년의 인지적 특성의 지표문항을 개발하기 위한 문항선정 절차는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지적 특성에 대한 개념정의 및 핵심영역을 선정하였다.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인지적 특성을 인지적 측면에서 청소년들이 갖추어야 할 능력, 재능, 태도의 복합체로 정의하고, 청소년개발지표의 6대영역간 비교를 통해 인지적 특성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핵심능력으로 창의성, 문제해결능력, 자기주도학습준비도를 하위범주에 포함하기로 결정하였다.

둘째, 선행연구고찰을 통해 인지적 특성 관련 검사도구를 분석하였다. 창의성과 관련해서는 창의성 성향검사와 관련된 검사도구를 광범위하게 수집하였으며, 문제해결능력은 한국교육개발원(2003)에서 국가수준 생애능력 표준설정과 관련하여 청소년의 문제해결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검사도구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자기주도학습준비도는 Guglielmino(1977)가 개발한 SDLRS-E 척도, West와 Bentley(1990)의 자기주도학습준비도 검사도구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셋째, 인지적 특성 부문의 1차 지표문항을 분류하고 선정하였다. 2차 자문회의를 통해 앞단계에서 수집된 각 문항들중 인지적 특성의 3개 핵심능력에

가장 잘 부합되는 문항들을 분류하였다. 그리고, 하위요인별로 분류된 문항들의 수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하위요인의 개념적 부합성에 기초하여 대표 문항을 선정하여 문항을 축소하였다. 각 하위요인별로 선정된 문항수는 창의성에 7개 문항, 문제해결능력에 6개 문항, 자기주도학습준비도에 5개 문항으로 총 18개 문항이 분류·선정 되었다.

넷째, 전문가를 대상으로 선정된 문항의 내용타당도를 검증하였다. 문항별 내용타당도 검증을 위해 하위요인별 전문가 8명을 대상으로 자문을 의뢰하였으며, 요인부합성, 측정가능성, 정책적 시사성을 중심으로 문항을 수정하여 최종적으로 측정문항을 선정하였다.

(2) 문항선정결과

① 창의성

창의성 성향검사는 독립심, 호기심, 독특함, 상상력, 집착성, 개방성, 직관 등 7개의 하위영역별로 1개 문항씩 총 7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독립심은 타인을 의식하고, 권위를 수용하기 보다는 독자적,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성향을 의미하며, 호기심은 보지 않고 하지 않았던 것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성향을 의미한다. 독특함은 빈도가 낮고, 다른 것과 구별되는 것을 나타내는 성향을 의미하며, 상상력은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일에 대해 생각하는 성향을 의미한다. 집착성은 일을 끝까지 완수하려 하고, 열정적으로 노력하는 성향이며, 개방성은 대중적이지 않을 것을 받아들이고 규범을 싫어하는 성향을 의미하고, 직관성은 자료에 의존하기보다는 개념에 의존하여 지각하고 행동하는 성향을 의미한다. 창의성 측정을 위해 선정된 7개 하위영역별 문항은 <표 II-19>와 같다.

<표 II-19> 창의성의 하위영역과 측정문항

하위영역	측 정 문 항
독립심	1. 나는 윗사람의 지시에 그냥 따르기 보다는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기를 좋아한다
호기심	2. 나는 항상 무언가를 알고 노력한다
독특함	3. 나는 특이하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상상력	4. 나는 상상하는 것을 좋아한다
집착성	5. 나는 아무리 힘들어도 하던 일은 끝을 낸다
개방성	6. 나는 틀에 박힌 대로 행동하는 것을 싫어한다
직관성	7. 나는 직관(직감)에 의한 판단을 중요시 한다

② 문제해결능력

문제해결능력 검사는 목표인식, 원인분석(정보수집, 분석능력), 의사결정, 계획시행, 평가/피드백 등 6개의 하위영역별로 1개 문항씩 총 6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목표인식은 문제의 명료화 정도를 의미한다. 원인분석은 문제상황을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한 정보수집과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는 분석능력으로 구분하여 문항을 선정하였다. 의사결정은 문제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해결방안 중 최정의 방안을 결정하는 것을 말하며, 계획시행은 선택된 방안을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평가/피드백은 수행한 행동의 결과를 목표와 비교하여 수정보완하는 것을 말한다. 문제해결능력 검사를 위해 선정된 6개의 하위영역별 문항은 <표 II-20>과 같다.

<표 II-20> 문제해결능력 검사의 하위영역과 측정문항

하위영역	측 정 문 항
목표인식	1. 나는 문제가 생길 때, 문제해결을 위해 문제의 핵심이 무엇 인지를 먼저 생각한다
정보수집	2. 나는 문제가 생길 때, 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한다
분석능력	3. 나는 문제가 생길 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의 원인을 분석한다
의사결정	4. 나는 의사결정을 잘 못해서 후회한 적이 많다
계획시행	5. 나는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도 한번 하기로 한 문제는 끝까지 해결한다
평가/피드백	6. 나는 나의 문제해결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충고를 부탁한다

③ 자기주도학습준비도

자기주도학습준비도 검사는 학습에 대한 열망, 학습자로서의 자기확신, 도전에 대한 개방성, 호기심 성향, 학습자로서의 자기이해 등 5개의 하위영역 별로 1개 문항씩 총 5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자기주도학습 준비도 검사를 위해 선정된 5개 하위영역별 문항은 <표 II-21>과 같다.

〈표 II -21〉 자기주도학습준비도의 하위영역과 측정문항

하위영역	측 정 문 항
학습에 대한 열망	1. 나는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
학습자로서의 자기확신	2. 나는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 무엇이든지 배울 수 있다
도전에 대한 개방성	3. 나는 다른 사람과 아이디어에 관해 토론하기를 좋아한다
호기심성향	4. 나는 결과에 상관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기를 좋아한다
학습자로서의 자기이해	5. 나는 지금 내가 무엇을 배워야 할지를 알고 있다

3) 사회적 역량 영역

(1) 문항선정절차

2004년도에 수행된 『청소년개발지표 개발연구』(한국청소년개발원, 2004)에서 밝힌 결과부문 6대 지표 영역을 함께 검토하였다. 자문회의를 통하여 이전 연구에서 ‘청소년의 사회적 역량’ 부문이 나머지 5개영역과 비교되었는데, 영역간의 중첩되는 부분을 고려하고 다른 영역에 비해 사회적 역량 지표영역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내용과 특징들이 논의되었다. 다른 지표 영역과는 달리 사회적 역량은 ‘능력적 요소’와 더불어 태도 및 규범적 요소들이 포함되어야 하는 다차원적 개념이라는데 일치하였다. 그래서 능력적 요인으로 ‘사회적 기술’, 태도 요소로 ‘사회적 신뢰감’ 그리고 규범적 요소로 ‘친사회적 성향’을 포함시키기로 결정하였다.

먼저, 사회적 역량 관련 지표 문항 자료를 수집하였다.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결정된 세부 하위영역별로 그 개념에 가장 잘 부합할 것으로 여겨지는 기존의 문항들을 수집하는 절차를 거쳤다. 주로 사회심리학 분야에서 사회적 태도, 대인관계지각, 친사회 성향, 도덕 규범의식 등과 관련된 척도들을 광범위하게 수집하였다. 다음은 연구자가 자료수집과정에서 참조하였던 문

현들이다.

전문가의 자문을 통하여 앞 단계에서 수집된 각 문항들이 사회적 역량의 세 하위 개념들 중 어떤 개념에 가장 잘 부합하는 문항인지를 분류하였다. 각 하위요인별로 분류된 문항들의 수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를 선별하는 작업도 수행하였다. 문항 분류와 문항 선정의 기준은 개별 문항의 해당 하위요인의 개념에 대한 ‘개념적 부합성’이었다. 각 하위요인별로 10개씩의 총 30 문항이 분류·선정되었다.

끝으로, 이전 단계에서 선정된 문항의 수가 많았고 또한 각 문항의 내용 타당도를 검증할 필요성과 더불어 6대 영역간의 문항 중첩성과 변별성을 확인하고 조정하여 2차 문항을 선정하였다.

(2) 문항선정결과

각 영역별로 1차 선정한 문항들을 하나의 지표체계 속에 모두 포함하기에는 그 수가 너무 과다하므로 통합적으로 조사 가능한 수준을 고려하여 각 결과지표의 하위영역별로 최대 5개 문항만을 선정하였다. 따라서 사회적 역량의 경우 3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으므로 총 15개 문항이 선정되었는데, 그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정책적 시사성: 청소년 개발 지표 문항은 심리적 구인을 측정하기 위한 목적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심리학적 구인의 측정을 위한 문항들은 가급적 세부적인 행동적 지표를 지향한다. 그리고 그 문항들은 개별적인 의의보다는 총괄되었을 때 의의를 가진다. 하지만 정책적 지표를 반영하는 지표문항들은 심리학적 구인을 측정하기 위한 심리 측정적 문항과는 달리 개별 문항 자체의 정책적 활용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총괄 조사가 가능하도록 각 요인별 해당 문항수를 대폭적으로 줄였기 때문에 각 문항이 독립적으로 함축하는 정책적 시사성의 고려는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각 요인 내에서 문항간의 수렴성도 고려되었다.

② 측정 가능성: 문항이 아무리 정책적 의의를 가진다 하더라도 질문 형태나 내용이 청소년들이 응답하기에 적절치 않게 되면, 그 질문에 대해 기대하는 응답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응답에 필요한 조사 대상자의 인지적 능력, 문항의 명료성, 가독성 등이 측정 가능성의 세부 준거로 적용되었다.

③ 요인 부합성: 본 연구에서 지표문항의 개발은 탐색적 과정보다는 개념적 논리성에 근거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에, 요인의 경험적 타당도를 검증하기에 앞서서 각 지표 영역별 그리고 각 영역내 요인별로 정의된 개념에 각 개별 지표문항이 얼마나 지표로서 잘 부합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있었다. 먼저 전문가들의 자문을 얻어 1차 문항을 설정한 후, 타영역, 특히 시민적 역량 영역과의 중복을 제거하고, 연구진 및 자문진의 의견에 따라 문항을 삭제 또는 수정하였다. 그리고 이 과정 뒤에 다른 요인에 비해 선정된 문항수가 현저히 적을 경우에는 각 연구자들이 제시한 전체 문항 풀에서 타당성이 있는 문항을 재선정하거나 혹은 새로이 문항을 개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다단계에 걸친 문항 선정 과정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선정된 문항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II-22> 친사회성의 하위영역과 측정문항

하위영역	측 정 문 항
친사회성	1 나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보면 다른 생각을 하기에 앞서 우선 도움 방도부터 생각한다
	2 나는 다른 사람의 생명이 위험할 경우, 내가 다소 위험하더라도 기꺼이 도울 것이다
	3 나는 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다소 타인에게 해가 되더라도 신경쓰지 않는다
	4 나는 남들로부터 무례하다는 말을 들을 때가 있다
	5 돈을 버는 방법을 두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표 II-23〉 사회적 신뢰감의 하위영역과 측정문항

하위영역	측 정 문 항
사회적 신뢰감	1 길거리에서 내가 위험이나 곤경에 처했을 때 누군가가 나를 도울 것이다
	2 주변에 믿고 의지할 만한 사람 수가 점점 더 적어지는 것 같다
	3 우리 사회는 대체로 공정한 사회인 것 같다
	4 잘 모르는 사람과 사귀거나 거래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5 요즘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이미 가진 것도 남에게 빼앗길 수 있다

〈표 II-24〉 사회적 기술의 하위영역과 측정문항

하위영역	측 정 문 항
사회적 기술요인	11 나는 아무리 낯선 사람이라도 쉽게 말을 건넌다
	12 나는 동료들로 하여금 서로 협력하도록 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13 나는 친구 간의 서먹서먹한 관계를 부드럽게 할 수 있다
	14 나는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을 피한다
	15 나는 친구들간의 갈등관계를 잘 해결할 수 있다

4) 시민적 역량영역

(1) 문항선정절차

먼저 1997년 국정홍보처에서 실시한 ‘2003 국제시민의식 비교조사’를 살펴보면, ‘시민의식’의 하위구성요소는 공동체의식(국가관), 준법의식, 참여의식, 탈권위의식(평등의식), 권리의식, 대화/타협의식, 소비의식, 직업의식, 부에대한 의식, 인류애(세계화)의식, 약자에 대한 보호의식, 환경의식으로 분류

되어 있다. 특히 이 조사는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 나라들(일본, 독일, 미국, 영국, 이탈리아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조사항목의 선정이나 이후 연구결과의 비교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조사항목들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1995년과 2001년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된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에 사용된 ‘시민의식’관련 조사에서는 시민의식의 하위영역을 “사회적 신뢰”, “정치참여”, “집단속의 개인”, “경제관”으로 구분하여 각 영역에 다양한 문항들을 측정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사용된 문항들은 다음과 같다.

앞에서도 언급되었지만, 시민의식에 관한 연구에서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영역은 바로 ‘세계화 의식’ 혹은 ‘국제화의식’이다. 1994년 ‘청소년의 국제화 의식에 관한 조사’에서는 청소년들의 국제화(개방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국제문제’, ‘해외여행’, ‘해외유학’, ‘외국어 필요성’,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태도’등을 측정도구로 사용하였다. 1996년 실시된 ‘청소년 생활실태 및 의식에 관한 여론조사’에서는 청소년들의 ‘시민의식’관련 내용을 측정하기 위하여 ‘국제화의식’, ‘공동체의식’, ‘권리의식’, ‘경제관’등을 하위영역으로 설정하였다. 또 1994년 실시된 ‘청소년의 생활의식 및 가치관에 대한 조사’에 사용된 ‘시민의식’관련 하위영역들은 ‘국가의식’, ‘경제의식’, ‘약자보호의식’을 하위영역으로 구분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2003년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실시된 ‘국가수준의 생애능력 표준설정 및 학습체제 질 관리방안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시민의식을 생애능력 형성의 관점에서 볼 때 현대사회에 반드시 요구되는 역량으로 제시하고 있다. 청소년 집단을 대상으로 한 조사라는 점에서 본 연구와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시민의식의 하위구성요소는 ‘국가정체성’, ‘신뢰 및 가치공유’, ‘권리 및 책임의식’, 그리고 ‘참여의식’으로 분류하였으며 국가정체성 범주는 다시 국가의식과 민족의식으로 나누어지며, 전자에는 국방의 의무, 국산품애용 및 국산시장보호, 이중국적문제, 국기에 대한 태도, 국가에 대한 애국심과 존경의식, 한글 및 영어에 대한 태도, 이중국적 문제 등을 행동지표로 설정하였고, 후자는 역사에 대한 자부심과 역사에 대한 열등감을 행동지표로

설정하였다.

두 번째 신뢰 및 가치공유는 다시 신뢰와 기회균등 및 민주적 가치와 다양성으로 구분되고 신뢰의 행동지표는 정부관련기관 및 공직자에 대한 신뢰, 지역사회 및 매스미디어에 대한 신뢰, 학생-학부모-교사간의 신뢰가 제시되었고, 기회균등에는 남성과 여성의 역할에 대한 태도, 평등원칙에 대한 태도가, 민주적 가치와 다양성에는 비민주적 절차에 대한 허용,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태도 등이 포함되었다.

셋째, 권리 및 책임의식은 준법의식, 도덕성과 양심으로 나뉘어 전자에는 법질서의식, 공공질서의식이, 후자에는 부정부패에 대한 태도, 사회적 도움, 양심적 행위가 행동지표로 제시되었다. 마지막으로 참여의식은 보수적/사회변혁적 참여와 지역사회참여로 다시 구분되어, 전자에는 정당참여, 투표, 저항의식, 환경활동참여가, 후자에는 이웃 및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 봉사활동, 환경보호, 희생정신이 각각 포함되었다.

마지막으로 2004년 한국종합사회조사(KGSS)에서는 2004년 국제사회조사 프로그램(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 이하 ISSP)의 ‘citizenship’ 조사 모듈과 연동하여 조사를 수행하였다. 비록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회조사이긴하나 조사기관의 권위나 조사의 엄정성, 그리고 국제비교의 용이함 등을 고려할 때 청소년의 시민의식지표 개발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서 사용된 시민의식의 하위영역은 ‘시민이 생각하는 시민적 덕목’, ‘시민의 권리’, ‘공적영역에 대한 관심’, ‘참여의 방식과 적극성’으로 구분되었으며 이는 ISSP의 2004년 ‘citizenship’ 모듈로서 전 세계 39개국에서 동시에 실시되었다.

지금까지 시민의식 조사와 연구에 이용된 항목들을 앞서 제시된 목표와 방법으로 구분된 네 가지 영역별로 분류하면 <표 II-25>와 같다.

〈표 II-25〉 시민의식의 하위영역 및 조사문항 비교

	연구 11 ¹⁾	연구 2 ²⁾	연구 3 ³⁾	연구 4 ⁴⁾	연구 5 ⁵⁾	연구 6 ⁶⁾
인간 존엄성	약자보호의식		인간존엄, 소수권리			
공동체/국가	공동체/국가		국민 주권	공동체/국가		
민주적 권리/책임	준법/권리		자유,평등, 다수결	준법,정치효능,정치신뢰, 사회참여		
합리적 의사결정	대화/타협.세계의식		개인주의,관용,비판과 타협	관용	주민성,세계성	국제적의식

	연구 7 ⁷⁾	연구 8 ⁸⁾	연구 9 ⁹⁾
인간 존엄성	약자보호의식 -내가세금을 더내더라도 사회복지예산을 늘려야한다 -자선단체에 돈을 기부할 의사가 있다. 나는 장기를 기증할 의사가 있다 나는항상노약자나장애인에게자리를 양보한다.		
공동체/국가	공동체/국가 -나라를 위해서라면 나 자신의익은 희생되어도 좋다 -나라가 잘되는 것이 내가 잘되는 것이다. -나는 사적인 일보다 공적인 일을 중시한다. -우리 동네에 공식행사가 열리면 반드시 참석하겠다. -나는 동네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편이다.		공동체 -인생에서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당연하다. -여러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는 내가 손해를 볼 수도 있다.
민주적 권리/책임	준법 -공공 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를 보다 강력하게 단속해야한다. -나에게 불편을 주는 법규라도 지켜야한다. -천구라도 불법적인 일을 하면 신고하겠다. 권리 나는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찾으려고 노력한다 나는 정부의 부당한 행정 처리에 맞서려고 노력한다. -나는 공공기관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항의하곤 한다.	참여 -정치에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 -투표권의 행사를 매우 중요하므로 각종 선거의 투표는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권리의식 -내 주장이 옳다고 생각되면 상대가 누구라도 분명하게 나의 의사를 전달한다.
합리적 의사결정	탈권위 -우리사회에서는 강력한 지도자가 필요하다 -윗사람에게 무례하게 구는 것을 용서해서는 안된다 -어릴 때부터 어른에게 복종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사적인 자리에서도 상급자는 상급자이다. 대화/타협의식 -어떤 경우에도 대화와 타협으로 일을	경제관 -물건을 살 때 요모조모 꼼꼼히 살펴본다. -쇼핑을 가기 전에 쇼핑품목을 미리 정한다. -물건을 살 때 여러 상점을 둘러보며 가격을 비교한다. -백화점이나 시장에서 마음에	균형잡힌 국제관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므로 세계화 시대에 대비하여 우리 고유의것을 발전시켜야 한다. -우리것 남의 것을 구분하기 보다는 외국 것이라도 좋은 것은 좋다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치적 이해가 다르더라도 공동의 목표를 위해 타협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는 편이다. -나는 가능하면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한다. 소비의식 -내가 가진 물건이 공장나면 고쳐가며 사용한다. -나는 물건을 살 때 품질을 꼼꼼히 따져서 산다. -나는 어려울 때를 대비해 수입의 상당부분을 저축한다. -나는 매달 지출한 내용을 꼼꼼히 적는다.	드는 물건이 있으면 충동 적으로 사는 편이다. -상품을 구입한 후 별로 쓸모가 없거나 실증을 느끼고, 후회하는 경우가 많다.	경제관 -요즘 사회에서 성공한다는 것은 부자가 되는 것이다.
--	---	---	---

	연구 10 ⁽¹⁰⁾	연구 11 ⁽¹¹⁾	연구 12 ⁽¹²⁾	연구 13 ⁽¹³⁾
인간 존엄성		약자보호 -집안이 가난한 사람도 대학에 다닐수 있도록 사회가 도와주어야 한다	다양성존중 -외국인 근로자들은 우리사회에서 다른 사람들이 가진 권리와 똑같은 권리를 모두 가져야만 한다.	
공동체/국가		국가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개인을 희생시켜서는 안된다. -귀하께서는 한국인으로 태어난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하께서는 조상들이 남긴 문화 유산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하께서는 우리나라의 통일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정체성 -만일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귀하가 외국에 있다면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생산품을 사야한다. -미국시민권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국적을 포기하였습니까. 귀하라면 어떻게 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의 국기는 나에게 중요하다 -애국가가 들릴때 귀하께서는 어떤 느낌을 갖습니까 -나는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이 한글보다는 영어를 더 많이 사용하도록 국가가 제도적으로 지원하면 좋을것 같다. -다른 나라에 가서 살고 싶다.	국방
민주적 권리/책임			기회균등 -가족의 생계문제는 남자가 책임져야 한다. -여자가 잘 되는 길은 자신의 성공보다는 남편을 잘 도와서 성공시키는 것이다. -남녀가 함께 일하는 직장 부서의 책임자는 남자가 맡는것이 좋다 -사람들은 재산이나 능력에 관계없이 동등한 대접을 받아야 한다. 권리 및 책임의식 -부정부패를 목격해도 나에게 손해가 안된다면 나는 모른채할것이다. -내 사정이 있다면 버스나 전철에서 어른이나 노인께 반드시 자리를 양보할 필요는	시민의권리 -모든 국민이 적정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것 -정부가 소수자 집단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는것 -정부가 모든사람을 지위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대하는것 -정치인들이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국민의 의견을 참작하는것 -공공정책을 결정할 때 국민에게 많은 참여기회를 주는것 -정부가 하는 일에 반대할 경우 시민들이 불복종운동에 참가할 수 있는것 -만약 국회가 공정하지 못하거나 사회에 해롭다고 생각되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이에 대해 귀하는 혼자서 또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무엇인가를 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높습니까?

			없다고 생각한다. -나는 아무도 보지 않으면 법질서를 지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나는 공공시설을 이용할때 급한 사정이 있는 차레대로 지키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많은 사람이 있는 백화점,전철안에서 핸드폰을 사용해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수업시간에 핸드폰을 사용해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종교적 극단주의자들의 공개집회를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힘으로 정부를 전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공개집회를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인종이나 민족에 대하여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공개집회를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참여의 방식과 적극성 -진정서에 서명하기 -정치적,윤리적 또는 환경적 이유로 어떤 상품을 불매하거나 사주기 -시위에 참가하기
합리적 의사결 정	국제화의식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세계적인 것이므로 세계화 시대에 대비하여 우리 고유의 것을 발전시켜야 한다. -우리 것 남의 것을 구분하기 보다는 외국 것이라도 좋은 것은 좋다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	경제관 -보람있는 일을 할수 있다면 돈을 많이 벌지 못하는 직업이라도 택하는 것이 좋다 -귀하께서 구입하고 싶은 가운데 국산품과 수입상품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 1) 정성호(2002), 2) 배한동(2001) , 3)김광명(1997), 4) 김영인(2005), 5) 이승중(1997), 6) 유종렬(1996), 7) 국정홍보처(1997), 8) 국정홍보처(2001), 9) 서울특별시(1996), 10) 서울특별시(1994), 11) 국정홍보처(1994), 12) 김영수(2001), 13) 석현호 외(2004)

(2) 문항선정결과

최종문항단계에서는 몇 가지 이슈들이 제기되었다. 첫째, 그간의 연구나 조사들이 대부분 일반인(성인)을 대상으로 실시된 것을 감안 할 때, 시민의식의 하위구성요소나 조사문항들과 청소년의 연령적 특수성을 어떻게 함께 고려할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예를 들어 시민의식 가운데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묻는 질문에 납세에 관한 문항이 있을 경우 아직 청소년기에 있는 응답자들의 이해도(Literacy)가 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는 문항선택 단계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기술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시민의식의 하위구성요인으로 설정된 공동체/국가부분에서 민족의식이나 국가의식은 세계화의식과 일정 상충하는 부분이 있음이 연구진들의 논의과정에서 발견되었다. 즉 민족의식은 자칫 잘못 해석되면 국수적이고 폐쇄적인 자민족우월주의로 이해 될 수 있으며 이는 세계화 시대에 요구되는 합리적 시민의식이라고는 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국가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는 국가의식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논의의 결과 민족의식과 국

가의식 대신 공동체 의식, 즉 공익을 위하는 정신을 강조하는 경우 세계화 의식과 논리적 마찰을 없앨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셋째, 시민의식의 하위구성요인으로 설정된 인간존엄은 청소년집단의 연령적, 사회적 특수성을 감안할 때, 청소년의 인권의식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문항이 선정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여기서 청소년인권의식이란 청소년으로서 가지는 사회적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인권과 관련된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들에 대한 청소년 집단의 의식을 말하는 것이다.

넷째, 근대민주주의는 자본주의적 경제질서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라는 전제하에서 청소년의 경제적 합리성은 건강한 시민의 중요한 덕목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연구진들에 의해 제기 되었다. 특히 현재 한국민들의 부에 대한 인식을 고려할 때 청소년들의 경제관, 부에 대한 인식, 기업가에 대한 인식은 정책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이슈임에 틀림없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들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청소년의 연령적 특수성을 감안할 때, 민주사회의 시민에게 요구되어지는 일반적인 책임, 예를 들어 납세, 국방 등은 현실적 이해도가 떨어질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는 권리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논의결과 민주시민의 책임은 청소년들에게는 다소 현실적합성이 떨어지며 권리의 경우는 정치적 권리나 경제적 권리 보다는 사회적 권리(social rights), 즉 복지권에 대한 청소년의 의식을 묻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이상의 이슈들을 중심으로 연구진들의 회의를 거친 결과 시민의식의 하위 구성요소는 기존의 ‘인간존엄’, ‘공동체/국가’, ‘민주적 권리와 책임’, ‘합리적 의사결정’에서 ‘청소년 인권의식’, ‘공동체 의식’, ‘국가와 책임’, ‘국제화의식’으로 설정되었고 각각의 하부요인들에서 선정된 문항들은 <표 II-26, 27, 28, 29, 30>과 같다.

〈표 II-26〉 청소년 인권의식의 하위영역과 측정문항

하 부 영 역	측 정 문 항
청소년인권의식	1. 사람들은 재산이나 능력에 관계없이 동등한 대접을 받아야 한다 2. 외국인 근로자들도 우리와 똑같은 권리를 가져야 한다 3. 교육적인 차별은 있어야 한다 4. 우리와 같은 청소년들도 선거권을 가져야 한다

〈표 II-27〉 공동체의식의 하위영역과 측정문항

하 부 영 역	측 정 문 항
공동체의식	1. 나는 사적인 일보다 공적인 일을 중요시 한다 2. 나라의 발전이 나의 발전이다 3. 나는 가능하면 외국에 나가 살고 싶다 4. 나는 국가의 어떠한 위기가 닥치더라도 피하지 않겠다 5. 필요하다면 내가 사는 지역에 혐오시설(예를 들어주고) 들어와도 좋다

〈표 II-28〉 국제화의식의 하위영역과 측정문항

하 부 영 역	측 정 문 항
국제화의식	1. 다른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지구공동체의 일원으로 적극적인 원조가 필요하다 2. 외국의 것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3. 우리것/남의것을 구분하기 보다는 외국것이라도 좋은 것은 인정하고 받아 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

〈표 II-29〉 국가의 책무의 하위영역과 측정문항

하 부 영 역	측 정 문 항
국가의 책무	1. 교육부문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어느 정도 되어야 하는가 2. 의료부문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어느 정도 되어야 하는가 3. 주택부문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어느 정도 되어야 하는가 4. 일자리 부문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어느 정도 되어야 하는가

〈표 II-30〉 소비 및 경제의식의 하위영역과 측정문항

하 부 영 역	측 정 문 항
소비 및 경제의식	1. 물건을 살 때 그 물건이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인지를 확인한다 2. 장래에 나는 취직을 하기 보다는 나만의 사업을 하고 싶다 3. 우리사회에서 부자란 대부분 법과 규범을 지켜서 재산을 모은 사람들이다 4. 성공한 기업가는 사회적으로 존경받아야 한다 5. 우리 사회에서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

5) 진로·직업 역량 영역

(1) 문항선정절차

본 연구는 2004도에 수행된 「청소년개발지표 개발 연구」(한국청소년개발원, 2004)의 후속연구로서 결과지표에 해당하는 6대 지표영역 가운데 직업적 역량 부문의 측정 가능한 문항을 개발하는 연구이다. 따라서 2004년도에 수행된 ‘직업적 역량’의 개념과 하위 영역에 대해 전문가협의회를 통하여 집중적으로 검토하였다. 그 과정에서 직업적 역량이라는 개념이 지나치게 고용가능성을 나타내는 직업능력의 의미로 한정되어 이해될 수 있으며, 또한 청소년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취업능력을 측정하는 지표이어야 하는 문제점

이 제기 되었다. 이는 두 가지 점에서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지표의 성격에 맞지 않았다. 첫째는 청소년 개인이 가지고 있는 취업능력을 측정하는 지표 개발이 과연 가능한가라는 현실적 문제였다. 그리고 청소년 개인의 취업능력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 본 지표개발의 목적도 아니다. 둘째는 본 연구를 통해 개발하고자 하는 국가수준의 「청소년개발지표」는 다양한 측면에서의 청소년들의 성장과 발달 상황을 진단·점검하는 종합지표적 성격이기 때문에 직업적 역량처럼 특정 한 영역에 많은 문항 수를 배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직업적 역량’을 ‘청소년들이 자신의 진로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태도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으며, 실질적으로 진로탐색이나 준비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성격을 전환하여 영역의 명칭을 ‘진로·직업 역량’으로 바꾸었다. 새롭게 개념화된 ‘진로·직업 역량’을 측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표를 만들어내기 위하여 먼저 어떻게 범주화 할 것인가를 검토하였다. 진로·직업 역량의 범주화는 본 개념이 청소년들의 진로선택 및 준비와 관련된 태도 형성과 실제적인 진로탐색 및 준비 행동에 대한 노력을 의미한다는 관점에서 진로발달과 유사한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따라서 진로발달과 관련된 국내외 검사도구 및 지표 고찰을 통해 진로·직업 역량의 범주화를 시도하였다. 다양한 국내외 진로발달 검사 및 지표를 고찰한 결과 크게 자아인식 영역, 학업 및 직업탐색 영역, 진로계획 영역으로 범주화가 가능하였으나 이 가운데 「청소년개발지표」의 다른 5가지 영역과 중복이 될 수 있는 내용(자아인식의 자아개념 및 대인관계인식, 성장변화 인식과, 학업 및 직업탐색 영역의 성취 인식과 평생학습인식, 그리고 진로계획의 의사결정과정 이해)과 중·고등학교 청소년들의 발달단계를 고려할 때 적합하지 않은 내용 등을 제외하였다. 아울러 진로·직업 역량의 발달에 관한 대표적 이론인 Super와 Ginzberg의 진로발달이론을 참고하여 진로·직업 역량의 범주를 크게 진로의식, 진로탐색, 진로계획 및 준비로 설정하였다.

진로의식은 진로발달의 대표적인 하위 영역으로 간주되는 진로인식(career awareness)과 유사한 개념으로 진로관련 선택과정에서 개인이 형성하게 되는 자기 자신과 일의 세계에 대한 지식, 가치관, 선호경향성, 자아개념 등의 조합 등(Herr & Cramer,1996) 매우 폭넓은 의미를 지닌다. 그런가 하면, 다른 측면에서는 진로발달의 한 측면 태도 측면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정의되기도 하는데, 진로발달 태도를 구성하는 요인은 앞서 언급한 관련 검사도구 분석에서 알 수 있듯이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다원적인 의미를 지닌 청소년들의 진로의식을 ‘진로선택의 주도성’과 ‘자신의 직업적 특성 이해 정도’로 한정하여 <표 II-31>, <표 II-32>와 같이 지표화하였다.

<표 II-31> 직업특성이해의 측정문항 (1차 선정문항)

하위영역	측 정 문 항
진로선택의 주도성 :진로선택이나 탐색, 결정 등 전반적인 과정에서 자기가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결정을 하는 정도	1.진로 및 직업선택은 스스로 하는 것보다 부모님이나 전문가에게 의지하는 것이 좋다
	2.진로나 직업을 결정할 시기가 되면 내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선택하겠다
	3.진로나 직업을 결정할 시기가 되면 내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선택하겠다
	4.나의 진로는 내가 선택하며 그에 대한 책임도 나에게 있다
	5.부모님이 내게 어떤 특정한 직업을 가지라고 결정해 주기를 원하지 않는다
	6.나에게 적합한 학과나 직업은 나보다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더 잘 안다
	7.나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나름대로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

<표 II-32> 직업적 소질이나 적성의 측정문항 (1차 선정문항)

하위영역	측 정 문 항
직업적 소질이나 적성 등 직업특성 이해 정도 :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직업적 적성이나 소질, 흥미 등을 이해하고 있는 정도	1.내가 잘하는 일이 무엇인지 안다
	2.내가 남보다 잘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여러가지 노력을 했다
	3.나의 장점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4.나의 단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고 있다
	5.내 성격에 대해 잘 알고 있다
	6.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어떤 것들인지를 안다
	7.내가 어떤 일들을 좋아하는지 알지 못한다
	8.내가 열정을 바쳐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9.내 삶에서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

진로탐색은 진로발달 과정에서 진로인식, 진로 계획과 함께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서 ‘진로결정이나 진로발달을 목적으로 자기 자신과 직업세계를 이해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인지적·행동적 활동’을 의미한다(최동선, 2003). 다시 말해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를 찾아내기 위해 직접 자신과 직업세계를 이해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전개를 뜻한다. 본 연구에서는 진로탐색을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을 찾아내기 위한 실질적인 탐색활동 여부와 이를 토대로 실제 선호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으며, 또 그것에 대해 얼마나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정의하였다. 구체적인 진로탐색 영역의 하위 지표는 <표 II-33>, <표 II-34>와 같다.

〈표 II-33〉 직업정보탐색 능력지수의 측정문항 (1차 선정문항)

하위영역	측 정 문 항
직업정보탐색 능력 지수	1.직업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찾는 방법을 잘 알고 있다
	2.진로 및 직업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기관을 찾아가기도 한다
	3.관심 있는 직업에 관한 정보를 찾는다
	4.인터넷을 이용하여 관심 있는 직업에 대한 정보를 알아본다
	5.관심 있는 직업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취업설명회나 직업박람회에 가본 적이 있다
	6.신문이나 잡지 등에서 직업을 소개하는 기사나 자료를 찾아서 유심히 읽는다

〈표 II-34〉 직업선호도의 측정문항 (1차 선정문항)

하위영역	측 정 문 항
직업선호도	1.자신이 가장 갖고 싶은 직업을 쓰세요.
	2.자신이 가장 갖고 싶은 직업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3.그 직업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
	4.요구되는 교육수준
	5.준비과정 및 자격 조건
	6.근무환경
	7.임금
	8.나의 적성과의 일치여부
	9.나의 성격과 일치여부
	10.나의 흥미와 일치여부
	11.나의 가치관과 일치 여부

진로계획 및 준비는 자기 자신과 직업세계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을 토대로 자기만의 고유한 진로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실질적인 계

획 수립과 실천 정도를 의미하는 개념으로 최근 들어 더욱 중시되는 진로발달 과업이다. 아무리 건강하고 주체적인 진로의를 함양하였더라도, 그리고 자신에게 맞는 직업과 진로를 찾기 위해 다양한 탐색 활동을 하였다하더라도, 자신이 선호하는 구체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수립이 부족하거나 이에 대한 준비행동이 뒤따르지 않으면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진로계획 및 준비의 하위영역이 담고 있는 다양한 요소와 내용 가운데 진로목표를 설정하고 있는가, 설정한 진로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진로계획을 수립한 적이 있는가, 그리고 수립한 진로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실질적인 행동을 수행 하였는가 등에 한정하여 지표를 개발하기로 하였다. 특히, 실질적인 진로준비 행동의 경우는 지난 1년간이라는 한정된 시간을 주고 그 기간동안 수행한 행동을 토대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진로계획 및 준비 영역의 구체적인 하위 지표는 다음과 같다.

〈표 II-35〉 진로목표 설정 여부의 측정문항 (1차 선정문항)

하위영역	측 정 문 항
진로목표 설정 여부	1.자신의 진로목표를 가지고 있는가? (4단계)
	2.설정하였다/준비중/설정하지 않았다/생각도 해본적이 없다

〈표 II-36〉 진로계획 수립경험 여부의 측정문항 (1차 선정문항)

하위영역	측 정 문 항
진로계획 수립경험 여부	1.내가 원하는 직업을 갖기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계획해 보았는가? (있다/없다)

〈표 II -37〉 구체적인 진로준비(행동)실행의 측정문항 (1차 선정문항)

하위영역	측 정 문 항
구체적인 진로준비(행동) 실행 여부(예/아니오)	1.지난 1년 동안,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진로(진학/취업)를 위해 열심히 준비하였다
	2.지난 1년 동안, 학교공부 외에 소질과 적성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였다
	3.지난 1년 동안, 방과 후나 방학을 이용해 직업체험을 해 본적이 있다
	4.지난 1년 동안, 원하는 직업에서 요구하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 교육이나 훈련을 별도로 받은 적이 있다
	5.지난 1년 동안, 진로문제를 의논/해결하기 위해 학교나 지역사회의 상담실을 찾은 적이 있다
	6.지난 1년 동안, 나는 자기소개서를 작성해본 적이 있다
	7.지난 1년 동안, 나는 이력서를 작성해본 적이 있다

(2) 문항선정결과

진로발달과 관련된 다양한 국내외 지표 및 검사도구를 토대로 하되, 국가수준의 종합적인 청소년개발지표라는 본 연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시사성이 있고, 측정가능하며 영역별 선정된 하위요인에 경험적으로 부합하다고 판단되는 문항을 중심으로 1차적으로 선정하였다. 1차로 선정한 영역별 하위요인 측정문항에 대한 내용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진로발달 및 직업교육 분야 전문가들로부터 검토를 받았다. 그 결과 전반적으로 하위요인별로 측정 가능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으나 청소년개발지표라는 종합지표의 성격을 고려하여 하위요인별 문항수를 3-4개로 줄이는 것이 활용에 용이할 것이라는 결론에 다달았다. 동시에 진로계획 및 준비 영역의 하위요인으로 선정되어 있는 ‘진로계획 수립 여부’는 진로목표와 중복 될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커다란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어 삭제하였다. 전문가들로부터 내용타당도를 검증 받은 후 수정된 2차 문항은 다음과 같다.

〈표 II -38〉 진로선택의 주도성의 측정문항 (1차 선정문항)

하위영역	측 정 문 항
진로선택의 주도성	1.나의 진로는 내가 선택하며 그에 대한 책임도 나에게 있다
	2.진로나 직업을 결정할 시기가 되면 내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선택 할 것이다
	3.나에게 적합한 학과나 직업은 나보다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더 잘 아신다

〈표 II -39〉 직업적 특성 이해의 측정문항 (2차 선정문항)

하위영역	측 정 문 항
직업적 특성 이해	1.나는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직업)이 무엇인지 안다
	2.나는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직업)이 무엇인지 안다
	3.나는 내가 열정을 바쳐 해야 할 일(직업)이 무엇인지 안다

〈표 II -40〉 직업정보탐색의 측정문항 (2차 선정문항)

하위영역	측 정 문 항
직업정보탐색	1.나는 직업에 관련한 정보를 구하기 위해 전문상담기관이나 학교에서 상담을 받은 적이 있다
	2.나는 홍보물, 팸플렛,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관심 있는 분야의 직업정보를 찾아본 적이 있다
	3.나는 관심 있는 직업분야의 전문가를 만나거나 기관을 직접 방문해 본 적이 있다

〈표 II -41〉 직업선택도의 측정문항 (2차 선정문항)

하위영역	측 정 문 항
직업선택도	1.당신이 선호하는 직업은 무엇이며, 그 직업에서 구체적으로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
	2.선호하는 직업을 갖기 위해 필요한 교육수준이나 자격 조건 등을 알고 있다
	3.선호하는 직업의 근무조건(임금, 근무시간, 직무내용 등)에 대해 알고 있다

〈표 II -42〉 진로목표 설정의 측정문항 (2차 선정문항)

하위영역	측 정 문 항
진로목표 설정	1.당신은 자신만의 진로목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2.선호하는 직업을 갖기 위해 필요한 교육수준이나 자격 조건 등을 알고 있다
	3.선호하는 직업의 근무조건(임금, 근무시간, 직무내용 등)에 대해 알고 있다

〈표 II -43〉 진로준비행동의 측정문항 (2차 선정문항)

하위영역	측 정 문 항
진로준비행동	1.지난 1년 동안, 나는 학교공부 외에 나의 소질과 적성을 살리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였다
	2.지난 1년 동안, 나는 방과 후나 방학을 이용하여 직업체험을 해 본 적이 있다
	3.지난 1년 동안, 나는 진로문제를 의논하거나 해결하기 위해 선생님이나 상담전문가를 찾은 적이 있다

6) 소괄 : 5개 영역 지표체계 및 측정문항

각 영역별 지표 측정 문항은 최종적으로 ‘정의적 특성’ 14개 문항, ‘인지적 특성’ 18개 문항, ‘사회적 역량’ 15개 문항, ‘시민적 역량’ 22개 문항, ‘진로·직업 역량’ 17개 문항으로 확정되었다. 5개 영역별 지표체계 및 측정 문항은 <표 II-44>와 같다.

<표 II-44> 5개영역 지표체계 측정문항

1. 정의적 특성
1-1. 자기개념
1. 나는 나에게 맡겨진 일(학업)을 잘 수행한다
2. 나는 나의 외모에 만족한다
3. 나는 주변사람들에게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4. 나는 나의 성격에 만족한다
1-2. 행복감
5. 나는 행복하다
6. 나는 걱정(고민)이 많다
7. 나는 사는게 즐겁다
8. 나는 살고 싶지 않다
9. 나의 미래는 희망적이다
1-3. 성취동기
10. 나는 분명한 나의 인생목표를 가지고 있다
11. 나는 지금 무엇인가 달성해야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12. 어떤 직업이나 전문분야에서 인정받는 권위자가 되고 싶다
13. 나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 한다
14. 나는 어려운 일을 남들보다 좀 더 잘하고 싶다

2. 인지적 특성

2-1. 창의성

1. 나는윗사람의 지시에 그냥 따르기 보다는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기를 좋아한다
2. 나는 항상 무언가를 알려고 한다
3. 나는 특이하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4. 나는 상상하는 것을 좋아한다
5. 나는 아무리 힘들어도 하던 일은 끝을 낸다
6. 나는 틀에 박힌 대로 행동하는 것을 싫어한다
7. 나는 직관(직감)에 의한 판단을 중요시한다

2-2. 자기주도학습 준비도

8. 나는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
9. 나는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 무엇이든지 배울 수 있다
10. 나는 다른 사람과 아이디어에 관해 토론하기를 좋아한다
11. 나는 결과에 상관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기를 좋아한다
12. 나는 지금 내가 무엇을 배워야 할지를 알고 있다

2-3. 문제해결능력

13. 나는 문제가 생길 때, 문제해결을 위해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 먼저 확인한다
14. 나는 문제가 생길 때, 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한다
15. 나는 문제가 생길 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의 원인을 분석한다
16. 나는 의사결정을 잘 못해서 후회한 적이 많다
17. 나는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도 한번 하기로 한 문제는 끝까지 해결한다
18. 나는 나의 문제해결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충고를 부탁한다

3. 사회적 역량

3-1. 친사회성

1. 나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보면 당장 가서 돕는다
 2. 나는 다른 사람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 내가 다소 위험하더라도 기꺼이 도울 것이다
 3. 나는 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다소 타인에게 해가 되더라도 신경 쓰지 않는다
 4. 나는 남들로부터 무례하다는 말을 들을 때가 있다
 5. 돈을 버는 방법을 두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

3-2. 사회적 신뢰감

6. 길거리에서 내가 위험이나 곤경에 처하게 되면 누군가가 나를 도울 것이다
 7. 주변에 믿고 의지할 만한 사람의 수가 점점 더 적어지는 것 같다
 8. 우리 사회는 대체로 공정한 사회인 것 같다
 9. 잘 모르는 사람과 사귀거나 거래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10. 요즘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이미 가진 것도 남에게 빼앗길 수 있다
-

3-3. 사회적 기술

11. 나는 아무리 낯선 사람이라도 쉽게 말을 건넨다
 12. 나는 동료로 하여금 서로 협력하도록 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13. 나는 친구 간의 서먹서먹한 관계를 부드럽게 할 수 있다
 14. 나는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을 피한다
 15. 나는 친구들 간의 갈등관계를 잘 해결할 수 있다
-

〈표 II -44〉 5개영역 지표체계 측정문항(계속)

4. 시민적 역량

4-1. 청소년인권의식

1. 사람들은 재산/능력에 관계없이 동등한 대접을 받아야한다
2. 외국인 근로자들도 우리와 똑같은 권리를 가져야한다
3. 교육적인 차별은 있어야 한다
4. 우리와 같은 청소년들도 선거권을 가져야 한다

4-2. 공동체의식

5. 나는 개인적인 일보다 공적인 일을 중요시 한다
6. 나라의 발전이 나의 발전이다
7. 나는 가능하면 외국에 나가 살고 싶다
8. 나는 국가에 어떠한 위기가 닥치더라도 피하지 않겠다
9. 필요하다면 내가 사는 지역에 쓰레기처리장, 소각장 등의 혐오시설이 설치되어도 좋다
10. 나라를 위해서라면 나의 이익은 희생되어도 좋다

4-3. 국제화의식

11. 다른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적극적으로 원조해야 한다
12. 외국의 것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13. 우리것/ 남의 것을 구분하기 보다는 외국 것이라도 좋은 것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

4-4 국가의 책무

14. 교육에 대해서 정부가 어느 정도 까지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15. 의료에 대해서 정부가 어느 정도 까지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16. 주택에 대해서 정부가 어느 정도 까지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17. 일자리(또는 실업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까지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4-5. 소비 및 경제의식

18. 물건을 살 때 그 물건이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인지를 확인한다
19. 장래에 나는 취직을 하기 보다는 나만의 사업을 하고 싶다
20. 우리 사회에서 부자란 대부분 법과 규범을 지켜서 재산을 모은 사람들이다
21. 성공한 기업가는 사회적으로 존경받아야한다
22. 우리 사회에서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

〈표 II -44〉 5개영역 지표체계 측정문항(계속)

5. 진로·직업 역량	
5-1. 진로선택의 주도성	1. 나의 진로는 내가 선택하며 그에 대한 책임도 나에게 있다 2. 진로나 직업을 결정할 시기가 되면 내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선택할 것이다 3. 나에게 적합한 학과나 직업은 나보다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더 잘 아신다
5-2. 직업적 특성이해	4. 나는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직업)이 무엇인지 안다 5. 나는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직업)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6. 나는 내가 열정을 바쳐 해야 할 일(직업)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5-3. 직업정보탐색	7. 나는 직업에 관련한 정보를 구하기 위해 전문상담기관이나 학교에서 상담을 받은 적이 있다 8. 나는 홍보물, 팸플렛,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관심있는 분야의 직업 정보를 찾아본 적이 있다 9. 나는 관심있는 직업분야의 전문가를 만나거나 기관을 직접 방문해 본 적이 있다
5-4. 진로준비행동	10. 지난 1년동안 나는 학교 공부 외에 나의 소질과 적성을 살리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였다 11. 지난 1년동안 나는 방과 후나 방학을 이용하여 직업 체험을 해 본 적이 있다 12. 지난 1년 동안 진로문제를 의논하거나 해결하기 위해 선생님이나 상담전문가를 찾은 적이 있다
5-5. 진로목표설정	13. 학생은 자신만의 진로목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5-6. 직업 선호도	14. 학생이 선호하는 직업은 무엇입니까? 15. 학생이 구체적으로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요? 16. 내가 선호하는 직업을 갖기 위해 필요한 교육수준이나 자격조건 등을 알고 있다 17. 내가 선호하는 직업의 근무조건(임금/근무시간/직무내용 등)에 대해 알고 있다

Ⅲ. 1차 본조사 및 측정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분석결과

1. 1차 본조사의 개요
2. 지표 영역별 측정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분석결과

III. 1차 본조사 및 측정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분석결과

1. 1차 본조사의 개요

최종 선정된 문항으로 구성된 도구로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수정된 최종 완성된 조사지를 이용하여 1차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1차 본조사의 조사대상은 전국의 고등학교 2학년생이다. 표본추출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교육개발원 ‘국가교육통계정보센터’의 데이터를 통해 지역별, 학교유형별 고등학교 분포 파악한 후, 전체 조사 대상 학교 60개를 지역별, 학교유형별로 모집단 비율의 비례에 따른 할당하였다. 각 지역별, 학교유형별로 할당된 샘플 수만큼 확률비례추출법(PPS : Propotionate Probability Sampling)에 의해 조사대상 학교를 추출하였으며, 선정된 고등학교에서 2학년 학생을 임의추출하였다(유효표본수 1,746명, 표본오차 95%, 신뢰구간±2.5%).

조사대상 학교의 분포는 <표 III-1>과 같다.

〈표 III-1〉 1차 본조사 대상학교 분포

	실업고	일반고	총합계
강원	1	1	2
경기	4	9	13
경남	1	3	4
경북	-	3	3
광주	1	1	2
대구	-	4	4
대전	-	2	2
부산	2	2	4
서울	3	10	13
울산	-	1	1
인천	1	2	3
전남	1	1	2
전북	1	1	2
충남	1	2	3
충북	1	1	2
총합계	17	43	60

또한 표본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표 III-2〉 1차 본조사 표본의 특성

전 체	사례수	%
성 별		
남성	830	47.5
여성	916	52.5
지 역 별		
대도시	889	50.9
중소도시	778	44.6
읍면지역	79	4.5
학교유형별		
인문계	1,371	78.5
실업계	375	21.5

2. 지표영역별 측정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분석결과

1) 정의적 특성 영역

(1) 자기개념

자기개념을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4개의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각 문항 간 상관은 <표 III-4>과 같다. <표 III-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문항들의 상관은 $\alpha=.01$ 수준에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상관관계의 범위는 $r=.230$ 에서 $r=.457$ 로 중간 정도의 수준이었다). 또한 각 문항 간의 신뢰도 계수 $\alpha = .666$ 으로서 비교적 양호한 수준이었다. 한편 4개의 문항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4개의 문항은 하나의 요인으로 묶일 수 있었다.

<표 III-3> 자기개념 측정문항

1. 나는 나에게 맡겨진 일(학업을 잘 수행한다)
2. 나는 나의 외모에 만족한다
3. 나는 주변사람들에게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4. 나는 나의 성격에 만족한다

<표 III-4> 자기개념의 하위 문항간 상관관계

	문항간 상관				문항 전체 상관	문항제 거시 신뢰도	전체 신뢰도	요인부하량	
	문항1	문항2	문항3	문항4				요인1	요인2
문항1	1	.247*	.294*	.230*	.33	.67	.67	.571	
문항2		1	.425*	.345*	.46	.59		.720	
문항3			1	.457*	.55	.53		.797	
문항4				1	.46	.59		.732	

* $p<.01$

(2) 행복감

행복감을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은 5개이며, 각 문항 간 상관은 <표 III-6>과 같다. <표 III-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문항들의 상관은 $\alpha=.01$ 수준에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렇지만 문항 6과 문항 7의 상관($r=.185$)과 문항 6과 문항 9의 상관($r=.126$)이 비교적 낮아, 문항 6(나는 걱정(고민)이 많다)은 대체로 다른 문항과 낮은 상관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문항 간 신뢰도 분석과 탐색적 요인 분석 결과에서도 나타난다. 즉 문항 6를 제거하면 전체 문항 간 신뢰도 계수가 상승(전체 신뢰도 계수는 $\alpha=.7167$ 으로 비교적 높은 편이지만, 문항 6를 제거하면 신뢰도 계수가 .7466으로 조금 증가함)한다. 또한 5개의 문항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5개의 문항은 하나의 요인으로 묶일 수 있지만, 문항 6의 요인 부하량이 다른 문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할 수 있다. 즉 문항 6은 스트레스나 고민이 있을 경우, 행복감을 저해할 것이라는 생각에 행복감 측정 문항으로 선정되었지만, 행복감과 고민(스트레스)은 다른 개념으로 하나의 요인으로 간주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비록 적은 상관을 보이지만).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 이러한 점을 고려한 보완 작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표 III-5> 행복감 측정문항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5. 나는 행복하다6. 나는 걱정(고민)이 많다7. 나는 사는게 즐겁다8. 나는 살고 싶지 않다9. 나의 미래는 희망적이다 |
|--|

<표 III-6> 행복감의 하위 문항간 상관관계

	문항간 상관					문항 전체 상관	문항제 거시 신뢰도	전체 신뢰도	요인부하량	
	문항 5	문항 6	문항 7	문항 8	문항 9				요인1	요인2
문항5	1	.263*	.600*	.442*	.375*	.62	.61	.72	.814	
문항6		1	.185*	.236*	.126*	.27	.75		.433	
문항7			1	.459*	.359*	.58	.63		.798	
문항8				1	.328*	.52	.65		.731	
문항9					1	.41	.70		.627	

*p<.01

(3) 성취동기

성취동기를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은 5개 이며, 각 문항 간 상관관계는 <표 III-8>에 나타나 있다. <표 III-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문항 10과 문항 14의 상관관계를 제외하고($r=.192$), 비교적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각 문항 간 상관관계의 범위는 $r=.192$ 에서 $r=.696$). 또한 문항 간 신뢰도 계수는 $\alpha=.7047$ 로서 높게 나타났다. 그렇지만 5개의 문항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하나의 요인이 아닌 2개의 요인(문항 10, 11의 한 요인과 문항 12, 13, 14의 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2개의 요인이 추출된 이유는 문항 10과 11는 개인의 목표 의식 또는 목표지향성을 대표하는 문항이며, 문항 12, 13, 14는 성취동기를 나타내는 문항이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설정한 성취동기의 개념적 정의와 관련될 수 있다. 즉 본 연구에서 정의된 성취동기의 개념적 정의는 기존의 성취동기, 내재적 동기, 목표지향성 등의 개념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분석 결과, 비록 2개의 요인이 추출되었지만, 개념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된다. 그렇지만, 보다 좋은 측정 문항의 구성을 위해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한 정밀한 문항 선정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표 III-7> 성취동기 측정문항

10. 나는 분명한 나의 인생목표를 가지고 있다
11. 나는 지금 무엇인가 달성해야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12. 어떤 직업이나 전문분야에서 인정받는 권위자가 되고 싶다
13. 나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한다
14. 나는 어려운 일을 남들보다 좀 더 잘하고 싶다

<표 III-8> 성취동기 하위 문항간 상관관계

	문항간 상관					문항 전체 상관	문항제 거시 신뢰도	전체 신뢰도	요인부하량	
	문항 10	문항 11	문항 12	문항 13	문항 14				요인1	요인2
문항10	1	.696*	.247*	.262*	.192*	.54	.62	.70	.909	
문항11		1	.343*	.309*	.229*	.62	.58		.887	
문항12			1	.221*	.372*	.41	.68			.703
문항13				1	.301*	.38	.69			.567
문항14					1	.36	.69			.844

*p<.01.

2) 인지적 특성 영역

(1) 창의성

창의성 성향검사도구의 문항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문항들간의 상관관계는 전반적으로 무시할만 하거나, 낮은 수준의 상관관계를 보였다(<표 II-10> 참조). 이는 창의성 검사도구가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문제를 갖고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각 문항들은 창의성의 다차원적이고 상호독립적인 속성들을 나타내주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III-9〉 창의적 측정문항

1. 나는 윗사람의 지시에 그냥 따르기 보다는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기를 좋아한다 (독립심)
2. 나는 항상 무언가를 알고려고 한다 (호기심)
3. 나는 특이하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독특함)
4. 나는 상상하는 것을 좋아한다 (상상력)
5. 나는 아무리 힘들어도 하던 일은 끝을 낸다 (집착성)
6. 나는 틀에 박힌 대로 행동하는 것을 싫어한다 (개방성)
7. 나는 직관(직감)에 의한 판단을 중요시한다 (직관성)

〈표 III-10〉 창의성 검사의 문항간 상관관계

	문항간 상관							문항 전체 상관	문항제 거시 신뢰도	전체 신뢰 도	요인부하량	
	문항 1	문항 2	문항 3	문항 4	문항 5	문항 6	문항 7				요인1	요인2
문항1	1	.345**	.259**	.238**	.180**	.398**	.194**	.44	.6587	.7009	.639	
문항2		1	.319**	.314**	.310**	.284**	.178**	.49	.6486		.674	
문항3			1	.421**	.122**	.296**	.177**	.44	.6603		.640	
문항4				1	.206**	.292**	.210**	.47	.6514		.657	
문항5					1	.185**	.091**	.29	.6982		.455	
문항6						1	.220**	.47	.6528		.656	
문항7							1	.28	.6959		.443	

**p<.01

또한, 창의성의 다차원적 속성들을 측정하는 개별문항들이 얼마나 서로 잘 보완하여 전체적으로 창의성의 개념을 잘 측정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문항간 내적합치도를 분석한 결과, Cronbach's α 값은 .70으로 나타났다(<표 III-10> 참조). 뿐만 아니라, 문항을 삭제할 경우 내적합치도 계수는 모두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신규로 개발된 진단도구의 적절한 수준을 .70으로 볼 경우(Nunnally, 1978), 창의성 검사도구의 신뢰도는 비교적 양호한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내적합치도 계수가 신뢰도 인정

기준의 최저수준이고, 신뢰성있는 국가적 수준의 청소년개발지표 측정에 활용되기 위해 보다 높은 수준의 신뢰도가 요구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창의성 검사도구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내적합치도 계수는 문항간 상관계수와 문항수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을 활용하여, 문항간 상관계수의 평균을 높이는 방법과 문항수를 늘리는 방법 등 2가지 방법이 고려될 수 있다. 그러나 창의성의 하위속성들이 상호독립적이고 매우 낮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측정문항수를 늘리는 방법이 보다 현실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창의성 검사도구의 문항선정과정에서 창의성의 다양한 속성들 중 창의성 이외의 영역들과 중복된 속성들을 과도하게 삭제한 방식에 대해서 신중한 재검토가 요구된다. 왜냐하면, 하위속성의 과도한 삭제는 문항수를 감소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내적합치도를 하락시켰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표개발의 5개 영역간 중복성문제 해결만을 강조하여 핵심적인 속성을 삭제하기 보다는, 중복된 속성을 하나의 동일문항으로 통일시켜 중복영역에서 동시에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독립심, 호기심, 독특함, 상상력, 집착성, 개방성, 직관성 등 7개의 속성들이 창의성을 구성하는 핵심적 속성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한 결과, 6가지 속성들은 하나의 단일요인으로 수렴된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10>참조). 이 결과는 독립심, 호기심, 독특함, 상상력, 집착성, 개방성, 직관성 등 6개 속성들은 창의성이라는 잠재변인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수렴판별타당도를 입증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2) 자기주도학습 준비도

자기주도학습 준비도 검사도구의 문항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문항들간의 상관관계는 전반적으로 무시할만 하거나, 낮은수준의 상관관계를 보였다(<표 III-12> 참조). 이는 자기주도학습 준비도 검사도구가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갖고 있지 않음을 의미하며, 각 문항들이 자기주도학습 준비도의 다

차원적이고 상호독립적인 속성들을 나타내주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III-11〉 자기주도학습 측정문항

8. 나는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 (학습에 대한 열망)
9. 나는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 무엇이든지 배울 수 있다 (학습자로서의 자기확신)
10. 나는 다른 사람과 아이디어에 관해 토론하기를 좋아한다 (도전에 대한 개방성)
11. 나는 결과에 상관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기를 좋아한다 (호기심성향)
12. 나는 지금 내가 무엇을 배워야 할지를 알고 있다 (학습자로서의 자기이해)

〈표 III-12〉 자기주도학습 준비도 검사의 문항간 상관관계

	문항간 상관					문항 전체 상관	문항제 거시 신뢰도	전체 신뢰도	요인부하량	
	문항 8	문항 9	문항 10	문항 11	문항 12				요인1	요인2
문항8	1	.467**	.334**	.461**	.282**	.55	.6426	.7158	.759	
문항9		1	.394**	.381**	.283**	.54	.6416		.750	
문항10			1	.389**	.223**	.47	.6720		.679	
문항11				1	.208**	.50	.6551		.723	
문항12					1	.33	.7260		.522	

**p<.01

또한 자기주도학습준비도의 다차원적 속성들을 측정하는 개별문항들이 얼마나 서로 잘 보완하여 전체적으로 자기주도학습 준비도의 개념을 잘 측정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문항간 내적합치도를 분석한 결과, Cronbach's α 값은 .72로 나타났다(<표 III-12> 참조). 따라서 자기주도학습 준비도 검사 도구의 신뢰도는 비교적 양호한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내적합

치도 계수가 신뢰도 인정기준의 최저수준을 약간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학습자로서의 자기이해(문항12)문항을 삭제할 경우 내적합치도계수가 .7260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후속연구에서 진술문을 보다 명료화하는 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문항선정과정에서 Guglielmino가 제시한 자기주도학습준비도의 8개 속성 중 삭제된 3개의 속성을 문항에 포함하여 문항수를 증가시킴으로써 내적합치도계수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결과적으로, 자기주도학습 준비도 검사도구의 내적합치도계수를 향상시키기 위한 보완작업이 요구되며, 문항선정과정에서 삭제된 3개의 영역에 대한 신규문항 개발이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학습열망, 자기확신, 개방성, 호기심, 자기이해 등 5개의 속성들이 자기주도학습준비도를 구성하는 핵심적 속성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한 결과, 5가지 속성들은 하나의 단일요인으로 수렴된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12>참조). 이 결과는 학습열망, 자기확신, 개방성, 호기심, 자기이해 등 5개 속성들은 자기주도학습준비도라는 잠재변인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수렴판별타당도를 입증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3) 문제해결능력

문제해결능력 검사도구의 문항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문항들간의 상관관계가 정보수집(문항14)과 분석능력(문항15)간의 관계($r=.623$)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표 III-14> 참조). 정보수집(문항14)과 분석능력(문항15)의 상관관계가 비교적 높은 상관을 보이는 이유는 문제해결능력의 요소 중 원인분석을 정보수집과 분석능력으로 구분하여 문항을 개발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즉, 정보수집과 분석능력은 원인분석이라는 동일속성을 측정하고 있는 문항이기 때문에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문제해결능력 검사도구는 전반적으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갖고 있지 않으며, 문제해결능력의 다차원적이고 독립적인 속성들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정보수집(문항14)과 분석능력(문항 15)을 원인분석이라는 상위요소로 통합하여, 목표인식, 의사결정, 계획시행, 평가/피드백 등 5개 속성들과 수준을 통일시키는 것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표 III-13〉 문제해결능력 측정문항

13. 나는 문제가 생길 때, 문제해결을 위해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 먼저 확인한다 (목표의식)
14. 나는 문제가 생길 때, 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한다 (정보수집)
15. 나는 문제가 생길 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의 원인을 분석한다 (분석능력)
16. 나는 의사결정을 잘 못해서 후회한 적이 많다 (계획시행)
17. 나는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도 한번 하기로 한 문제는 끝까지 해결한다
18. 나는 나의 문제해결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충고를 부탁한다 (평가/피드백)

〈표 III-14〉 문제해결능력 검사의 문항간 상관관계

	문항간 상관						문항 전체 상관	문항제 거시 신뢰도	전체 신뢰도	요인부하량	
	문항 13	문항 14	문항 15	문항 16	문항 17	문항 18				요인1	요인2
문항13	1	.499**	.477**	.095**	.315**	.226**	.54	.5530	.6507	.748	
문항14		1	.623**	.038	.254**	.224**	.55	.5438		.807	
문항15			1	.041**	.299**	.244**	.56	.5359		.815	
문항16				1	.107**	-.019	.07	.7143		.524	
문항17					1	.197**	.37	.6116		.494	
문항18						1	.27	.6516			

**p<.01

또한 문제해결능력의 다차원적 속성들을 측정하는 개별문항들이 얼마나

서로 잘 보완하여 전체적으로 문제해결능력의 개념을 잘 측정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문항간 내적 합치도를 분석한 결과, Cronbach's α 값은 .65으로 나타났다(<표 III-14> 참조). 그리고, 의사결정(문항16)문항을 삭제할 경우 내적합치도계수가 .7143으로 크게 향상되며, 평가/피드백(문항18)을 삭제할 경우에도 내적합치도계수가 .6516으로 약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문제해결능력 검사도구의 신뢰도는 높지 않은 수준이며, 내적합치도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이 의사결정(문항16) 문항에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의사결정(문항16) 문항이 내적합치도를 하락시키는 이유로는, 질문방식이 유도식 질문이고, 이중적 의미를 갖는 함축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의사결정을 잘 못해서 후회한 적이 많다”는 문항은 의사결정의 속성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적합하지 못하며, 후속 연구에서 보다 직접적이고 명료한 문항으로 대체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이와 아울러, 평가/피드백(문항18)을 묻는 문항에서도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나는 나의 문제해결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충고를 부탁한다”는 진술문을 보다 명료하면서도 간단하게 수정하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목표인식, 정보수집, 분석능력, 의사결정, 계획시행, 평가/피드백 등 6개의 속성들이 문제해결능력을 구성하는 핵심적 속성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한 결과, 의사결정(16)를 제외한 나머지 5가지 속성들은 하나의 단일요인으로 수렴된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14>참조). 이 결과는 의사결정(문항16) 측정문항이 의사결정의 속성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적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해주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3) 사회적 역량 영역

(1) 친사회성

청소년의 친사회성은 “나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보면 다른 생각을 하기에 앞서 우선 도움 방도부터 생각한다”(문항1), “나는 다른 사람의 생명이 위험할 경우, 내가 다소 위험하더라도 기꺼이 도움 것이다”(문항2), “나는 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다소 타인에게 해가 되더라도 신경쓰지 않는다”(문항3), “나는 남들로부터 무례하다는 말을 들을 때가 있다”(문항4), 그리고 “돈을 버는 방법을 두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문항5) 등의 다섯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문항간의 내적일치도는 문항수(5)를 고려하였을 때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항1과 문항2의 상관관계($r = .504$)와 나머지 세 문항간의 상관관계(문항3과4: $r = .342$, 문항3과5: $r = .326$, 문항4와 5: $r = .275$)는 비교적 양호하다고 할 수 있으나 두 집단에 속해 있는 문항들간의 상관관계는 대부분 통계적 유의미성을 보이지 않을 정도로 낮았다. 이러한 낮은 수준의 두 집단의 상관관계는 내적일치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파악된다(크론바하 알파 = .47). 문항제거시 크론바하 알파값에 의하면 특별하게 전체 신뢰도에 악영향을 끼치는 문항은 없으며, 전체적으로 낮은 상관관계에 기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낮은 수준의 전체적 상관과 두 집단으로의 수렴은 탐색적 요인분석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이 되고 있다. 추출된 요인구조의 해석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직교회전(varimax)을 실시한 결과 청소년의 친사회성을 측정하고자 개발된 다섯 개의 항목은 문항1,2와 문항3, 4, 5의 두 개의 요인구조로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III-15> 친사회성 측정문항

1. 나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보면 당장 가서 돕는다
2. 나는 다른 사람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 내가 다소 위험하더라도 기꺼이 도울 것이다
3. 나는 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다소 타인에게 해가 되더라도 신경 쓰지 않는다
4. 나는 남들로부터 무례하다는 말을 들을 때가 있다
5. 돈을 버는 방법을 두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표 III-16> 친사회성 검사의 문항간 상관관계

	문항간 상관					문항 전체 상관	문항제 거시 신뢰도	전체 신뢰도	요인부하량	
	문항1	문항2	문항3	문항4	문항5				요인1	요인2
문항1	1	.504	.046	-.017	.026	.22	.44	.47		.87
문항2		1	.006	-.014	.026	.19	.46			.87
문항3			1	.342	.326	.32	.37		.77	
문항4				1	.275	.25	.41		.73	
문항5					1	.28	.40		.71	

이러한 요인구조는 문항1과 2는 친사회성을, 문항3, 4, 5는 반사회성을 측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는 가능하지만 그렇다고 할때, 두 집단간의 역의 상관관계가 유의미하게 존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것은 문항의 선정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본 연구의 중요한 의의는 정책적 함의를 가지는 지표의 생산이고 따라서 심리학적 요인을 측정하기 위한 종합적 지표보다는 개별지표의 정책적 시사성이 중요한 문항선택의 기준이 될 수는 있으나 1차적으로 측정속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함을 말해준다.

(2) 사회적 신뢰감

사회적 신뢰감을 측정하는 문항들은 “길거리에서 내가 위험이나 곤경에 처했을 때 누군가가 나를 도울 것이다”(문항6), “주변에 믿고 의지할 만한 사람 수가 점점 더 적어지는 것 같다”(문항7), “우리 사회는 대체로 공정한 사회인 것 같다”(문항8), “잘 모르는 사람과 사귀거나 거래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문항9), “요즘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이미 가진 것도 남에게 빼앗길 수 있다”(문항10) 등이다. 문항 6과 8은 사회적 신뢰감에 대한 긍정적 진술이며, 나머지 문항은 부정적 진술로 이루어져 있다. 사회적 신뢰감이 높을수록 높은 수치를 나타내도록, 문항 6과 8을 역코딩 한 후 상관관계 분석결과 관계의 방향은 예상과 일치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관계의 강도는 하나의 개념을 측정하고 있는 문항이라고 보기에는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보였다. 문항9와 10간의 상관관계가 $r = .389$, 문항 6과 7간이 $r = .197$, 문항 7과 10간이 $r = .190$, 문항 6과 8간이 $r = .165$, 문항 7과 9간이 $r = .154$ 였고 나머지 문항간의 관계들은 통계적으로 무의미 할 정도로 낮은 수치를 보였다. 이러한 낮은 상관관계는 다섯 문항들의 내적일치도에서 좋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다섯 문항 전체의 내적일치도는 .44였고, 문항제거시 크론바하 알파값에 의하면 특별하게 전체 신뢰도에 악영향을 끼치는 문항은 없으며, 전체적으로 낮은 상관관계에 기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탐색적 요인 분석 결과 또한 문항 6, 7, 8과 문항9, 10의 두 개의 요인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역시 하나의 개념을 측정하고 있는 문항들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III-17> 사회적 신뢰감 측정문항

6. 길거리에서 내가 위험이나 곤경에 처하게 되면 누군가가 나를 도울 것이다
7. 주변에 믿고 의지할 만한 사람의 수가 점점 더 적어지는 것 같다
8. 우리 사회는 대체로 공정한 사회인 것 같다
9. 잘 모르는 사람과 사귀거나 거래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10. 요즘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이미 가진 것도 남에게 빼앗길 수 있다

<표 III-18> 사회적 신뢰감 검사의 문항간 상관관계

	문항간 상관					문항 전체 상관	문항제 거시 신뢰도	전체 신뢰도	요인부하량	
	문항6	문항7	문항8	문항9	문항10				요인1	요인2
문항6		.197	.165	.014	.021	.17	.43	.44		.79
문항7			.070	.154	.190	.26	.37			.51
문항8				.003	.168	.16	.44			.62
문항9					.389	.23	.38		.82	
문항10						.35	.31		.80	

(3) 사회적 기술

사회적 기술은 “나는 아무리 낮은 사람이라도 쉽게 말을 건넨다”(문항11), “나는 동료들로 하여금 서로 협력하도록 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문항12), “나는 친구 간의 서먹서먹한 관계를 부드럽게 할 수 있다”(문항 13), “나는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을 피한다”(문항14), “나는 친구들간의 갈등관계를 잘 해결할 수 있다”(문항15)등의 다섯 문항으로 측정되었다. 사회적 기술이 뛰어날 수록 높은 수치를 나타내도록 문항 14를 제외한 네 문항을 역코딩한 후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한 결과 앞서 나온 친사회성과 사회적 친밀감에 비하여 매우 양호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문항14와 11, 12의 상관관계($r = .001, .068$ 각각)를 제외하고 문항간의 모든 상관관계가 $r = .124$ 에서 $.535$ 까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비교적 양호한 문항들간의 상

관관계는 내적일치도에도 영향을 미쳐 앞의 두 개념들에 비해 상당수준 증가된 결과를 보여주었으며 (전체 내적일치도 = .67), 문항 14가 특히 전체 내적일치도를 저해하고 있는 문항임을 보여주고 있다(문항제거시 내적일치도 = .75). 문항14가 갖는 문제점은 상관관계와 내적일치도 뿐만 아니라 탐색적 요인분석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문항14가 단독으로 하나의 요인을 형성하여 사회적 기술을 측정하는 문항들의 단일요인구조를 저해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표 III-19〉 사회적 기술요인 측정문항

11. 나는 아무리 낯선 사람이라도 쉽게 말을 건넨다
12. 나는 동료로 하여금 서로 협력하도록 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13. 나는 친구 간의 서먹서먹한 관계를 부드럽게 할 수 있다
14. 나는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을 피한다
15. 나는 친구들 간의 갈등관계를 잘 해결할 수 있다

〈표 III-20〉 사회적 기술요인 검사의 문항간 상관관계

	문항간 상관					문항 전체 상관	문항제 거시 신뢰도	전체 신뢰도	요인부하량	
	문항11	문항12	문항13	문항14	문항15				요인1	요인2
문항11		.416	.463	.001	.242	.40	.63	.67	.70	
문항12			.540	.068	.464	.56	.56		.80	
문항13				.124	.535	.64	.51		.84	
문항14					.134	.10	.75			.96
문항15						.50	.59		.71	

지금까지 청소년의 사회적 역량을 구성하는 세 개의 하위요인을 측정하는 문항들에 대한 기초적인 측정속성을 분석해 보았다. 전체적으로 볼 때, 개별

문항들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이유에 대하여는 다양한 이론적, 방법론적 원인이 추측 가능하나, 무엇보다도 문항선정의 임의성이 지적될 수 있다.

4) 시민적 역량 영역

(1) 청소년의 인권의식

먼저 “청소년 인권의식”을 측정하고 있는 네 개의 문항들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분석의 순서는 먼저 상관관계 분석을 통하여 네 개의 문항들에 대한 응답자의 응답이 얼마나 상호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일차적으로 알아 본 후, 크론바하 알파를 통하여 내적일치도를 확인하고자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각각의 하위요인들이 하나의 단일한 요인구조로 묶어질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청소년 인권의식”을 측정하고 있는 네 개 문항들의 상관관계는 비교적 낮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alpha=.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고 있는 문항들로는 “사람들은 재산이나 능력에 관계없이 동등한 대접을 받아야 한다”와 “외국인 근로자들도 우리와 똑같은 권리를 가져야 한다” ($r = .254$), “교육적인 차별은 있어야 한다”와 “외국인 근로자들도 우리와 똑같은 권리를 가져야 한다” ($r = 1.50$), “사람들은 재산이나 능력에 관계없이 동등한 대접을 받아야 한다”와 “우리과 같은 청소년들도 선거권을 가져야 한다” ($r = .108$)이었으며 나머지 문항들간의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신뢰도 분석은 상관관계 분석결과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네 문항의 내적일치도는 .2531로 매우 낮게 나타났으며 특히 “교육적인 차별은 있어야 한다” 문항은 전체 문항들간의 내적 일치도를 가장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적인 차별은 있어야 한다” 문항을 제외하고 신뢰도 분석을 실시 한 결과, 비록 아직까지도 낮은 신뢰도 수준이지만 네 문항의 경우와 비교할 때 신뢰도 계수가 높아지고 있음에서도 확인된다고 할 수 있다 (크론바하 알파 = .3326). “교육적인 차별은 있어야 한다” 문항이 보

이고 있는 문제점은 네 개의 문항을 대상으로 실시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에서도 확인되었다. “청소년 인권의식” 문항들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III-22>과 같다.

<표 III-21> 청소년인권의식 측정문항

1. 사람들은 재산/능력에 관계없이 동등한 대접을 받아야한다
2. 외국인 근로자들도 우리와 똑같은 권리를 가져야한다
3. 교육적인 차별은 있어야 한다
4. 우리와 같은 청소년들도 선거권을 가져야 한다.

<표 III-22> 청소년인권의식 검사의 문항간 상관관계

	문항간 상관				문항 전체 상관	문항제 거시 신뢰도	전체 신뢰도	요인부하량	
	문항1	문항2	문항3	문항4				요인1	요인2
문항1		.254	-.017	.108	.18	.13	.25	.72	
문항2			.150	.081	.29	.03		.76	
문항3				-.066	.02	.33			.82
문항4					.06	.29		.40	

이상의 분석결과 “청소년 인권의식”을 측정하고자 하는 네 개 문항의 내적일치도와 요인구조 형성에 가장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문항은 “교육적인 차별은 있어야 한다” 인 것으로 나타났다. 네 번째 문항인 “우리 와 같은 청소년들도 선거권을 가져야 한다” 또한 제거시의 신뢰도가 포함이 되었을 경우의 신뢰도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첫 번째 요인에 대한 부하량 또한 문항1과 문항2에 비하여 현저히 낮게 나타나 문항3과 마찬가지로 내적 일치도와 요인구조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렇다면 “청소년의 인권의식”이라는 개념을 측정하고자 하는 문항들의

측정속성들이 이렇게 좋지 못한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 첫째 문항들이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개념의 상이함이다. 문항1과 문항2는 시민 혹은 인간으로서 평등한 권리에 대한 인식을 묻고 있는 반면, 문항3과 4는 각각 교육현장에서 특수한 상황(체벌)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과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선거권)를 주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최종문항 선정의 임의성(ad-hoc)이다. 가장 기초적인 개념인 “인권”, 그리고 청소년이라는 집단적 특수성을 감안한 “청소년 인권”이 가지고 있는 개념적 다면성을 단 몇 개의 문항으로 측정하고자 하는 작업은 애초에 불가능한 것 일 수도 있다. 청소년의 인권의식을 평등권, 소수자의 인권, 학교에서의 청소년 인권 및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로 나누었으나, 각각의 권리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적 상관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최종문항을 선정하는 임의성이 문제로 지적 될 수 있다.

(2)공동체의식

청소년의 시민적 역량 중 공동체 의식은 다음의 여섯 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나는 사적인 일보다 공적인 일을 중요시 한다”(문항5), “나라의 발전이 나의 발전이다”(문항6), “나는 가능하면 외국에 나가 살고 싶다” (문항7), “나는 국가의 어떠한 위기가 닥치더라도 피하지 않겠다”(문항8), “필요하다면 내가 사는 지역에 혐오시설이 설치되어도 좋다(문항9), ”나라를 위해서라면 나 자신의 이익은 희생되어도 좋다“(문항10). 문항7을 제외한 문항들을 높은 점수가 공동체의식을 지향하는 것으로 역코딩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가장 높은 상관관계는 문항8과 문항9 사이에서 발견되었으며($r = .351$), 다음으로 문항6과 문항5 ($r = .345$), 문항8과 문항10 ($r = .339$), 문항6와 문항8($r = .337$)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문항7은 대부분의 다른 문항들과 약한 수준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문항7의 나머지 문항들과의 낮은 상관관계는 신뢰도 분석결과에서도 확인이 되었다. 여섯 개 문항의 전체 신뢰도는 .60이고 문항 7은 전체 문항들의 내적 일치도를 감소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제거시 신뢰도 = .66), 나머지 문항들은 전체 신뢰도 향상에 긍정적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또한 위의 결과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표 III-23〉 공동체의식 측정문항

5. 나는 개인적인 일보다 공적인 일을 중요시 한다
6. 나라의 발전이 나의 발전이다
7. 나는 가능하면 외국에 나가 살고 싶다
8. 나는 국가에 어떠한 위기가 닥치더라도 피하지 않겠다
9. 필요하다면 내가 사는 지역에 쓰레기처리장, 소각장 등의 혐오시설이 설치되어도 좋다
10. 나라를 위해서라면 나의 이익은 희생되어도 좋다.

〈표 III-24〉 공동체의식 검사의 문항간 상관관계

	문항간 상관						문항 전체 상관	문항 전체 거시 신뢰도	전체 신뢰도	요인부하	
	문항 5	문항 6	문항 7	문항 8	문항 9	문항 10				요인1	요인2
문항5		.345	.043	.263	.201	.288	.37	.52	.60	.68	
문항6			.047	.337	.149	.285	.37	.54		.69	
문항7				.157	.071	.062	.12	.54		.	.92
문항8					.351	.339	.49	.66		.66	
문항9						.274	.33	.49		.52	
문항10							.40	.55		.67	

(3) 국제화의식

다음은 청소년의 국제화의식이다. 국제화 의식을 측정하는 도구는 “다른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지구공동체의 일원으로 적극적인 원조가 필요하다”(문항11), “외국의 것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문항12), 그리고 “우리것/남의것을 구분하기 보다는 외국것이라도 좋은 것은 인정하고 받아 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문항13)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59와 61을 점수가 높을수록 국제화된 의식을 반영하는 것으로 역코딩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전체적으로 문항들간의 상관관계는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상관관계는 문항 12와 13 사이에서 발견

되었으며($r = .226$), 문항 11과 13간의 상관관계는 $r = .129$ 였고, 문항 11과 12는 통계적으로 무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r = .002$). 문항들간의 낮은 상관관계는 신뢰도 분석에서도 재차 확인이 된다. 세 개 문항의 내적 일치도는 .28로서 적은 문항수를 고려하더라도 매우 낮은 수치이며 특히 문항 11이 전체신뢰도를 저하시키고 있음이 밝혀졌다(제거시 신뢰도 = .37). 요인분석 결과에서도 비록 하나의 요인구조로 밝혀 졌지만, 문항11의 요인부하량이 다른 두 문항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게 나타났다.

〈표 III-25〉 국제화의식 측정문항

11. 다른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적극적으로 원조해야 한다
12. 외국의 것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13. 우리것/ 남의 것을 구분하기 보다는 외국 것이라도 좋은 것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

〈표 III-26〉 국제화의식 검사의 문항간 상관관계

	문항간 상관			문항 전체 상관	문항제 거시 신뢰도	전체 신뢰도	요인부하	
	문항11	문항12	문항13				요인1	요인2
문항11		.002	.129	.08	.37	.28	.40	
문항12			.226	.14	.23		.69	
문항13				.25	.00		.79	

이와 같은 결과의 원인으로 첫째로 문항수의 부족을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심리학적 속성을 측정하는 도구들에 포함되어 있는 문항들의 수와 비교할 때 국제화 의식은 단 세 개의 문항으로만 이루어져 있으며 이

는 낮은 내적일치도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사용된 문항들의 개념적 애매모호함이다. 먼저 문항11의 경우, “원조”의 구체적 의미가 불분명하며, 최근 전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자이툰부대 파병이나 대북경제원조 등을 고려할 때, 비록 국제적으로 개방된 의식을 가진 청소년이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원조”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을 것이라고는 생각하기 힘들다.

(4) 국가의 책무

다음은 청소년의 “국가의 책무”에 대한 조사결과이다. 국가의 책무에 대한 청소년의 의식은 교육(문항14), 의료(문항15), 주택(문항16), 일자리(또는 실업)문제(문항17)에 대한 국가의 책임정도를 묻는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응답항목은 점수가 높을수록 국가책임의 확대를 지지하는 것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상관관계 분석 결과를 보면 앞서 논의된 “청소년인권의식”, “공동체의식”, “국제화의식”등과 비교할 때, 매우 증가된 문항들간의 상관이 나타났다. 주택과 일자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묻는 문항들이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으며($r = .472$), 다음으로 교육과 의료($r = .434$), 주택과 의료 (.392)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문항들간의 내적 일치도는 비교적 적은 문항수를 고려할 때, 양호한 수준이었으며(.70) 특별히 전체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문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도 네 개의 문항이 하나의 단일요인을 가지는 요인구조를 가지고 있음이 밝혀졌다.

<표 III-27> 국가의 책무 측정문항

- | |
|--|
| 14. 교육에 대해서 정부가 어느 정도 까지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15. 의료에 대해서 정부가 어느 정도 까지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16. 주택에 대해서 정부가 어느 정도 까지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17. 일자리(또는 실업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까지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
|--|

〈표 III-28〉 국가의 의무 검사의 문항간 상관관계

	문항간 상관				문항 전체 상관	문항제 거시 신뢰도	전체 신뢰도	요인부하량	
	문항14	문항15	문항16	문항17				요인1	요인2
문항14		.434	.318	.242	.42	.66	.70	.67	
문항15			.392	.330	.51	.61		.75	
문항16				.472	.53	.59		.77	
문항17					.46	.64		.70	

(5) 소비 및 경제의식

마지막으로 청소년의 시민적 역량 중 “소비 및 경제의식”에 관한 결과이다. 청소년의 소비 및 경제의식은 “물건을 살 때 그 물건이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인지를 확인한다(문항18)”, “장래에 나는 취직을 하기 보다는 나만의 사업을 하고 싶다(문항19)”, “우리사회에서 부자란 대부분 법과 규범을 지켜서 재산을 모은 사람들이다(문항20)”, “성공한 기업가는 사회적으로 존경받아야 한다(문항21)”, “우리 사회에서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문항22)”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의 구성자체에서도 알 수 있지만, 청소년의 “소비 및 경제의식”이라고 하는 시민적 역량의 하위요인은 단일한 하나의 개념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문항18은 건전한 소비의식을, 문항19는 사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을, 문항20은 부에 대한 의식을, 문항 21은 사업가에 대한 의식을, 문항 22는 빈부격차에 대한 의식을 묻고 있다. 최종 문항 선정단계와 관련 전문가들과의 액면타당도 검증작업의 결과, 이처럼 일정 상이한 개념들을 측정하고자 하는 문항들간의 내적일치도와 요인구조를 밝혀내는 작업은 설사 우수한 측정속성들을 보인다고 할지라도 이론적으로 무의미할뿐 아니라 극단적 귀납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문항들간의 상호관계성을 확인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사실 자체는 반드시 개별문항들이 가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앞서서도 밝힌 바와 같이, 본 연구의 목표는 이론적, 경험적으로 타당한 지표를 생산해내는

것도 있지만, 한국의 청소년에 투여된 현재 한국의 사회상을 발견해냄으로써 앞으로의 청소년 관련 정책의 생산에 일조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생산해내는 것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청소년의 소비 및 경제의식”에 포함되어 있는 문항들은 모두 현재 한국사회에서 사회,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들이며 특히 “부에 관한 의식”이나 “기업가에 대한 태도” 등은 매우 시의적절한 조사문항들이라고 할 수 있다.

5) 진로·직업역량 영역

(1) 진로선택의 주도성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진로의식을 알아보기 위한 지표로서 진로선택의 주도성과 직업적 특성 이해를 선정하였으며, 이 가운데 진로선택의 주도성을 측정하기 위해 3개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 간 상관은 <표 III-30>과 같다. <표 III-30>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문항들의 상관은 $\alpha=.01$ 수준에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문항간 상관의 편차가 매우 컸다. 이를 보면, 문항 1과 문항 2간의 상관이 .538로 중간정도의 수준임에 비해 문항 1과 문항 3, 그리고 문항 2와 문항 3 간의 상관은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는 문항 3 ‘나에게 적합한 학과나 직업은 나보다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더 잘 아신다’는 것이 다른 문항들과의 관계에서 비교적 이질적임을 의미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문항 3이 진로선택의 주도성을 측정하는 문항으로서 다소 애매모호한 특성을 지님을 의미한다.

한편, 각 문항 간의 신뢰도 계수 $\alpha=.451$ 로 양호한 수준은 아니나 문항의 개수에 의해 신뢰도가 좌우됨을 고려할 때 그리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다. 특히, 중요한 것은 문항 3을 제거할 경우 신뢰도 계수가 .693으로 향상됨을 보여주고 있어 상관관계분석에서 드러났듯이 문항 3이 추후 연구에서는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3개의 문항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에서도 문항 1과 문항 2는 비교적 동일 구인을 측정하는 것으로 묶인 반면, 문항 3의 요인적재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져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문항 3이 이처럼 부적절한 것으로 드러난 것은 '적합한 학과나 직업에 대해 청소년 자신보다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더 잘 아실 것'이라는 내용이 진로선택의 주도성만을 의미하는 문항이 아닐 수 있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어떤 면에서는 문항 3이 오히려 진로선택의 합리성을 측정하는 문항의 속성을 지닐 수 있다는 판단도 가능하다. 추후 연구에서 수정, 보완 되어야 할 부분이다.

<표 III-29> 진로선택의 주도성 측정문항

1. 나의 진로는 내가 선택하며 그에 대한 책임도 나에게 있다
2. 진로나 직업을 결정할 시기가 되면 내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선택할 것이다
3. 나에게 적합한 학과나 직업은 나보다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더 잘 아신다

<표 III-30> 진로선택의 주도성 지표 검사의 문항간 상관관계

	문항간 상관			문항 전체 상관	문항제 거시 신뢰도	전체 신뢰도	요인부하량	
	문항1	문항2	문항3				요인1	요인2
문항1	1	.538*	.119*	.40	.19	.451	.858	
문항2		1	.110*	.37	.20		.586	
문항3			1	.13	.69		.337	

*p<.01

(2) 직업적 특성 이해

청소년들의 진로의식을 측정하기 위한 하위지표 가운데 하나인 직업적 특성 이해를 위해서는 3개의 문항을 선정하였다. 이들 문항간 상관관계는 아래의 <표 III-32>과 같다. <표 III-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문항들의 상관은 $\alpha=.01$ 수준에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을 뿐 아니라 문항들 간의 상관

수준도 .693, .723, .778 등 비교적 높았다. 그런가 하면, 문항간 신뢰도 계수 $\alpha = .890$ 로 매우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그리고, 문항들이 단일 구인을 측정하고 있는지를 탐색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주성분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3개 요인 모두 비슷한 요인 적재치를 보이고 있어 단일 요인으로 묶일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표 III-31〉 직업적 특성 이해 측정문항

4. 나는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직업)이 무엇인지 안다
5. 나는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직업)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6. 나는 내가 열정을 바쳐 해야 할 일(직업)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표 III-32〉 직업적 특성 이해 검사의 문항간 상관관계

	문항간 상관			문항 전체 상관	문항제 거시 신뢰도	전체 신뢰도	요인부하량	
	문항4	문항5	문항6				요인1	요인2
문항4	1	.723*	.693*	.75	.87	.890	.885	
문항5		1	.778*	.82	.82		.921	
문항6			1	.79	.84		.902	

* $p < .01$

(3) 직업정보탐색

청소년들의 진로·직업 역량을 측정하기 위해 마련된 진로탐색 영역에서는 직업정보탐색과 직업선택도를 하위 지표로 설정하였다. 이 가운데 직업선택도 지표 문항은 개별 청소년들이 직접 기입하는 문항이라 별도로 문항 양호도와 관련된 통계적 분석이 필요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3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직업정보탐색 지표에 대해서만 문항 양호도와 관련된 문항간 상관분

석, 신뢰도분석 그리고 탐색적 요인분석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직업정보탐색 지표 3개 문항 간 상관은 <표 III-34>에 나타난 것처럼 $\alpha=.01$ 수준에서 .302에서 .407의 정적인 상관을 나타냈다. 또한 각 문항 간 신뢰도 계수 $\alpha=.616$ 으로 양호한 수준이었다. 동시에 3개의 문항이 단일 요인을 측정하고 있는지를 탐색하기 위해 주성분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3개 문항 모두 요인적재치에서 비슷한 수치를 보여 단일 요인으로 묶이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표 III-33> 직업정보탐색 측정문항

7. 나는 직업에 관련한 정보를 구하기 위해 전문상담기관이나 학교에서 상담을 받은 적이 있다
8. 나는 홍보물, 팜플렛,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관심있는 분야의 직업 정보를 찾아본 적이 있다
9. 나는 관심있는 직업분야의 전문가를 만나거나 기관을 직접 방문해 본 적이 있다

<표 III-34> 직업정보탐색 지표 문항간 상관관계

	문항간 상관			문항 전체 상관	문항제거 신뢰도	전체 신뢰도	요인부하량	
	문항7	문항8	문항9				요인1	요인2
문항7	1	.336*	.407*	.46	.46	.616	.791	
문항8		1	.302*	.38	.58		.702	
문항9			1	.43	.50		.767	

* $p<.01$

(4) 진로준비행동

청소년들의 진로·직업 역량을 측정하기 위한 진로계획 및 준비 영역에서

는 진로목표설정과 진로준비행동으로 하위 지표를 구성하였다. 이 중 진로 목표설정을 측정하는 문항은 선택형 문항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문항 양호 분석을 위한 별도의 통계적 분석이 필요하지 않아 3개 문항으로 구성된 진로준비행동 지표에 대해서만 문항 양호도 관련 통계분석, 문항 간 상관관계, 신뢰도 그리고 탐색적 요인분석 등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진로준비행동 지표를 측정하기 위한 3개 문항 간 상관은 <표 III-36>에 나타난 것처럼 $\alpha=.01$ 수준에서 .350에서 .459의 정적인 상관을 나타냈다. 또한 각 문항 간 신뢰도 계수 $\alpha = .666$ 로 비교적 양호한 수준이었다. 동시에 3개의 문항이 단일 요인을 측정하고 있는지를 탐색하기 위해 주성분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3개 문항 모두 요인적재치에서 비슷한 수치를 보여 단일 요인으로 묶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III-35> 진로준비행동 측정문항

10. 지난 1년동안 나는 학교 공부 외에 나의 소질과 적성을 살리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였다
11. 지난 1년동안 나는 방과 후나 방학을 이용하여 직업 체험을 해본 적이있다
12. 지난 1년 동안 진로문제를 의논하거나 해결하기 위해 선생님이나 상담전문가를 찾은 적이 있다

<표 III-36> 진로준비행동 지표 문항간 상관관계

	문항간 상관			문항 전체 상관	문항제 거시 신뢰도	전체 신뢰도	요인부하량	
	문항10	문항11	문항12				요인1	요인2
문항10	1	.459*	.350*	.48	.57	.666	.783	
문항11		1	.396*	.52	.52		.809	
문항12			1	.44	.63		.748	

* $p<.01$

IV. 결론 및 제언

1. 결론
2. 제언

IV.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2003년도와 2004년도에 수행된 『청소년개발지표 개발 연구』의 후속연구로서 2004년도 연구에서 확정된 한국청소년개발지표의 결과부문 중 청소년의 ‘정의적 특성’, ‘인지적 특성’, ‘사회적 역량’, ‘시민적 역량’, ‘직업적 역량’의 다섯 개 영역의 특성 및 역량을 측정하기 위한 조사도구를 개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먼저, 각 지표영역별로 개념을 조작적으로 정의한 후, 하위영역(요소)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각 영역별 하위영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의적 특성’ 영역의 하위영역은 ‘자기개념’, ‘행복감’, ‘성취동기’로 구성되었으며, ‘자기개념’의 측정도구는 4개 문항, ‘행복감’과 ‘성취동기’의 측정도구는 각각 5개 문항으로 ‘정의적 특성’의 측정도구는 총 14개 문항으로 제작되었다.

둘째, ‘인지적 특성’ 영역의 하위영역은 ‘창의성’, ‘자기주도학습 준비도’, ‘문제해결능력’으로 구성되었으며, ‘창의성’의 측정도구는 7개 문항, ‘자기주도학습 준비도’의 측정도구는 5개 문항, ‘문제해결능력’의 측정도구는 6개 문항으로 ‘인지적 특성’은 총 18개 문항으로 제작되었다.

셋째, ‘사회적 역량’ 영역의 하위영역은 ‘친사회성’, ‘사회적 신뢰감’, ‘사회적 기술’로 구성되었으며, ‘친사회성’, ‘사회적 신뢰감’, ‘사회적 기술’의 측정도구는 각각 5개 문항으로 ‘사회적 역량’의 측정도구는 총 15개 문항으로 제작되었다.

넷째, ‘시민적 역량’ 영역의 하위영역은 ‘청소년인권의식’, ‘공동체의식’, ‘국제화의식’, ‘국가의 책무’, ‘소비 및 경제의식’으로 구성되었으며, ‘청소년인권의식’과 ‘국가의 책무’의 측정도구는 각각 4개 문항, ‘공동체의식’과 ‘소비 및 경제의식’의 측정도구는 각각 5개 문항, ‘국제화의식’의 측정도구는 3

개 문항으로 ‘시민적 역량’의 측정도구는 총 22개 문항으로 제작되었다.

다섯째, ‘진로·직업 역량’ 영역의 하위영역은 ‘직업선택의 주도성’, ‘직업적 특성이해’, ‘직업정보탐색’, ‘진로준비행동’, ‘진로목표설정’, ‘직업 선호도’로 구성되었으며, ‘직업선택의 주도성’, ‘직업적 특성이해’, ‘직업정보탐색’, ‘진로준비행동’의 측정도구는 각각 3개 문항, ‘진로목표설정’의 측정도구는 1개 문항, ‘직업 선호도’의 측정도구는 4개 문항으로 총 17개 문항으로 제작되었다.

이상의 청소년개발지표 측정도구는 정책적 함의를 지니면서도 측정가능성과 요인부합성을 만족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영역별 문항을 최소화하여 다섯 가지 영역 전체를 하나의 세트로 하는 총 86개 문항의 측정도구로 개발하였다.

다음으로, 최종적으로 구성된 하위영역별 측정문항에 대한 학생들의 문항이해도를 알아보기 위해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문항이해도에 문제점이 있는 문항들을 수정한 후 1차 본조지 측정도구를 완성하여, 전국 고등학교 2학년생을 모집단으로 하여 1차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1차 본조사는 2006년도 연구를 위한 예비조사의 성격을 띠면서 동시에 정책적 함의를 지니는 문항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본조사의 성격을 띠기도 한다. 조사결과 각 영역별 문항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분석하였으며, 정책적으로 의미있는 항목에 대한 주요조사결과를 제시하였다.

1차 본조사 결과 개발된 측정도구의 문제점들이 드러났다.

첫째, 광범위한 기존의 척도들에 대한 심층적 검토가 부족한 상태에서 정책적·사회적 시사성과 청소년의 문항이해도를 문항선정의 주요기준으로 선택한 결과 문항들간의 상관성이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최종 문항선정단계에서의 임의성이 결과로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탐색적 요인분석결과 하나의 단일요인으로 구성되지 않은 하부요인들이 다수 드러났다. 이는 영역설정과 하부요인구분을 이론적으로 구성하는 과정에 원인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지만 단일요인으로 구성되지 않은 하부요인들에 대한 정보는 향후 도구개발에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

본 연구가 갖는 제한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측정문항의 형식상의 한계이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도구의 문항들은 대체로 능력의 소유여부를 직접적으로 측정하지 않고 자기기입식의 간접적 방식을 택하였기 때문에 직접적인 능력의 측정이 아닌 특성 또는 성향을 측정하였다. 그렇지만, 측정가능성을 고려해 볼 때 향후 연구에 있어서도 직접적인 능력을 측정하는 도구의 개발은 논의의 여지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다섯 가지 영역의 도구를 같은 대상에 대하여 실시하기 위하여 최대한 문항수를 줄여 측정결과에 영향을 미칠 피로효과를 배제하였으나 그 결과 각 영역별 특성(또는 성향)을 파악하는 데는 일정한 한계를 지닌다.

2. 제언

향후 청소년개발지표 연구에 대한 제언사항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차 본조사 결과에서 문제점으로 제기된 문항선정의 임의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우나, 보다 철저한 메타분석을 통한 문항선정과 통계적 검증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각 영역별 지표항목간 관련성에 대해 엄밀한 검증절차가 필요하다. 보다 정교하게 고안된 자료수집과정을 통하여 국가 수준의 표준화 검사로 발전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검토 및 전문가 의견 참조를 통한 내용 타당도 검증 및 탐색적 요인분석에 그쳤으나 향후 연구에서는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소규모의 예비조사를 반복적으로 실시하여 도구를 수정하고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셋째, 최종문항선정 과정에서 1차 문항에 대한 구인타당도 검증과 문항양호도 검증의 절차를 거쳐 이에 근거한 문항을 선정함으로써 내적 합치도 지수를 높이고 영역별로 한 요인으로 수렴되지 않도록 도구개발의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넷째, 향후 보다 폭넓은 연령층의 대상에 적합한 도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의 대상 연령층을 몇 개로 그룹화하여 연령층에 맞는 도구를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국제비교가 가능한 도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현단계에서의 국제비교조사는 어렵지만 향후 보다 정교한 도구가 개발되고 조사결과를 축적해 가면서 국제비교가 도구의 개발을 계획·추진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역량 및 특성을 다섯 개 영역에 걸쳐 포괄적인 특성 및 역량을 측정하였기 때문에 각 영역의 부분적인 역량 및 특성의 측정에 머물렀다. 향후 연구에서는 각 영역별 도구를 하나의 세트로 만들거나 몇 개의 영역을 묶어서 하나의 세트를 만들고, 세트별로 매년 조사를 실시하거나 또는 2년 또는 3년 간격으로 세트별로 조사를 실시하는 방법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청소년의 결과부문에 대한 보다 정교한 도구개발과 함께 청소년들의 배경 및 환경요인에 대한 조사항목을 개발하여 보다 포괄적으로 청소년들의 사회적 환경적 상황 및 성장·발달 상황에 대한 지표를 생산할 필요가 있다.

여덟째, 지금까지 사용해 온 ‘청소년개발지표’에서 ‘개발’이라는 용어는 시대상황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본 연구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개발’ 대신 ‘성장 및 발달’ 등 대체할 수 있는 개념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한국어문헌>

- 최인숙(1998). 창의성을 이해하기 위한 여섯 가지 질문, 한국심리학회지, 17(1), pp.25-47).
- 고성희(1990). 한국인의 정신건강개념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국정홍보처(1994). 청소년의 생활의식 및 가치관에 대한 조사.
- _____ (1996). 2002 시민의식 국제비교조사.
- _____ (2001). 한국인의 의식 및 가치관 조사.
- 김광명(1997). 「서구시민사회의 시민의식과 시민교육」. 『국민윤리연구』. 제37호, 355-372쪽.
- 김영수(2001). 「세계사회의 발전과 세계시민의식 확산」. 『동아연구』. 제41호, 243-292쪽.
- 김영인(2005). 「청소년의 불안 핵폐기장 갈등 참여와 시민의식 형성의 관련성 고찰」. 『청소년학연구』. 제12권 1호, 151-182쪽.
- 김진숙, 김용태, 반신환, 이소우, 조성호(1997). 청소년 위기상담. 서울:청소년대화의광장.
- 노병만(2003). 「한국의 충효관념과 민주시민의식의 관계」.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25집 1호, 57-85쪽.
- 박동균(2003). 「중소도시 범죄에 대한 시민의식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16호, 77-105쪽.
- 박용현(1974). 사회적 행동과 학습. 서울: 교육출판사.
- 박재욱(2004). 「도시거버넌스와 통치엘리트」. 『21세기 정치학회보』. 제14집 1호, 1-23쪽.
- 배한동(2001). 「한국대학생의 민주시민의식에 관한 조사연구」. 『대한정치학회보』. 제9집 2호, 227-260쪽.
- 서국희, 조맹제(1997). 지역사회거주 청소년의 우울증상 유병율. 정신의학, 22(2), 11-24.
- 서울특별시(1994). 청소년의 국제화의식 조사.
- _____ (1996). 청소년 생활실태 및 의식에 대한 여론조사.
- 석현호외 (2004). 한국종합사회조사. 성균관대학교.
- 송인섭(1989). 인간심리와 자아개념. 서울:양서원

- 유석렬(1996). 「세계속의 한국의 위상과 시민의식」. 『사회와교육』. 제23권, 11-24쪽.
- 윤명희 외(2003). 웹기반 창의성 성향검사 개발. 교육학연구, 41(3). pp.519-539.
- 이승중(1997). 「지방화 세계화 시대의 시민의식」. 『사회와교육』. 제 24호. 49-63쪽.
- 이용남 외(2004). 교육 및 상담 심리학. 서울:교육과학사.
- 이은숙. (1996). 주장훈련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불안감소 및 자기표현력 신장에 미치는 효과. 대구효성카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장호. (1982). 상담심리학 입문. 서울: 박영사.
- 정성호(2002). 「한국인의 시민의식 현황과 과제」. 『사회과학연구』. 제41호, 147-164쪽.
- 정원식. (1968). 자아개념 검사지 및 실시요강. 서울:코리안테스팅센터
- 하대현(1996). 인간지능이론과 연구의 최근동향. 교육심리연구, 10(1). pp.127-161.
- 하주현(2001). 창의성발달에 관한 이론적 연구. 교육심리연구, 15(2). pp.139-156.
- 한국청소년개발원(2004). 청소년개발지표 개발 연구. 서울:한국청소년개발원.
- 한규석(1995). 사회심리학의 이해. 서울: 학지사.
- 한상철 외(2004). 청소년심리학. 서울:교육과학사.
- 함병수 외(2004). 청소년지도방법론, 서울:교육과학사.
- 허혜경(2001). 성인지능의 본질 및 검사방법에 관한 연구. 교육학연구, 39(1). pp.25-68.

<영어문헌>

- Acher, S. R., Hymel, S., & Renshaw, P. D.(1984). Loneliness in children. Child Development, 55, 1456-1464. Children's Loneliness Scale.
- Ames, C. (1992). Classroom: Goals, structure, and student motivatio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4, 261-271.
- Andrews, F. M., & Withey, S. B.(1976). Social indicators of well-being: Americans' perceptions of life quality. New York: Plwnum Press.
- Bandura, A. (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 191-215.
- _____(1986).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A social cognition theor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Bandura, A., & Schunk, D. H. (1981). Cultivating competence, self-efficacy, and interest through proximal self-motiv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1, 586-598.
- Barron, F. & Harrington, D.M.(1981). Creativity, intelligence, and personality. *Annual Review of Psychology*, 32. pp.439-476.
- Candy, P.C.(1991). Self-direction for lifelong learning: A comprehensive theory and practice. San Francisco: Jossey-Bass Publishers.
- Carnegie Council on Adolescent Development(1989). Turning points: Preparing American youth for the 21st century. Report of the Task Force on Education of Young Adolescent. Washington, DC:Carnegie Corporation of New York.
- Center for Youth Development and Policy Research(1991). A New Vision: Promoting youth development, testimony. Washington, DC: House Select Committee on Children, Youth and Families.
- Cheek, J. M., & Buss, A. H.(1981). Shyness and sociabil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1, 330-339. Revised Shyness Scale.
- Coopersmith, S. (1967).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San Francisco: Freeman.
- Dean, D.(1961). Alienation: Its meaning and measurement.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26, 753-758. Social Isolation Items.
- Deci, E. L. (1971). Effects of externally mediated on intrinsic motiv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8, 105-115.
- Diener, E. (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 pp. 542-575.
- Fey, W. F.(1955). Acceptance by others and its relation to acceptance of self and others: A revaluation.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50, 274-276. Acceptability to Others
- Guglielmino, L.M.(1977). Development of the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scale.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Georgia.
- Guglielmino, P.J., & Klatt, L. A.(1994).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as a characteristic of the entrepreneur. In H. B. Long and Associates, New ideas about self-directed learning, Oklahoma: Oklahoma Research Center for Continuing Professional and Higher Education, University of Oklahoma, pp. 161-173.
- Hammen, C., Marks, T., Mayol, A., & deMayo, R. (1985). depressive self-schemas, life stress and vulnerability to depress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4, 308-319.

- Hecht, D. B., Inderbitzen, H. M., & Bukowski, A. L. (1998). The relationship between peer status and depressive symptoms in children adolescent.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5, 153-160.
- Helmreich R., & Stapp, J.(1974). Short forms of the texas social behavior inventory(TSBI), an objective measure of self-esteem. *Bulletine of the Psychonomic Society*, 4, 473-475. Texas Social Behavior Inventory(TSBI).
- Higgins, J.M.(1994). 101 creative problem solving techniques: The handbook of new ideas for business. NY:The New Management Publishing Company.
- Huebner, A. J.(2003). Positive youth development: The role of competence. In F. A. Villarruel and others(eds.), *Community youth development: Programs, policies, and practices*. California: Sage Publications, Inc.
- James, W. (1890). *Principles of Psychology*. New York: Holt.
- Kohn, M., & Schooler, C.(1983). Work and personality: An inquiry into the impact of social stratification. Norwood, NJ: Ablex. Chapter 4. Normlessness.
- La Grecia, A. M., Dandes, S. K., Wick, P., Shaw, K., & Stone, W. L.(1988). Development of the Social Anxiety Scale for Children: Reliability and concurrent validity.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7, 84-91. Social Anxiety Scale for Children.
- Landers, D. M. (1980). The arousal-performance relationship revisited. *Research Quarterly for exercise and sports*, 51, 77-90.
- Lazarus, R. S., & Averill, J. R. (1972). Emotion and cognition with special reference to anxiety. In Co. spielberger(Eds.), *Anxiety: current trends in theory and research* 2. New York: Academic Press.
- Levitt, E. E. (1980). *The psychology of anxiety*. Hillsdale, NK: Erlbaum.
- Lewinsohn, P. M., Rohde, P., & Seeley, J. R. (1998). Major depressive disorder in older adolescents: Prevalence, risk factors and clinical implications. *Clinical Psychology Review*, 18(7), 765-794.
- Liang, J. (1985). a Structural Integration of the Affect balance scale and the life satisfaction index A. *Journal of Gerontology*, 40, 552-561.
- MacKinnon, D.W.(1962). The nature and nurture of creative talent. *American Psychologist*, 17, pp.484-495.
- McClelland, D. (1961). *The achieving society*. Princeton. NJ: Van Nostrand.
- _____(1985). *Human Motivation*. Glenview. ILL: Scott, Foresman and company.

- Mead, G. H. (1934). *Mind, Self and societ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Meece, J. L., Blumenfeld, P. C., & Hoyle, R. H. (1988). Students' goal orientations and cognitive engagement in classroom activitie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0, 514-523.
- Morris, C. G. (1988). *Psychology: An introduction*(6th ed).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Murray, H. A. (1938). *Explorations in personality: A clinical and experimental study of fifty men of college ag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O'Malley, P. M., & Bachman, J. F. (1983). Self-esteem: Change and stability between 13 and 23. *Developmental Psychology*, 19, 257-268.
- Paul, G. L.(1966). *Insight vs. desensitization in psychotherapy*.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Personal Report of Confidence as a Speaker*.
- Perkins, D.N.(1988). The possibility of invention. In R.J. Sternberg(Ed.). *The nature of creativity*. pp.362-385. NY:Cambridge University Press.
- Pittman, K. J., & Irby, M. (1996). *Preventing problems or promoting development: Competing priorities or inseparable goals*. Batimore: International Youth Foundation.
- Rogers, C. R. (1961). *Client-centered therapy*. Boston: Houghton Mifflin company.
- Rosenberg, M.(1957). *Occupation and values*(pp. 25-35). Glencoe, IL: Free Press. *Faith in People Scale*.
- Rotter, J. B.(1971). Generalized expectancies of interpersonal trust, *American Psychologist*, 26. 443-452. *Interpersonal Trust Scale*.
- Scales, P., & Leffert, N. (1999). *Development assets: A synthesis of the scientific research on adolescent development*. Minneapolis, MN: Search Institute.
- Scheussler, K.(1982). *Measuring social life feelings*. San Francisco: Jossey-bass. *Social Life Feeling Scale 2: Doubt About the Trustworthiness of People*.
- Schunk, d. H. (1983). Reward contingencies and the development of child's skills and self-efficacy.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5.
- Scott, W. A.(1965). *Values and organizations: A study of fraternities and sororities*. Chicago: Rand McNally. *Personal Values Scales(Loyalty)*.
- Shaffer, L. F. (1952). *The Psychology of Adjustment*. Boston: Houghton co.
- Silver, W. S., Mitchell, T. R., & Gist, M. e. (1995). Responses to successful and unsuccessful performance: The moderating effect of self-efficacy on the

- relationship between performance and attributions.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 62(3), 286-299.
- Srole, L.(1956). Social Integration and certain corollari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21, 709-716. Anomia
- Sternberg, R.J.(1988). Three-facet model of creativity. In R. J. Sternberg(Ed.). *The nature of creativity*, pp.125-147. NY:Cambridge University Press.
- Torrance, E.P.(1988). The nature of creativity as manifest in its testing. In Stenberg, R.J.(Ed.). *The nature of creativity*, pp. 43-75. Cambridge:Cambridge University Press.
-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 (1997). *Understanding youth development: Promoting positive pathways of growth*. Washington, DC: Government Printing Office.
- Wood, R. E., & Cocke, E. A. (1987). The reaction of self-efficacy and grade goals to academic performance.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47, 1013-1024.
- Woodman, R. W., & Schoenfeldt, L.F.(1989). Individual differences in creativity: A interactionist perspectives. In J.A. Glover, R.R. Ronning, & Reynolds(Eds), *Handbook of creativity*, pp.77-92. NY:Plenum.
- Wrightman, L. S.(1974). *Assumption about human nature: A social-psychological analysis*. Monterey, CA: Brooks/Cole. *Philosophies of Human Nature(Altruism)*.
- Young, G., Rathge, R., Mullis, R., & Mullis, A. (1990). Adolescent stress and self-esteem, *Adolescence*, 25(98), 333-341.
- Zimmerman, B. J., Bandura, A., & Martinez-Pons, M. C. (1992). Self-motivation for academic attainment: the role of self-efficacy beliefs and personal goal setting.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29, 663-676.

부 록

1. 예비조사지
2. 1차 본조사지
3. 1차 본조사 주요결과
 - 1) 한국 청소년의 행복감
 - 2) 한국 청소년의 창의성수준
 - 3) 한국 청소년의 국가의 책무에 대한 의식

1. 예비조사지

「청소년개발지표」 개발을 위한 조사

날로 행복과 건강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코리아리서치는 한국청소년개발원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여러분의 의식과 생각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한국청소년개발원은 청소년 정책 및 청소년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입니다.

본 설문조사를 통해서 한국의 청소년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번 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더 나은 청소년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적으로 처리되므로 외부로 유출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5년 10월

한국청소년개발원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142번지 한국청소년개발원(☎ 137-715)

김현철 (☎ 02-2188-8836, 8891 / FAX : 2188-8829)

김신영 (☎ 02-2188-8806, 8891 / FAX : 2188-8899)

【1】 다음 사항을 잘 읽고, 자신과 **가장** 일치한다고 생각되는 곳에 √ 표 하세요.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 다
1 나는 나에게 맡겨진 일(학업)을 잘 수행한다					
2 나는 나의 외모에 만족한다					
3 나는 주변사람들에게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4 나는 나의 성격에 만족한다					
5 나는 행복하다					
6 나는 걱정(고민)이 많다					
7 나는 사는 게 즐겁다					
8 나는 살고 싶지 않다					
9 나의 미래는 희망적이다					
10 나는 분명한 나의 인생목표를 가지고 있다					
11 나는 지금 무엇인가 달성해야 할 목표를 가지고 있다					
12 어떤 직업이나 전문분야에서 인정받는 권위자가 되고 싶다					
13 나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 한다					
14 나는 어려운 일을 남들보다 좀 더 잘하고 싶다					

[2] 다음 사항을 잘 읽고, 자신과 **가장** 일치한다고 생각되는 곳에 V표 하세요.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 다
1 나는윗사람의 지시에 그냥 따르기보다는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기를 좋아한다					
2 나는 항상 무언가를 알려고 한다					
3 나는 특이하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4 나는 상상하는 것을 좋아한다					
5 나는 아무리 힘들어도 하던 일은 끝을 낸다					
6 나는 틀에 박힌 대로 행동하는 것을 싫어한다					
7 나는 직관(직감)에 의한 판단을 중요시 한다					
8 나는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					
9 나는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 무엇이든지 배울 수 있다					
10 나는 다른 사람과 아이디어에 관해 토론하기를 좋아한다					
11 나는 결과에 상관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기를 좋아한다					
12 나는 지금 내가 무엇을 배워야 할지를 알고 있다					
13 나는 문제가 생길 때, 문제해결을 위해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먼저 확인한다					
14 나는 문제가 생길 때, 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한다					
15 나는 문제가 생길 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의 원인을 분석한다					
16 나는 의사결정을 잘 못해서 후회한 적이 많다					
17 나는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도 한번 하기로 한 문제는 끝까지 해결한다					
18 나는 나의 문제해결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충고를 부탁한다					

[3] 다음 사항을 잘 읽고, 자신과 **가장** 일치한다고 생각되는 곳에 V표 하세요.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 다
1 나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보면 당장 가서 돕는다					
2 나는 다른 사람의 생명이 위험할 경우, 내가 다소 위험하더라도 기꺼이 도울 것이다					
3 나는 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다소 타인에게 해가 되더라도 신경쓰지 않는다					
4 나는 남들로부터 무례하다는 말을 들을 때가 있다					
5 돈을 버는 방법을 두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6 길거리에서 내가 위험이나 곤경에 처하게 되면 누군가가 나를 도울 것이다					
7 주변에 믿고 의지할 만한 사람 수가 점점 더 적어지는 것 같다					
8 우리 사회는 대체로 공정한 사회인 것 같다					
9 잘 모르는 사람과 사귀거나 거래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10 요즘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이미 가진 것도 남에게 빼앗길 수 있다					
11 나는 아무리 낯선 사람이라도 쉽게 말을 건넨다					
12 나는 동료들로 하여금 서로 협력하도록 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13 나는 친구 간의 서먹서먹한 관계를 부드럽게 할 수 있다					
14 나는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을 피한다					
15 나는 친구들 간의 갈등관계를 잘 해결할 수 있다					

【4】 다음 사항을 잘 읽고, 자신과 **가장** 일치한다고 생각되는 곳에 V표 하세요.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 다
1 만약 내가 돈을 많이 번다면 다른 사람을 위해 세금을 많이 낼 수 있다					
2 나라를 위해서라면 나 자신의 이익은 희생되어도 좋다					
3 사람들은 재산이나 능력에 관계없이 동등한 대접을 받아야 한다					
4 외국인 근로자들도 우리와 똑같은 권리를 가져야한다					
5 교육적인 차별은 있어야 한다					
6 나는 개인적인 일보다 공적인 일을 중요시 한다					
7 나라의 발전이 나의 발전이다					
8 나는 가능하면 외국에 나가 살고 싶다					
9 나는 국가의 어떠한 위기가 닥치더라도 피하지 않겠다					
10 필요하다면 내가 사는 지역에 쓰레기처리장, 소각장 등의 혐오시설이 설치되어도 좋다					
11 우리와 같은 청소년들도 선거권을 가져야 한다					
12 다른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적극적으로 원조해야 한다					
13 외국의 것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14 우리것/남의것을 구분하기 보다는 외국것이라도 좋은 것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					
15물건을 살 때 그 물건이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인지를 확인한다					
16 장래에 나는 취직을 하기 보다는 나만의 사업을 하고 싶다					
17 우리사회에서 부자란 대부분 법과 규범을 지켜서 재산을 모은 사람들이다					
18 성공한 기업가는 사회적으로 존경받아야 한다					
19 우리 사회에서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					

【5】 다음 20~23 항목에 대해서 정부가 어느 정도까지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곳에 V표 하세요.

내 용	전적으로 개인과 가족의 책임이므로 정부의 지원 불필요	필요한 계층에게 필요한 만큼만 지원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보장이 필요	모든 국민에게 최대한 높은 수준으로
20 교육				
21 의료				
22 주택				
23 일자리(또는 실업문제)				

※ ☐안에 해당하는 번호를 적어주세요.

【6】 여러분이 나중에 노인이 되었을 때, 여러분의 노후생활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

1. 나 자신 2. 가족 3. 정부

2. 1차 본조사지

10월	청소년개발지표 개발을 위한 조사	ID				
안녕하세요? 저희 코리아리서치센터에서는 청소년 정책 및 청소년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인 한국청소년개발원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청소년 여러분의 의식과 생각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본 설문조사는 한국의 청소년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가를 알아봐 그 결과를 토대로 더 나은 청소년 정책을 만들기 위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러 분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13조와 제14조에 의거해서 통계적으로 처리되는 데만 사용되며 개인적인 정보는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오니 솔직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조사주관기관 : 한국청소년개발원 김현철 담당연구원 : (02-2188-8836) 김신영 (02-2188-8806)		실사진행기관 : (주)코리아리서치센터 담당연구원 : 원성훈/ 송미진 (02-3415-5100)				

SQ1. 성 별	① 남자	② 여자	
SQ2. 학 년 별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SQ3. 학 교 별	① 인문계	② 실업계	③ 기타
SQ4. 지 역 별	① 대도시	② 중소도시	③ 읍면지역

♣ 먼저, 여러분의 일반적인 생각을 여쭙겠습니다

문1. 다음 사항을 잘 읽고, 자신과 가장 일치한다고 생각되는 곳에 체크해 주세요.

매우 그렇다	어느 정도 그런 편	보통	별로 그렇지 않은 편	전혀 그렇지 않다
-----------	------------------	----	-------------------	-----------------

1) 나는 나에게 맡겨진 일(학업)을
잘 수행한다

① ② ③ ④ ⑤

	매우 그렇다	어느 정도 그런 편	보통	별로 그렇지 않은 편	전혀 그렇지 않다
2) 나는 나의 외모에 만족한다	① -----	② -----	③ -----	④ -----	⑤
3) 나는 주변사람들에게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	② -----	③ -----	④ -----	⑤
4) 나는 나의 성격에 만족한다	① -----	② -----	③ -----	④ -----	⑤
5) 나는 행복하다	① -----	② -----	③ -----	④ -----	⑤
6) 나는 걱정(고민)이 많다	① -----	② -----	③ -----	④ -----	⑤
7) 나는 사는데 즐겁다	① -----	② -----	③ -----	④ -----	⑤
8) 나는 살고 싶지 않다	① -----	② -----	③ -----	④ -----	⑤
9) 나의 미래는 희망적이다	① -----	② -----	③ -----	④ -----	⑤
10) 나는 분명한 나의 인생목표를 가지고 있다	① -----	② -----	③ -----	④ -----	⑤
11) 나는 지금 무엇인가 달성해야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① -----	② -----	③ -----	④ -----	⑤
12) 어떤 직업이나 전문분야에서 인정받는 권위자가 되고 싶다	① -----	② -----	③ -----	④ -----	⑤
13) 나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한다	① -----	② -----	③ -----	④ -----	⑤
14) 나는 어려운 일을 남들보다 좀 더 잘하고 싶다	① -----	② -----	③ -----	④ -----	⑤
15) 나는윗사람의 지시에 그냥 따르기 보다는 독자적으로 판단 하고 행동하기를 좋아한다	① -----	② -----	③ -----	④ -----	⑤
16) 나는 항상 무언가를 알려고 한다	① -----	② -----	③ -----	④ -----	⑤
17) 나는 특이하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① -----	② -----	③ -----	④ -----	⑤

	매우 그렇다	어느 정도 그런 편	보통	별로 그렇지 않은 편	전혀 그렇지 않다
18) 나는 상상하는 것을 좋아한다	① -----	② -----	③ -----	④ -----	⑤
19) 나는 아무리 힘들어도 하던 일은 끝을 낸다	① -----	② -----	③ -----	④ -----	⑤
20) 나는 틀에 박힌 대로 행동하는 것을 싫어한다	① -----	② -----	③ -----	④ -----	⑤
21) 나는 직관(직감)에 의한 판단을 중요시한다	① -----	② -----	③ -----	④ -----	⑤
22) 나는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	① -----	② -----	③ -----	④ -----	⑤
23) 나는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하면 무엇이든지 배울 수 있다	① -----	② -----	③ -----	④ -----	⑤
24) 나는 다른 사람과 아이디어에 관해 토론하기를 좋아한다	① -----	② -----	③ -----	④ -----	⑤
25) 나는 결과에 상관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기를 좋아한다	① -----	② -----	③ -----	④ -----	⑤
26) 나는 지금 내가 무엇을 배워야 할지를 알고 있다	① -----	② -----	③ -----	④ -----	⑤
27) 나는 문제가 생길 때, 문제해결을 위해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 먼저 확인한다	① -----	② -----	③ -----	④ -----	⑤
28) 나는 문제가 생길 때, 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한다	① -----	② -----	③ -----	④ -----	⑤
29) 나는 문제가 생길 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의 원인을 분석한다	① -----	② -----	③ -----	④ -----	⑤
30) 나는 의사결정을 잘 못해서 후회 한 적이 많다	① -----	② -----	③ -----	④ -----	⑤
31) 나는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도 한번 하기로 한 문제는 끝까지 해결한다	① -----	② -----	③ -----	④ -----	⑤

	매우 그렇다	어느 정도 그런 편	보통	별로 그렇지 않은 편	전혀 그렇지 않다
32) 나는 나의 문제해결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충고를 부탁한다	① -----	② -----	③ -----	④ -----	⑤ -----
33) 나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보면 당장 가서 돕는다	① -----	② -----	③ -----	④ -----	⑤ -----
34) 나는 다른 사람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 내가 다소 위험하더라도 기꺼이 도울 것이다	① -----	② -----	③ -----	④ -----	⑤ -----
35) 나는 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다소 타인에게 해가 되더라도 신경 쓰지 않는다	① -----	② -----	③ -----	④ -----	⑤ -----
36) 나는 남들로부터 무례하다는 말을 들을 때가 있다	① -----	② -----	③ -----	④ -----	⑤ -----
37) 돈을 버는 방법을 두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① -----	② -----	③ -----	④ -----	⑤ -----
38) 길거리에서 내가 위험이나 곤경에 처하게 되면 누군가가 나를 도울 것이다	① -----	② -----	③ -----	④ -----	⑤ -----
39) 주변에 믿고 의지할 만한 사람의 수가 점점 더 적어 지는 것 같다	① -----	② -----	③ -----	④ -----	⑤ -----
40) 우리 사회는 대체로 공정한 사회인 것 같다	① -----	② -----	③ -----	④ -----	⑤ -----
41) 잘 모르는 사람과 사귀거나 거래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① -----	② -----	③ -----	④ -----	⑤ -----
42) 요즘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이미 가진 것도 남에게 빼앗길 수 있다	① -----	② -----	③ -----	④ -----	⑤ -----
43) 나는 아무리 낮은 사람이라도 쉽게 말을 건넨다	① -----	② -----	③ -----	④ -----	⑤ -----

	매우 그렇다	어느 정도 그런 편	보통	별로 그렇지 않은 편	전혀 그렇지 않다
44) 나는 동료로 하여금 서로 협력 하도록 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① -----	② -----	③ -----	④ -----	⑤ -----
45) 나는 친구 간의 서먹서먹한 관계를 부드럽게 할 수 있다	① -----	② -----	③ -----	④ -----	⑤ -----
46) 나는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을 피한다	① -----	② -----	③ -----	④ -----	⑤ -----
47) 나는 친구들 간의 갈등관계를 잘 해결할 수 있다	① -----	② -----	③ -----	④ -----	⑤ -----
48) 만약 내가 돈을 많이 번다면 다른 사람을 위해 세금을 많이 낼 수 있다	① -----	② -----	③ -----	④ -----	⑤ -----
49) 나라를 위해서라면 나의 이익은 희생되어도 좋다	① -----	② -----	③ -----	④ -----	⑤ -----
50) 사람들은 재산/능력에 관계없이 동등한 대접을 받아야한다	① -----	② -----	③ -----	④ -----	⑤ -----
51) 외국인 근로자들도 우리와 똑같은 권리를 가져야한다	① -----	② -----	③ -----	④ -----	⑤ -----
52) 교육적인 차별은 있어야 한다	① -----	② -----	③ -----	④ -----	⑤ -----
53) 나는 개인적인 일보다 공적인 일을 중요시 한다	① -----	② -----	③ -----	④ -----	⑤ -----
54) 나라의 발전이 나의 발전이다	① -----	② -----	③ -----	④ -----	⑤ -----
55) 나는 가능하면 외국에 나가 살고 싶다	① -----	② -----	③ -----	④ -----	⑤ -----
56) 나는 국가에 어떠한 위기가 닥치더라도 피하지 않겠다	① -----	② -----	③ -----	④ -----	⑤ -----

	매우 그렇다	어느 정도 그런 편	보통	별로 그렇지 않은 편	전혀 그렇지 않다
57) 필요하다면 내가 사는 지역에 쓰레기처리장, 소각장 등의 혐오 시설이 설치되어도 좋다	① -----	② -----	③ -----	④ -----	⑤ -----
58) 우리와 같은 청소년들도 선거 권을 가져야한다	① -----	② -----	③ -----	④ -----	⑤ -----
59) 다른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적극적으로 원조해야 한다	① -----	② -----	③ -----	④ -----	⑤ -----
60) 외국의 것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① -----	② -----	③ -----	④ -----	⑤ -----
61) 우리것/ 남의 것을 구분하기 보다는 외국 것이라도 좋은 것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	① -----	② -----	③ -----	④ -----	⑤ -----
62) 물건을 살 때 그 물건이 나 에게 꼭 필요한 것인지를 확인한다	① -----	② -----	③ -----	④ -----	⑤ -----
63) 장래에 나는 취직을 하기 보다는 나만의 사업을 하고 싶다	① -----	② -----	③ -----	④ -----	⑤ -----
64) 우리 사회에서 부자란 대부분 법과 규범을 지켜서 재산을 모은 사람들이다	① -----	② -----	③ -----	④ -----	⑤ -----
65) 성공한 기업가는 사회적으로 존경받아야한다	① -----	② -----	③ -----	④ -----	⑤ -----
66) 우리 사회에서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	① -----	② -----	③ -----	④ -----	⑤ -----

♣ 다음은 정부의 역할에 관한 질문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것을 체크해주세요.

문2. 다음의 사항에 대해서 정부가 어느 정도 까지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자신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곳에 체크해주세요.

	전적으로 개인과 가족의 책임이므로 정부의 지원 불필요	필요한 계층에게 필요한 만큼만 지원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보장	모든 국민에게 최대한 높은 수준으로
1) 교 육	① ② ③ ④			
2) 의 료	① ② ③ ④			
3) 주 택	① ② ③ ④			
4) 일자리 (또는 실업문제)	① ② ③ ④			

♣ 이번에는 여러분의 진로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문3. 다음 사항을 잘 읽고, 자신과 가장 일치한다고 생각되는 곳에 체크해
주세요.

	매우 그렇다	어느 정도 그런 편	보통	별로 그렇지 않은 편	전혀 그렇지 않다
1) 나의 진로는 내가 선택하며 그에 대한 책임도 나에게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진로나 직업을 결정할 시기가 되면 내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선택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3) 나에게 적합한 학과나 직업은 나보다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더 잘 아신다	① ② ③ ④ ⑤				

	매우 그렇다	어느 정도 그런 편	보통	별로 그렇지 않은 편	전혀 그렇지 않다
4) 나는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 (직업)이 무엇인지 안다	① -----	② -----	③ -----	④ -----	⑤ -----
5) 나는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직업)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① -----	② -----	③ -----	④ -----	⑤ -----
6) 나는 내가 열정을 바쳐 해야 할 일(직업)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① -----	② -----	③ -----	④ -----	⑤ -----
7) 나는 직업에 관련한 정보를 구하기 위해 전문상담기관이나 학교에서 상담을 받은 적이 있다	① -----	② -----	③ -----	④ -----	⑤ -----
8) 나는 홍보물, 팜플렛,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관심있는 분야의 직업 정보를 찾아본 적이 있다	① -----	② -----	③ -----	④ -----	⑤ -----
9) 나는 관심있는 직업분야의 전문가를 만나거나 기관을 직접 방문해 본 적이 있다	① -----	② -----	③ -----	④ -----	⑤ -----
10) 지난 1년동안 나는 학교 공부 외에 나의 소질과 적성을 살리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였다	① -----	② -----	③ -----	④ -----	⑤ -----
11) 지난 1년동안 나는 방과 후나 방학을 이용하여 직업 체험을 해본 적이 있다	① -----	② -----	③ -----	④ -----	⑤ -----
12) 지난 1년 동안 진로문제를 의논 하거나 해결하기 위해 선생님이나 상담전문가를 찾은 적이 있다	① -----	② -----	③ -----	④ -----	⑤ -----

문4. 학생은 자신만의 진로목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 ① 이미 나만의 진로목표를 설정하였다 ②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이다
③ 아직 진로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다 ④ 전혀 생각해 본 적도 없다

문5. 학생이 선호하는 직업은 무엇이며, 그 직업에서 구체적으로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요?

[예시] ① (교사) ② (중학교에서 체육을 가르치고 싶다)

1) 선호하는 직업: (_____)

2) 구체적으로 하고 싶은 일: (_____)

문6. 다음 사항을 잘 읽고, 자신과 가장 일치한다고 생각되는 곳에 V표 하세요.

- | | 매우
그렇다 | 어느
정도
그런 편 | 보통 | 별로
그렇지
않은 편 | 전혀
그렇지
않다 |
|--|-----------|------------------|---------|-------------------|-----------------|
| 1) 내가 선호하는 직업을 갖기 위해
필요한 교육수준이나 자격조건 등을
알고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내가 선호하는 직업의 근무조건
(임금/근무시간/직무내용 등)에
대해 알고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문7. 마지막으로 통계처리를 위해 묻겠습니다. 부모님은 학교를 어디까지 나오셨나요? 보기에서 해당되는 번호를 찾아 적어주세요.

아버지 (_____), 어머니 (_____)

보 기	① 학교를 안 다니셨다	② 초등학교 졸업(중퇴포함)
	③ 중학교 졸업(중퇴포함)	④ 고등학교 졸업(중퇴포함)
	⑤ 대학교 졸업(전문대 졸업 및 중퇴포함)	⑥ 대학원 이상
	⑦ 모르겠다	

❶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❶

3. 1차 본조사 주요결과

1) 한국청소년의 행복감

본 조사에서는 한국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다섯 개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다섯 개의 문항은 “나는 행복하다”(문항1), “나는 걱정(고민)이 많다”(문항2), “나는 즐겁다”(문항3), “나는 살고 싶지 않다”(문항4) “나의 미래는 희망적이다”(문항5)이다. 응답항목은 점수가 높을수록 응답자의 행복감이 높은 방향을 설정되었다. 다섯 개 문항의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별로 그렇지 않은 편 (2)	보통 (3)	어느 정도 그런 편 (4)	매우 그렇다 (5)	합계
문항1	65(4.2)	175(11.4)	486(31.6)	574(37.3)	239(15.5)	1539(100)
문항2	342(22.2)	611(39.7)	384(25.0)	172(11.2)	30(1.9)	1539(100)
문항3	48(3.1)	168(10.9)	582(37.8)	537(34.9)	204(13.3)	1539(100)
문항4	28(1.8)	92(6.0)	298(19.4)	450(29.2)	671(43.6)	1539(100)
문항5	74(4.8)	289(18.8)	601(39.1)	372(24.2)	203(13.2)	1539(100)

다섯 개 항목들의 기초 통계값은 아래와 같다

	문항1	문항2	문항3	문항4	문항5
평균	3.49	2.31	3.44	4.07	3.22
표준편차	1.02	1.00	0.96	1.01	1.05
최대값	1	1	1	1	1
최소값	5	5	5	5	5

다섯 개 문항들에 대한 상관관계분석, 신뢰도 분석,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상관관계 분석결과 문항2와 나머지 문항들간의 상관관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나머지 문항들간은 하나의 개념을 측정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양호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문항제거시 신뢰도와 요인부하량 확

인결과 역시 문항2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었다.

	문항간상관					제거시 신뢰도	전체신 뢰도	요인부 하량
	문항1	문항2	문항3	문항4	문항5			
문항1		.257	.595	.438	.365	.61	.72	.81
문항2			.187	.240	.117	.75		.43
문항3				.474	.353	.62		.80
문항4					.336	.64		.74
문항5						.70		.62

최종 청소년행복감 지수의 구성을 위하여 문항2를 제거하고 신뢰도와 요인분석을 재 실시 한 결과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였다(내적 일치도 = .75, 요인부하량 = .81/.82/.74/.65). 최종 선정된 네 개의 문항을 합산하여 청소년 행복감 지수를 산출한 결과 최소값4와 최대값20의 범위에서 평균 14.21을 나타내었다. 이를 100점 만점의 점수로 재환산하면 약 73점에 해당되는 점수이다.

청소년의 행복감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먼저 응답 대상 청소년들의 성별, 학교별, 지역별 행복감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먼저 응답자의 행복감은 $\alpha=.05$ 수준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별 행복감의 차이를 살펴 보면, 인문계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들이 실업계에 재학중인 청소년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행복감 정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 청소년들의 지역별 구분에 따른 행복감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다.

	성 별		학 교 별		지 역 별		
	남자	여자	인문계	실업계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평균	14.08	14.34	14.34	13.77	14.37	14.06	14.09
검정 통계치	1.69		3.02		1.90		
유의수준	0.09		0.003		0.153		

청소년의 행복감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되는 네 가지 변수를 설정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독립변수는 학업만족도, 외모에 대한 만족도, 자존감, 성격에 대한 만족도이다. 위의 평균비교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학교별 변수를 통제변수로 설정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학교별 차이를 포함하여 모델에 투입한 모든 변수들이 $\alpha=.05$ 에서 유의미한 효과를 보였다. 표준화 회귀계수를 통하여 각 변수들이 행복감에 미치는 효과의 크기를 살펴 본 결과 가장 큰 효과를 보이는 변수는 청소년이 느끼는 자신의 성격에 대한 만족도였고(.27), 다음으로 자존감(.23)이었다.

변 수	비표준화 회귀계수	표준화 회귀계수
학교(실업계: 기준항목)	.41(.16)**	.06
학업만족도	.57(.08)**	.17
외모에 대한 만족도	.33(.08)**	.10
자존감	.78(.09)**	.23
성격에 대한 만족도	.80(.07)**	.27
상수	5.87(.35)**	
수정된 R 제곱	.31	

괄호안은 표준오차, ** $p < .01$

2) 한국청소년의 창의성 수준

본 조사에서는 청소년의 인지적 역량 중 창의성을 독립심, 호기심, 독특함, 상상력, 집착성, 개방성, 직관 등 7개의 하위영역별로 1개 문항씩 총 7개 문항으로 구성하여 측정하였다. 응답항목은 높은 점수가 측정하고자 하는 속성이 발달된 방향으로 원자료로부터 역코딩되었다(1 = “전혀 그렇지 않다”, 2 = “별로 그렇지 않다”, 3 = “보통이다”, 4 = “어느 정도 그런 편이다”, 5 = “매우 그렇다”). 일곱 문항의 내적일치도는 본문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많은 문항수를 고려할 때 매우 양호한 편은 아니었지만, 받아들일 수는 있는 수준이었다. 먼저 각 문항의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빈도(%)

	전혀 그렇지 않다 (1)	별로 그렇지 않은 편 (2)	보통 (3)	어느 정도 그런 편 (4)	매우 그렇다 (5)	합계
문항1	30(1.9)	208(13.5)	505(32.8)	487(31.6)	309(20.1)	1539(100)
문항2	18(1.2)	125(8.1)	549(35.7)	600(39.0)	247(16.0)	1539(100)
문항3	71(4.6)	278(18.1)	458(29.8)	448(29.1)	284(18.5)	1539(100)
문항4	19(1.2)	107(7.0)	311(20.2)	535(34.8)	567(36.8)	1539(100)
문항5	40(2.6)	285(18.5)	646(42.0)	415(27.0)	153(9.9)	1539(100)
문항6	14(0.9)	141(9.2)	500(32.5)	503(32.7)	381(24.8)	1539(100)
문항7	10(0.6)	129(8.4)	527(34.2)	726(47.2)	147(9.6)	1539(100)

일곱 개 문항 각각과 일곱 개 문항을 합산하여 만든 한국청소년의 창의성 지수의 기초통계는 아래와 같다.

	문항1	문항2	문항3	문항4	문항5	문항6	문항7	창의성지수
평균	3.54	3.61	3.39	3.99	3.23	3.71	3.57	25.04
표준편차	1.02	0.89	1.12	0.98	0.95	0.97	0.80	4.08
최대값	5	5	5	5	5	5	5	35
최소값	1	1	1	1	1	1	1	7

먼저 문항별 응답을 살펴보면, 조사대상자들의 창의성을 구성하는 일곱 개의 문항에 대한 평균점수는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창의성 중 상상력의 평균점수가 가장 높았으며($M = 3.99/SD = 0.98$), 다음으로 개방성 ($M = 3.71/SD = 0.97$), 호기심($M = 3.61/SD = 0.89$), 직관($M = 3.57/SD = 0.8$), 독립심($M = 3.54/SD = 1.02$), 독특함($M = 3.39/SD = 1.12$)순으로 나타났으며, 집착성($M = 3.23/SD = 0.95$)의 평균점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 개의 문항을 내적일치도와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합산한 후 “창의성지수”로 명명하였다. 최소값 7과 최대값 35사이에서 창의성 지수는 25.04로 나타났다. 이를 100점 만점으로 재환산하면, 약 64점 정도이다.

3) 한국청소년의 국가의 책무에 대한 인식 - 복지권을 중심으로

본 조사에서는 청소년의 시민적 역량 중 “청소년의 국가의 책무에 대한 인식”을 교육, 의료, 주택, 일자리(또는 실업문제)들의 문제에 국가의 책임정도를 묻는 문항들을 통하여 측정하였다. 응답항목은 높은 점수가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었다.(1 = “전적으로 가족과 국가의 책임이므로 정부의 지원 불필요”, 2 = “필요한 계층에게 필요한 만큼만 지원”, 3 =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보장”, 4 = “모든 국민에게 최대한 높은 수준의 보장”). 네 문항의 측정속성들은 본문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많지 않은 문항수를 고려할 때 비교적 양호하였다. 먼저 각 문항의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문항별 응답분포

빈도(%)

	전적으로 가족과 국가의 책임이므로 정부의 지원 불필요 (1)	필요한 계층에게 필요한 만큼만 지원 (2)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보장 (3)	모든 국민에게 최대한 높은 수준의 보장 (4)	합 계
교육	54(3.1)	227(13.1)	650(37.5)	802(46.3)	1733(100.0)
의료	42(2.4)	152(8.8)	419(24.2)	1120(64.6)	1733(100.0)
주택	87(5.0)	490(28.3)	769(44.4)	387(22.3)	1733(100.0)
일자리(실업)	86(5.0)	272(15.7)	709(40.9)	666(38.4)	1733(100.0)

네 개 문항 각각과 문항들을 합산하여 재구성한 “국가책무인식” 변수의 기초통계는 아래와 같다.

	교육	의료	주택	일자리(실업)	국가책무인식
평 균	3.3	3.5	2.8	3.1	12.7
표준편차	.80	.76	.83	.85	2.4
최대값	1	1	1	1	4
최소값	4	4	4	4	16

문항별 응답을 살펴 보면 청소년들이 인식하고 있는 국가의 책임은 의료 부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M = 3.5/SD = .76$), 국가의 책임을 가장 낮게 인식하고 있는 부분은 주택($M = 2.8/SD = .83$)이었다. 비교적 양호한 측정속성을 바탕으로 하여 네 개의 문항을 합산하여 살펴 본 결과 국가 책무인식의 평균은 12.7로 나타났다(최저4점/최고16점). 이는 청소년들이 교육, 의료, 주택, 일자리 등에 대하여 개인이나 가족의 책임이라기보다는 국가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가능하다.

연구에 도움을 주신 분들

◆ 집필진 ◆

김현철 한국청소년개발원 · 부연구위원(총괄)
김신영 한국청소년개발원 · 부연구위원(시민적 역량)
김진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 교수(인지적 특성)
송병국 순천향대학교 · 교수(진로·직업역량)
임성택 순천대학교 · 교수(사회적 역량)
임영식 중앙대학교 · 교수(정의적 특성)

◆ 자문진 ◆

(가나다 순)

김상욱 성균관대학교 · 교수
김아영 이화여자대학교 · 교수
김영수 서강대학교 · 교수
이종범 인천교육대학 · 시간강사
윤명희 동아대학교 · 교수
전상진 서강대학교 · 교수
주동범 한국해양대학교 · 교수
최동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전문연구원

2005년 한국청소년개발원 간행물 안내

■ 기관고유과제

- 05-R01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 맹영임 · 김민 · 임경희
- 05-R02 청소년 매니아 문화의 실태와 정책 과제 / 조혜영 · 김종길
- 05-R03 청소년지도사 근로실태 및 전문화 방안 연구 / 길은배 · 이미리 · 문성호
- 05-R04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평가시스템 개발 및 운영방안 연구 / 김경화 · 조용하
- 05-R05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연계 · 협력 방안 연구 / 이민희 · 임지연 · 김흥주 · 주동범
- 05-R06 국제청소년교류활동 평가체계 및 모형 개발 / 오해섭 · 김진화
- 05-R07 청소년 갈등해결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연구 / 최창욱 · 김정주 · 조영희
- 05-R08 청소년 복지정책 현황 및 개선 방안 연구 / 김경준 · 최인재 · 조흥식 · 이용교 · 정익중 · 이상균
- 05-R08-1 외국의 청소년복지정책 / 김경준 · 최인재 · 김창초 · 주재현 · 윤혜순 · 김문섭
- 05-R09 특별지원 청소년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지침서 개발 연구 / 이해연 · 조아미 · 박현선
- 05-R10 청소년 보호정책 실태와 발전 방안 / 윤철경 · 박병식 · 김현주 · 이봉주 · 김성경
- 05-R10-1 영국, 독일, 프랑스의 청소년보호관련 법제와 정책 자료집 / 윤철경 · 장해영
- 05-R11 청소년보호시설 · 단체의 역할 정립방안 연구 / 이춘화 · 방은령 · 윤옥경
- 05-R12 한국 청소년 패널조사(KYPS) III : 조사개요보고서 / 이경상 · 백혜정
- 05-R12-1 청소년 아르바이트 참여경험의 실태 및 학교부적응 관련 효과 / 이경상 · 유성렬 · 박창남
- 05-R12-2 청소년비행의 상습화현상에 관한 연구 / 이경상 · 이순래 · 박철현
- 05-R12-3 초등학교생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관련 변인 및 자아관련 변인에 관한 연구 / 백혜정 · 황혜정
- 05-R13 청소년개발지표 연구II: 측정도구 개발을 중심으로 / 김현철 · 김신영 · 김진호 · 송병국 · 임성택 · 임영식
- 05-R14 청소년 정보화 정책 개선방안 연구 / 박영균 · 성윤숙 · 권기창 · 이수진 · 이인호
- 05-R14-1 청소년 정보복지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 박영균 · 성윤숙 · 권기창
- 05-R14-2 청소년의 정보이용 활성화 정책 연구 / 박영균 · 성윤숙 · 이수진
- 05-R14-3 청소년 개인정보 보호정책 / 박영균 · 성윤숙 · 이인호

■ 협동연구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5-16-01 청소년 문제행동 종합대책 연구III : 청소년유해업소, 유해매체, 유해행위, 법 · 행정 · 제도환경, 외국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 김영한 · 이명진 · 이승현 (자체번호 05-R15)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5-16-02 청소년 유해업소 개선대책 연구 / 유진이 · 김영인 · 류중석 · 신현숙 (자체번호 05-R16)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5-16-03 청소년 유해매체 개선대책 연구 : 인터넷 유해요인과 개인 · 환경적 보호요소를 중심으로 / 서정아 · 김영희 · 김서연 (자체번호 05-R17)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5-16-04 청소년 유해행위 개선대책 연구 : 청소년 성관련 문제행
동의 보호요인 탐색과 처치방안 / 한상철·김남선·이수연·이미연·최성열 (자체번호 05-R18)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5-16-05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법·제도적 대책 연구 /
최인섭·강석구·김혜경 (자체번호 05-R19)

■ 수시과제

05-R20 문화콘텐츠 창작을 위한 창의적 문화교육 방안 연구 / 서동훈·김효정
05-R21 디지털시대 청소년의 가치관과 행동양식 / 이각범·황상민·조은·김옥순·배영자·강원택·유성경
05-R22 청소년의 자율성과 창의성 계발을 위한 부모교육 방안 연구 / 한정란·이성호·강승혜·김미옥·
김은정·김혜수·박정화
05-R23 고교생의 생활의식과 친구관계에 대한 국제비교 연구 / 김현철

■ 용역과제

05-R30 제주도 청소년문화특화프로그램 개발 연구 / 김진호·최창욱
05-R31 제주도 청소년들의 여가문화실태 및 요구조사 / 김진호·최창욱
05-R32 청소년정책 비전과 주요 추진과제 / 이민희·김진호·최창욱·강일규·강정석·김은경·김흥주·
김현철·성운숙·최인재
05-R33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자료 분석 연구 / 김영한·이춘화
05-R34 농어촌 청소년복지정책 평가 및 프로그램 개발 / 김경준·오해섭·김진모
05-R35 동북아 청소년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청소년교류 인프라 구축 / 오해섭·윤철경
05-R36 청소년위원회 BPR/ISP 구축 / 성운숙·백혜정·김신영·윤경원·최봉학·박흥표·정병진
05-R37 청소년의 조기유학 결정과정과 적응, 초국가적 가족관계 형성에 관한 연구 / 조혜영·이경상·
최원기·Nancy Abelman
05-R38 오늘의 청소년 (Korean Youth of Today) / 박영균·김진호
05-R39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청소년지도자 연수교육과정 및 운영에 관한 연구 / 맹영임·박옥식·전명기
05-R40 청소년 인권정책 기본 방향 연구 / 김경준·이춘화·최창욱·이용교
05-R41 2005 청소년백서 / 박영균·김현철
05-R42 사회갈등해소를 위한 민간인프라 구축 현황 및 방안 / 최인재·최창욱·반홍식·박수선
05-R43 청소년 문제행동의 사회적 비용구조 분석 연구 / 김경화·권해수·김혜영·박정선·박철현·
이지연·장승욱·정슬기·황규희
05-R44 청소년방과후 활동 프로그램 운영모델 개발 연구 / 맹영임·길은배·김정주·김홍원·전명기
05-R45 청소년인권 실태 조사 연구 / 길은배·이미리·이용교·임영식
05-R46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과목 출제지침서 / 이춘화·김영한
05-R47 2005년 특성화수련거리·자연재해 예방 및 대처훈련 / 임지연·민성환·신명철

- 05-R48 위기청소년 지원시설과 지원정책 현황 및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윤철경 · 이혜연 · 서정아 · 윤경원 · 이봉주 · 양미진
- 05-R49 청소년육성기금 지원사업평가 / 김경화 · 김현철 · 이경상 · 조혜영 · 최인재
- 05-R50 청소년육성기금 지원사업평가 2 - 공모사업성과평가 / 김경화 · 조혜영 · 최인재
- 05-R51 2005 서울시청소년활동프로그램 운영평가 / 김현철 · 백혜정 · 성운숙

■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05-S01 「새로운 통합 청소년 정책비전 및 정책과제 토론회」 청소년위원회 공동주최 (3. 16)
- 05-S02 「새로운 청소년 정책비전과 정책과제 공청회」 청소년위원회 공동주최 (3. 30)
- 05-S03 「2006년도 고유연구사업과제 발굴 · 선정을 위한 워크숍」 (3. 22)
- 05-S04 「청소년유형별 복지현황과 과제」 (7. 14)
- 05-S05 「청소년 문제행동 종합대책 III」 (9. 2)
- 05-S06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활성화 방안」 (9. 23)
- 05-S06-1 「외국의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9. 23)
- 05-S07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연계 · 협력 방안」 (10. 11)
- 05-S08 국제심포지엄 「위기청소년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 국제적 동향 및 정책과제(Building a Community-based Safety Net for Youths at Risk)」 청소년위원회 · OECD 공동주최 (10. 11)
- 05-S09 「갈등해결 관련 민간인프라 구축현황 및 향후과제」 (10. 22)
- 05-S10 「청소년 문제행동 종합대책 III」 (11. 4)
- 05-S11 「청소년 인권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워크숍」 (11. 8)
- 05-S12 정책포럼 「서울특별시 청소년정책 전문가 포럼」 서울특별시 공동주최 (11. 11)
- 05-S13 「청소년 문제행동의 사회적 비용구조분석 연구」 (11. 11)
- 05-S14 「청소년 갈등해결 리더십 캠프」 자료집 (7. 22-24)
- 05-S15 학술세미나 「디지털 시대의 청소년가치관과 행동양식」 한국정보사회학회 공동주최 (11. 22)
- 05-S16 「청소년 정보화정책 비전과 추진과제」 (11. 23)
- 05-S17 「청소년 조기유학 결정과정과 적응, 초국가적 가족관계 연구」 워크숍 (11. 25)
- 05-S18 해외학자 초청 워크숍 「College Dispositions : Chicagoland Korean America」 (6. 23)
- 05-S19 해외청소년기관 초청 정책 세미나 「중국의 사회변화와 청소년」 (7. 12)
- 05-S20 「청소년 보호정책의 대안 탐색 : 위기청소년 보호와 유해환경 개선대책」 (9. 15)
- 05-S21 국정과제 청소년분야 집중토론회 「향후 10년 청소년정책의 비전과 정책과제」 경제 · 인문사회 연구회 · 한양대 교육문제연구소 공동주최 (10. 6)
- 05-S22 OECD 전문가회의 「Policies for Youth at Risk and Community-based Partnership in Korea」 (10. 10-11)
- 05-S23 「청소년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12. 6)
- 05-S24 「한국청소년개발원 산 · 학 · 연 정책협의회」 (12. 15-17)
- 05-S25 전문가 포럼 「또띠와 함께하는 청소년교육과 문화」 경기도문화의전당 · 한양대 교육문제연구소 공동주최 (12. 20)
- 05-S26 「제2회 한국청소년패널 학술대회」 (12. 23)

■ 연구수행 자료집

05-M00 2004 연구성과 모음집 / 연구기획팀

05-M01 2005년도 고유과제 실행계획서 모음 / 연구기획팀

05-M02 2005년도 고유과제 중간보고서 모음 (전6권) / 연구기획팀

05-M03 청소년육성기금사업 평가 「평가편람」 / 김경화

■ 학술지

「한국청소년연구」 제16권 1호 (통권 제41호) / 연구정보지원팀

「한국청소년연구」 제16권 2호 (통권 제42호) / 연구정보지원팀

■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지도총서① 「청소년정책론」

청소년지도총서② 「청소년수련활동론」

청소년지도총서③ 「청소년지도방법론」

청소년지도총서④ 「청소년문제론」

청소년지도총서⑤ 「청소년교류론」

청소년지도총서⑥ 「청소년환경론」

청소년지도총서⑦ 「청소년심리학」

청소년지도총서⑧ 「청소년인권론」

청소년지도총서⑨ 「청소년상담론」

청소년지도총서⑩ 「청소년복지론」

청소년지도총서⑪ 「청소년문화론」

청소년지도총서⑫ 「청소년프로그램개발 및 평가론」

청소년지도총서⑬ 「청소년 봉사활동 및 동아리활동론」

청소년지도총서⑭ 「청소년기관운영론」

청소년지도총서⑮ 「청소년육성법규와 행정론」

■ 한국청소년개발원 문고

한국청소년개발원 문고 01 「좋은교사와 제자의 만남」

한국청소년개발원 문고 02 「행복한 십대 만들기 10가지」

한국청소년개발원 문고 03 「집나간 아이들 - 독일 청소년 중심」

한국청소년개발원 문고 04 「청소년학 용어집」

연구보고 05-R13

청소년개발지표 연구 II

- 측정도구개발을 중심으로 -

인 쇄 2005년 12월 3일

자

발 행 2005년 12월 5일

발행처 **한국청소년개발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142

발행인 배 규 한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주) 경성 전화 (02)503-3223 대표 유채란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2) 2188-8844(연구정보지원팀)

ISBN 89-7816-576-1

청소년개발지표 연구 II

- 측정도구개발을 중심으로 -

책임연구원 : 김현철(한국청소년개발원 ·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원 : 김신영(한국청소년개발원 · 부연구위원)

김진호(한국방송통신대학교 · 교수)

송병국(순천향대학교 · 교수)

임성택(순천대학교 · 교수)

임영식(중앙대학교 · 교수)

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 요약

본 연구는 2004년도 『청소년개발지표 개발 연구』에서 산출된 청소년개발지표의 결과부문 중 청소년의 ‘정의적 특성’, ‘인지적 특성’, ‘사회적 역량’, ‘시민적 역량’, ‘직업적 역량’을 측정하는 도구를 개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각 지표영역별 하위영역을 보면, 첫째, ‘정의적 특성’은 ‘자기개념’, ‘행복감’, ‘성취동기’로, 둘째, ‘인지적 특성’은 ‘창의성’, ‘자기주도학습 준비도’, ‘문제해결능력’으로, 셋째, ‘사회적 역량’은 ‘친사회성’, ‘사회적 신뢰감’, ‘사회적 기술’로, 넷째, ‘시민적 역량’은 ‘청소년인권의식’, ‘공동체의식’, ‘국제화의식’, ‘소비 및 경제의식’, ‘국가의 책무’로, 다섯째, ‘진로·직업 역량’은 ‘직업선택의 주도성’, ‘직업적 특성이해’, ‘직업정보탐색’, ‘진로준비행동’, ‘진로목표설정’, ‘직업 선호도’로 구성되었다.

각 하위영역별 문항은 정책적 함의를 지니면서도 측정가능성과 요인부합성을 만족하는 문항을 최종적으로 선정하였고, 다섯 가지 영역 전체를 포괄하는 하나의 측정도구를 개발하였다. ‘정의적 특성’ 14개 문항, ‘인지적 특성’ 18개 문항, ‘사회적 역량’ 15개 문항, ‘시민적 역량’ 22개 문항, ‘진로·직업역량’ 17개 문항으로 총 86개 문항의 청소년개발지표 측정도구를 개발하였다. 개발된 측정도구를 이용하여 전국 고등학교 2학년생을 모집단으로 한 1차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1차 본 조사는 차기년도로 이어지는 도구개발을 위한 예비조사의 성격을 띠며 정책적 함의를 지니는 문항에 대해서는 본조사의 성격을 띤다.

1차 본조사에 대한 신뢰도와 타당도를 분석한 결과, 첫째, 전반적으로 문항간의 상관성이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최종 문항선정단계에서의 임의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탐색적 요인분석결과 하나의 단일요인으로 구성되지 않은 하부요인들이 다수 드러났다. 이는 영역설정과 하부요인을 이론적으로 구성하는 과정에 원인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목 차

I. 서 론

1. 연구의 목적	3
2. 연구내용 및 범위	5
3. 연구방법	11
1) 문헌연구	11
2) 전문가포커스그룹 운영 및 워크숍 개최	11
3) 조사연구	11

II. 측정도구의 개발

1. 지표 영역별 개념의 이론적 검토 및 하위영역	15
1) 정의적 특성의 개념 및 하위영역	15
2) 인지적 특성의 개념 및 하위영역	26
3) 사회적 역량 개념 및 하위영역	36
4) 시민적 역량 개념 및 하위영역	42
5) 진로·직업 역량의 개념 및 하위영역	50
6) 소괄 : 5개 영역별 하위영역체계	62
2. 지표 영역별 측정도구의 개발	64
1) 정의적 특성영역	64
2) 인지적 특성 영역	69
3) 사회적 역량 영역	73
4) 시민적 역량영역	76
5) 진로·직업 역량 영역	84
6) 소괄 : 5개 영역 지표체계 및 측정문항	93

III. 1차 본조사 및 측정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분석결과

1. 1차 본조사의 개요	101
2. 지표영역별 측정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분석결과	103
1) 정의적 특성 영역	103

2) 인지적 특성 영역	106
3) 사회적 역량 영역	113
4) 시민적 역량 영역	118
5) 진로·직업역량 영역	125

IV. 결론 및 제언

1. 결론	133
2. 제언	136

참 고 문 헌	138
---------------	-----

부록

1. 예비조사지
2. 1차 본조사지
3. 1차 본조사 주요결과

표 목차

<표 I -1> 2004년 청소년개발지표 결과부문 지표영역 및 항목	5
<표 I -2> 각 지표영역별 하위영역	9
<표 I -3> 연도별 『청소년개발지표 개발연구』의 주요연구내용(2003년~2005년)	10
<표 II -1> 문제해결의 일반적 과정	34
<표 II -2> 국내·외에서의 진로개발 영역 설정 종합	54
<표 II -3> 한국적성연구소(1992)의 진로성숙도검사 하위영역 설정 및 문항구성	55
<표 II -4> 이기학(1997)의 진로태도성숙도검사 하위영역 설정 및 문항구성	56
<표 II -5> 한국심리검사연구소(2000)의 진로성숙도검사 하위영역 설정 및 문항구성	56
<표 II -6>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01)의 진로성숙도검사 하위영역 설정 및 문항구성	57
<표 II -7> CDI의 하위영역 설정 및 문항구성	58
<표 II -8> CMI의 하위영역 설정 및 문항구성	59
<표 II -9> 내·외 진로발달 검사도구의 하위영역 종합	60
<표 II -10> 진로의식의 하위영역 (1차 선정문항)	61
<표 II -11> 진로탐색의 하위영역 (1차 선정문항)	61
<표 II -12> 진로계획 및 준비의 하위영역 (1차 선정문항)	62
<표 II -13> 자아개념 및 자기효능감의 하위영역 (1차 선정문항)	65
<표 II -14> 행복감 및 스트레스의 하위영역 (1차 선정문항)	65
<표 II -15> 성취동기 및 목표지향성의 하위영역 (1차 선정문항)	67
<표 II -16> 자기개념의 하위영역과 측정문항	68
<표 II -17> 행복감의 하위영역과 측정문항	68
<표 II -18> 성취동기의 하위영역과 측정문항	69
<표 II -19> 창의성의 하위영역과 측정문항	71
<표 II -20> 문제해결능력 검사의 하위영역과 측정문항	72

<표 II-21> 자기주도학습준비도의 하위영역과 측정문항	73
<표 II-22> 친사회성의 하위영역과 측정문항	75
<표 II-23> 사회적 신뢰감의 하위영역과 측정문항	76
<표 II-24> 사회적 기술의 하위영역과 측정문항	76
<표 II-25> 시민의식의 하위영역 및 조사문항 비교	79
<표 II-26> 청소년 인권의식의 하위영역과 측정문항	83
<표 II-27> 공동체의식의 하위영역과 측정문항	83
<표 II-28> 국제화의식의 하위영역과 측정문항	83
<표 II-29> 국가의 책무의 하위영역과 측정문항	84
<표 II-30> 소비 및 경제의식의 하위영역과 측정문항	84
<표 II-31> 직업특성이해의 측정문항 (1차 선정문항)	86
<표 II-32> 직업적 소질이나 적성의 측정문항 (1차 선정문항) ...	87
<표 II-33> 직업정보탐색 능력지수의 측정문항 (1차 선정문항) ..	88
<표 II-34> 직업선호도의 측정문항 (1차 선정문항)	88
<표 II-35> 진로목표 설정 여부의 측정문항 (1차 선정문항)	89
<표 II-36> 진로계획 수립경험 여부의 측정문항 (1차 선정문항) ...	89
<표 II-37> 구체적인 진로준비(행동)실행의 측정문항 (1차 선정문항) ...	90
<표 II-38> 진로선택의 주도성의 측정문항 (1차 선정문항)	91
<표 II-39> 직업적 특성 이해의 측정문항 (2차 선정문항)	91
<표 II-40> 직업정보탐색의 측정문항 (2차 선정문항)	91
<표 II-41> 직업선호도의 측정문항 (2차 선정문항)	92
<표 II-42> 진로목표 설정의 측정문항 (2차 선정문항)	92
<표 II-43> 진로준비행동의 측정문항 (2차 선정문항)	92
<표 II-44> 5개영역 지표체계 측정문항	93
<표 III-1> 1차 본조사 대상학교 분포	102
<표 III-2> 1차 본조사 표본의 특성	102
<표 III-3> 자기개념 측정문항	103
<표 III-4> 자기개념의 하위 문항간 상관관계	103
<표 III-5> 행복감 측정문항	104
<표 III-6> 행복감의 하위 문항간 상관관계	105
<표 III-7> 성취동기 측정문항	106
<표 III-8> 성취동기 하위 문항간 상관관계	106

<표 III-9> 창의적 측정문항	107
<표 III-10> 창의성 검사의 문항간 상관관계	107
<표 III-11> 자기주도학습 측정문항	109
<표 III-12> 자기주도학습 준비도 검사의 문항간 상관관계	109
<표 III-13> 문제해결능력 측정문항	111
<표 III-14> 문제해결능력 검사의 문항간 상관관계	111
<표 III-15> 친사회성 측정문항	114
<표 III-16> 친사회성 검사의 문항간 상관관계	114
<표 III-17> 사회적 신뢰감 측정문항	116
<표 III-18> 사회적 신뢰감 검사의 문항간 상관관계	116
<표 III-19> 사회적 기술요인 측정문항	117
<표 III-20> 사회적 기술요인 검사의 문항간 상관관계	117
<표 III-21> 청소년인권의식 측정문항	119
<표 III-22> 청소년인권의식 검사의 문항간 상관관계	119
<표 III-23> 공동체의식 측정문항	121
<표 III-24> 공동체의식 검사의 문항간 상관관계	121
<표 III-25> 국제화의식 측정문항	122
<표 III-26> 국제화의식 검사의 문항간 상관관계	122
<표 III-27> 국가의 책무 측정문항	123
<표 III-28> 국가의 의무 검사의 문항간 상관관계	124
<표 III-29> 진로선택의 주도성 측정문항	126
<표 III-30> 진로선택의 주도성 지표 검사의 문항간 상관관계	126
<표 III-31> 직업적 특성 이해 측정문항	127
<표 III-32> 직업적 특성 이해 검사의 문항간 상관관계	127
<표 III-33> 직업정보탐색 측정문항	128
<표 III-34> 직업정보탐색 지표 문항간 상관관계	128
<표 III-35> 진로준비행동 측정문항	129
<표 III-36> 진로준비행동 지표 문항간 상관관계	129

그림 목차

<그림 I-1> 연구의 흐름도	12
<그림 II-1> 시민의식의 하위영역	50
<그림 II-2> 5개 영역별 하위영역 체계	63